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연구

책임연구원 권용신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손서락 타임뱅크 코리아 대표

공동연구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북행복재단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3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6

제2장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공동협력생산) 27

제1절 타임뱅크의 등장배경 27

제2절 신사회적 문제와 코프러덕션 33

제3절 타임뱅크 이론적 모델과 접근방법 47

제4절 시사점 50

제3장 외국의 타임뱅크 운영사례 53

제1절 개요 53

제2절 미국의 사례조사 55

제3절 영국의 사례조사 ····· 74

제4절 시사점 ····· 89

제4장 구미지역 타임뱅크 운영사례 및 FGI 분석결과 ·· 93

제1절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운영사례 ····· 93

제2절 현장전문가 및 참여자 FGI 분석결과 ····· 113

제3절 시사점 ····· 163

제5장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 167

제1절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 167

제2절 요약 및 정책제언 ····· 193

▣ 참고문헌 ····· 205

【 표 목 차 】

표 1. 돈의 외부비용 개선 ····· 32
표 2. 타임뱅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의 비교분석 ····· 36
표 3. 미국 내 타임뱅크 사례 ····· 56
표 4. 영국 내 타임뱅크 사례 ····· 76
표 5. 노소사랑방 프로그램 내용 ····· 100
표 6. 섬기는 사랑마을 프로그램 내용 ····· 103
표 7. 나눔가게 프로그램 내용 ····· 105
표 8. 이음장터 프로그램 내용 ····· 107
표 9. 아리랑미용실 프로그램 내용 ····· 109
표 10. 공동체부엌 프로그램 내용 ····· 110
표 11.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참여내역 ····· 121
표 12.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참여내역 ····· 122
표 13.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내용 ····· 123
표 14.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내용 ····· 124
표 15.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분석내용 ····· 125
표 16.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분석내용 ····· 150
표 17.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운영내역 ····· 164

【 그림목차 】

그림 1. 타임뱅크의 가치 ····· 21
그림 2. 타임뱅크의 운동 ····· 21
그림 3. 연구수행체계도 ····· 23
그림 4. 타임뱅크의 원리 ····· 25
그림 5. 코프러덕션의 실례 ····· 40
그림 6. 코프러덕션의 중심가치 ····· 44
그림 7. 타임뱅크의 운영모델 ····· 48
그림 8. 미국 타임뱅크 사례 소재지 ····· 55
그림 9. 데인카운티 타임뱅크 사무실 ····· 59
그림 10. 타임뱅크 이동지원 ····· 60
그림 11. 타임뱅크 청소년 법정 ····· 60
그림 12. 데인카운티 타임뱅크 청소년 법정 추진방향 ····· 62
그림 13. 크루키드 리버 타이뱅크 조직도 ····· 65
그림 14. 켄트 타임뱅크 행사 포스터 ····· 66
그림 15. 아치케어 타임뱅크 교육자료 ····· 69
그림 16. 아치케어 타임뱅크 활동 영상 ····· 70
그림 17. 아치케어 회원 활동 ····· 70
그림 18. 타임뱅크 USA 개발 자료 ····· 71
그림 19. 타임뱅크 USA 공개 강의 ····· 73
그림 20. 타임뱅크 USA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 ····· 73
그림 21. 러시그린 타임뱅크 소재지 및 재능나눔 행사 포스터 ····· 78
그림 22. 와일드 캣 주말자연체험 프로그램 ····· 79
그림 23. 러쉬그린 타임뱅크 푸드 사이클 ····· 80
그림 24. 스파이스 타임뱅크 모델 ····· 83
그림 25. 스파이스 타임뱅크 연례 평가 보고서 ····· 84
그림 26. 스파이스 공공주택 임차인 활동의 날 ····· 85

그림 27. Cuppas 주민전용 카페 ····· 86
그림 28. 타임뱅킹 UK 홍보자료 ····· 87
그림 29. 사랑고리(타임뱅크)의 순환도 ····· 95
그림 30. 사랑고리 발행 화폐 ····· 95
그림 31.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운영체계도 ····· 96
그림 32. 노소사랑방 추진체계 ····· 98
그림 33. 노소사랑방 추진전략 ····· 99
그림 34. 노소사랑방 활동사진 ····· 101
그림 35. 섬기는 사랑마을 추진체계 ····· 103
그림 36. 맛사랑 활동사진 ····· 104
그림 37. 나눔가게 추진체계 ····· 106
그림 38. 나눔가게 활동사진 ····· 106
그림 39. 이음장터 추진체계 ····· 107
그림 40. 이음장터 활동사진 ····· 108
그림 41. 아리랑미용실 추진체계 ····· 109
그림 42. 아리랑미용실 활동사진 ····· 109
그림 43. 공동체부엌 추진체계 ····· 110
그림 44. 공동체부엌 활동사진 ····· 111
그림 45. 구미 사랑고리 작동 범위 ····· 116
그림 46. 타임뱅크의 목적과 패러다임 전환 ····· 168
그림 47. 지역사회 기반형 운영모델 ····· 174
그림 48. 혼합연계형 운영모델 ····· 177
그림 49. 복지사업 결합형 운영모델 ····· 179
그림 50. 사회적 기업 결합형 운영모델 ····· 182
그림 51. 자원봉사 결합형 운영모델 ····· 185
그림 52. 사회서비스 접속형 운영모델 ····· 188
그림 53. 위치기반형 운영모델 ····· 191

【 요 약 】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에드가 칸이 주장하는 타임뱅크는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사람의 1시간 봉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그 봉사를 기록/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임.

○ 타임뱅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은 코프러덕션(Co - Production, 공동협력생산)이며, 이는 복지의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일방적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복지의 수혜자 역시 복지의 공급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복지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 생산-분배-소비 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역할이 필요함. 서비스 이용자를 단순히 서비스 소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의 생산자로 역할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한다는 의미임.

○ 타임뱅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적극 참여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타임뱅크 운영의 우수사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타임뱅크 운영에 있어서의 정책적 방안 등을 모색하였음.

□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 타임뱅크 설립자인 에드가 칸 저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NO more Throw-Away People) 등의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타임뱅크의 동향 및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였음.

○ 사례연구

◇ 미국과 영국의 타임뱅크 운영 사례조사

- 현재 약 34개 국가에서 타임뱅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40개 주에서 300개 정도, 영국 전역에서 300개 정도의 타임뱅크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 및 영국의 우수 타임뱅크 운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모색하였음.

◇ 국내 타임뱅크 운영 사례조사

- 국내 유일하게 구미시니어클럽에서 2004년부터 구미사랑고리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 현장실무자 및 참여자 FGI 실시

◇ 타임뱅크 관련 현장전문가 및 참여자 FGI 실시하였음.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타임뱅크의 운영모델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복지 실천방법으로써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복지실천방법의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주민간의 호혜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변화 및 이웃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실천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제2장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공동협력생산)

□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

○ 타임뱅크 운동은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시간을 기준으로 재설정 함. 타인을 돕는데 투자한 시간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체계를 갖춘 것이 타임뱅크 운동임.

○ 타임뱅크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호 소통하는 것을 전제로 '코프러덕션(co - production)' 을 핵심 가치로 추구함. 코프러덕션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함.

□ 타임뱅크의 운영 모델

○ 타임뱅크는 개인이 모인 소그룹이나 가족, 친구 사이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며, 크게는 지역단체나 기관, 공공단체, 지방정부까지 운영할 수 있는 모델임.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 복지서비스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되고 전달되는 중앙 집중방식의 체계 내에서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모델을 택하는가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임.

○ 기존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전달체계가 각각 하나의 특수목적교환을 위한 타임뱅크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음. 특수목적교환을 하는 타임뱅크는 지역사회중심교환과도 교차거래가 가능하도록 연계될 수도 있음.

○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영국의 예를 든다면, 지방정부가 타임뱅크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저소득가정, 소외된 독거노인 문제해결을 도모함. 여기에 가입하는 회원은 지역 일반주민뿐 아니라 지역사업체 · 영화관 · 박물관 · 스포츠센터 등도 단체회원으로 가입함. 타임뱅크의 운영모델은 단순하지만 그 적용방식은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조합 · 변형될 수 있음.

○ 타임뱅크 모델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과 현장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연구를 지속해온 기관이나 인력풀을 포함된 전문가팀을 상시 활용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시범사업에 착수하고자 할 시에는 치밀한 운영기획은 물론, 운영인력 교육 및 운영과정 자문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팀과는 별도로,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전문 운영팀이 필요함.

제3장 외국의 타임뱅크 운영사례

□ 미국과 영국의 타임뱅크 운영에 대한 시사점

○ 첫째, 타임뱅크가 설립된 배경에는 지역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개인들이 있었다는 점. 데인카운티, 켄트, 러쉬그린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경제적 격차, 사회적 소외, 이웃의 고통,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것임.

○ 둘째,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특수한 경험이 기폭제가 될 수 있었음. 노인요양병원, 장애인기관, 종합복지관 등 그 기관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뉴욕의 아치케어 보건의료서비스는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유료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한 돌봄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안목이 성공요인에 중대하게 작용함. 영국 러쉬그린 진료소가 장기 외래환자들과 함께 타임뱅크를 파일럿한 덕분에 현재 영국 보건의료서비스에 타임뱅크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씨앗이 만들어지게 됨.

○ 셋째, 타임뱅크 운영에 드는 비용의 효율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하겠음. 뉴욕의 아치케어 타임뱅크와 영국의 스파이스를 제외한다면, 타임뱅크의 평균 정규직원 수는 1.5인임. 단독 사무소를 가진 경우도 소수임. 타임뱅킹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과 기여를 인정하자는 운동이고, 소외와 차별을 완화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므로 기존의 프로그램 예산에 코디네이팅 비용을 추가하고 코디네이

터의 사무공간을 추가하는 정도로도 시작 가능한 것임.

○ 넷째, 타임뱅크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었던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코프러덕션을 원칙으로 함. 미국 데인카운티와 켄트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회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자질을 갖춘 코디네이터 발굴과 동시에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뿐 아니라, 잠재력을 갖춘 젊은 리더를 발굴하여 코디네이터로 육성해 나가는 시스템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임.

○ 다섯째, 미국과 영국에서 타임뱅크의 효과적 보급 및 운영에는 싱크탱크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수적임. 타임뱅크가 그 중심가치와 코프러덕션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지역밀착형 운동으로 존재하려면, 지속적인 사례연구와 자문이 필요함.

제4장 구미지역 타임뱅크 운영사례 및 FGI 분석결과

□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사례

○ 노인 일자리사업에 타임뱅크를 적용함으로써 만성적 수혜자에서 기여하는 봉사자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과 타임뱅크의 연계를 통하여 노노케어 일자리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돌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고 있음.

○ 사랑고리 교환을 통해 아동들은 노인들의 돌봄을 통해 가족 이외에 정서적 및 학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구미사랑고리 은행, 노인사회활동 지원기관인 구미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 새로배움터 등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타임뱅크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노노케어 사랑고리공동체 프로그램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욕구충족,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이용자가 노인복지사업의 적극적인 협력자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노인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음.

□ FGI 분석결과

○ 타임뱅크 운영의 기본 요소

◇ 타임뱅크 운영 가치 및 원리는 참여자를 포함하여 운영 인력을 포함한 조직구성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실무자들과 참여자들이 타임뱅크에 대한 운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운영과 실천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타임뱅크 참여자의 적용 범위

◇ 참여자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가치를 고취시키며 이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요구되며, 함께 단계적인 참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호혜 가치를 지역에 확산하고 교환 자원의 규모와 다양성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타임뱅크의 코디네이터

◇ 욕구를 발굴하고 상호 돌봄 체계의 선순환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이 사례에서는 기존 직원들에게 부가됨으로써 별도의 인건비 조달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나 도입 초반,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 요인이었음.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고 전담인력의 존재와 그들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인건비 조달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제5장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 경상북도 타임뱅크 핵심목적, 원칙 및 활성화 방안

○ 핵심목적

◇ 타임뱅크는 '관계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 에 주목하며, 신뢰와 사랑, 연대의식에 기반한(풍부한 사회적자본의 코어경제(core economy)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적인 공동운명체(상호연대감)' 로서의 자각, 그리고 평등적 -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참여(civic engagement)와 호

혜(reciprocity) 실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가며 만들어나가는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의 민주적인 과정적(process) 접근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도모하며,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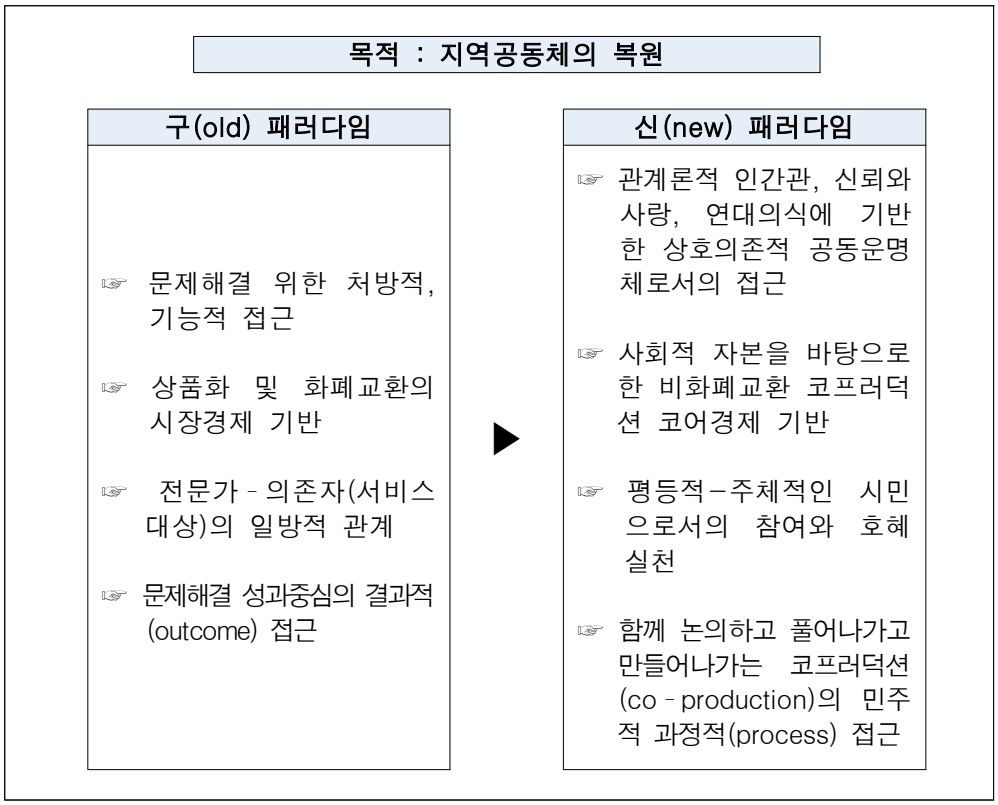


그림 1. 타임뱅크의 목적과 패러다임 전환

○ 핵심원칙

◇ 첫째, 코프러덕션(co-production)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가며 방안을 마련해야함. 둘째,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 관계는 평등해야함. 셋째, 민주적인 운영으로 공동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함께 규정하고, 해법도 함께 모색해야함. 결과보다는 과정(precess) 자체를 중시함. 넷째, 타임뱅크 운영모델의 정형적인 표준과 규격은 없으며, 주어진 상황과 맥락의 역동적인 창의적 산물임.

○ 타임뱅크 활성화 전략

◇ 첫째, 타임뱅크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둘째, 타임뱅크는 신뢰와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진정한 전인적 만남' 을 자주 갖는 것임. 셋째, 타임뱅크의 가치를 확산하는 구심점과 추진체의 역할이 중요함. 넷째, 타임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역할이 중요함. 다섯째, 타임뱅크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라는 잇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 지역사회 기반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 이 모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또는 단체가 모여 타임뱅크를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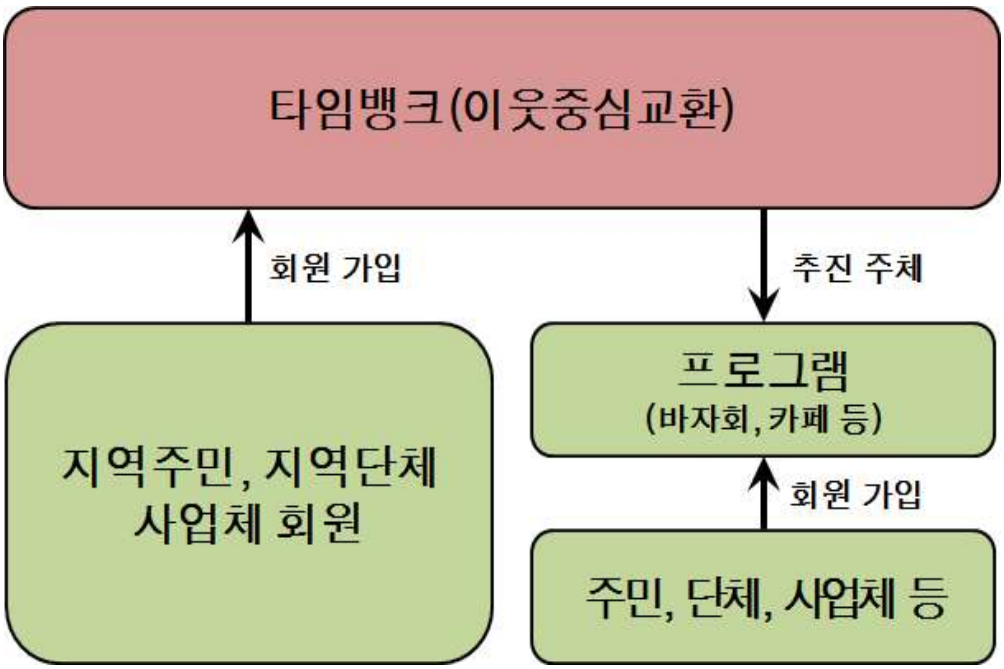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사회 기반형 운영모델

○ 혼합연계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 혼합연계형은 타임뱅크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지역사회 기반형과 동일하지만 지역기반형 타임뱅크가 추구하는 이웃 간 서비스 교환을 통한 친목과 공동체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의 특정 이슈를 겨냥한 특수목적교환을 혼합한 타임뱅크 운영모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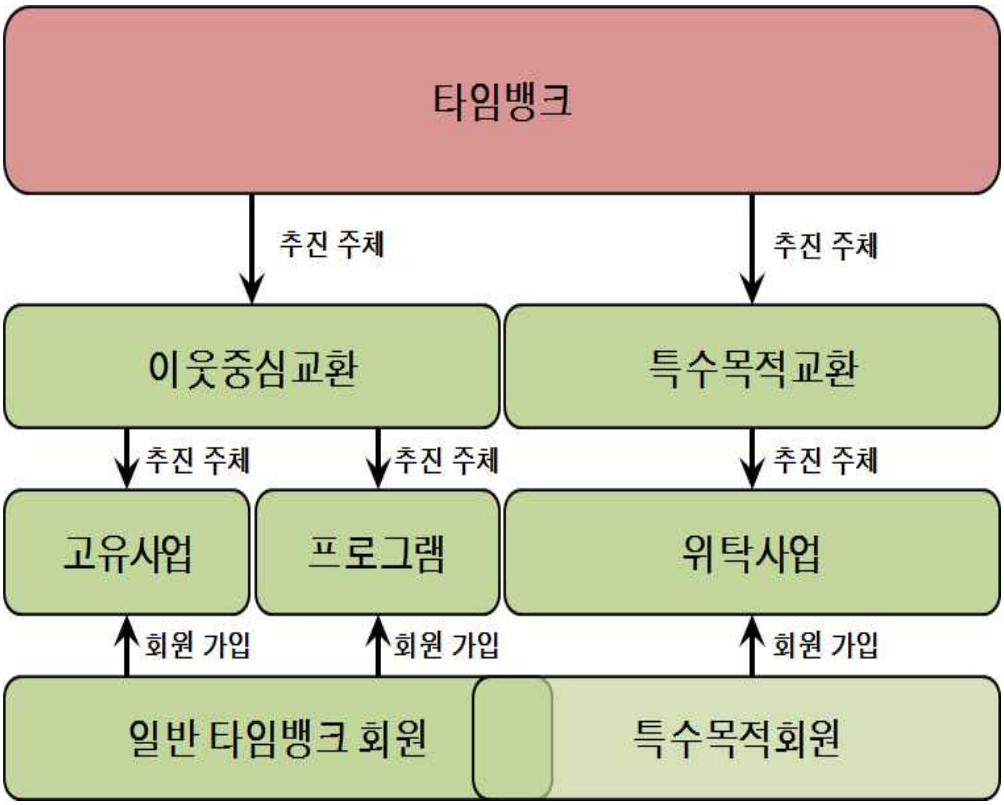


그림 3. 혼합연계형 운영모델

○ 복지사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 복지사업 결합형은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복지관이나 복지재단이 모기관이 되어 그 사업의 하나로 타임뱅크를 운영할 때에 유용하며, 기존의 프로그램이 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에 타임뱅크를 연계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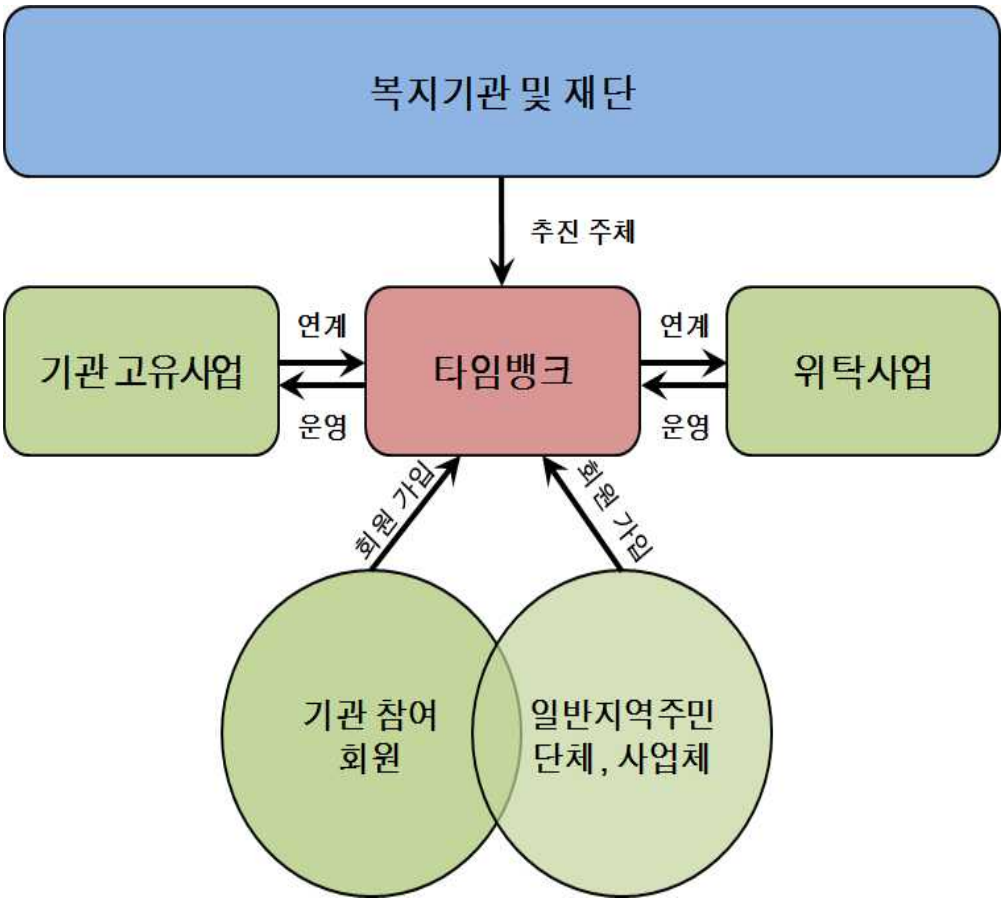


그림 4. 복지사업 결합형 운영모델

○ 사회적 기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 이 모델은 사회적 기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의 영업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게 하는 도구로 타임뱅크를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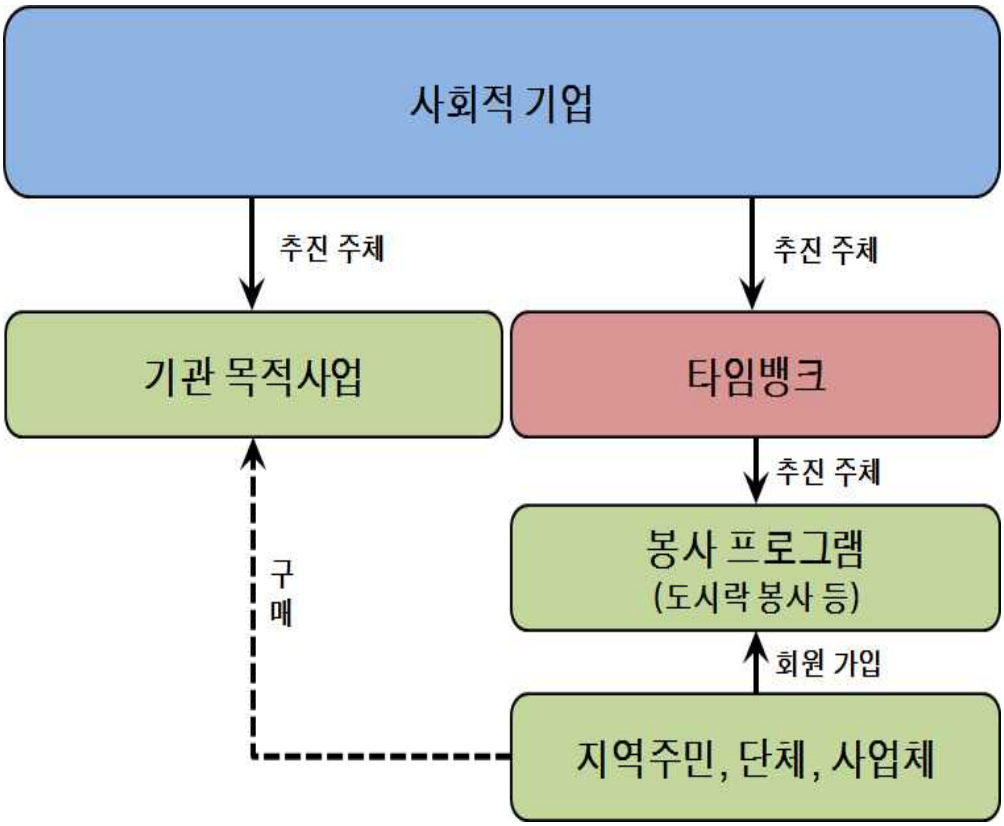


그림 5. 사회적 기업 결합형 운영모델

○ 자원봉사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 이 모델은 봉사를 통해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사회정의와 지역사회 연대를 복원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원래의 가치회복을 우선과제로 둔다면 타임뱅크의 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타임뱅크를 통해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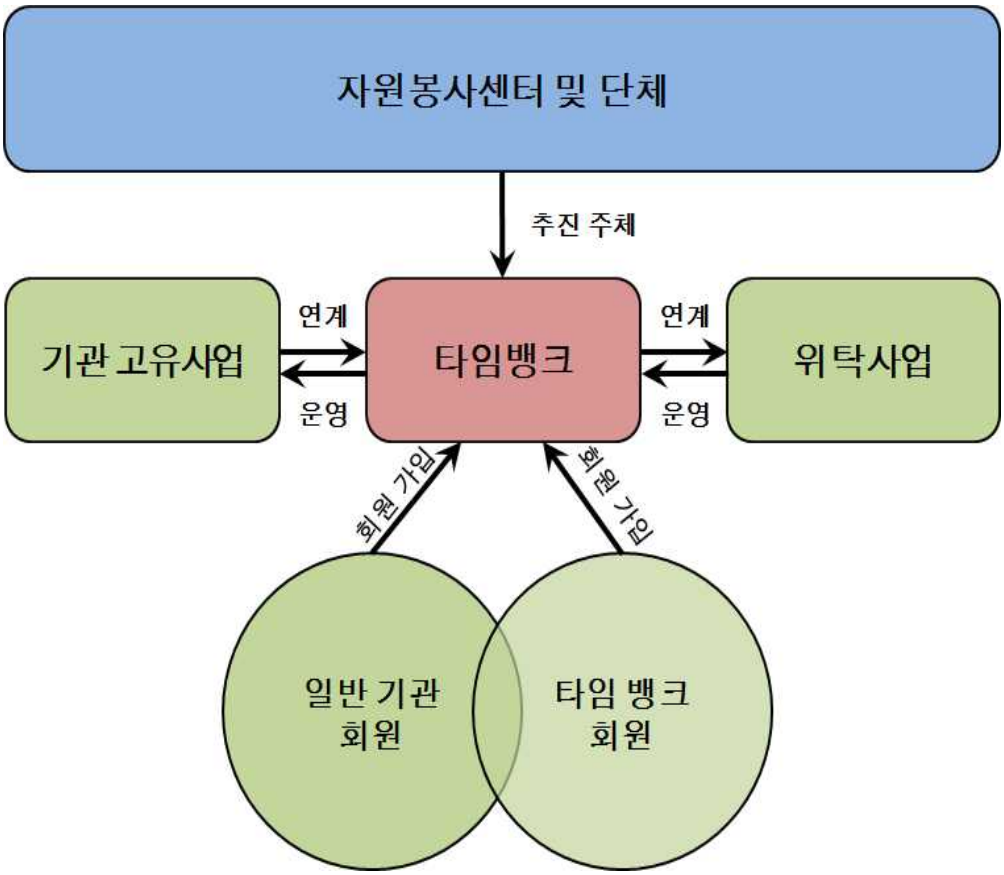


그림 6. 자원봉사 결합형 운영모델

○ 사회서비스 접속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 이 모델은 타임뱅크 회원모집, 관리, 모니터링 업무를 타임뱅크가 하나의 기관,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위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여기에서 보여주는 사회서비스 접속형은 그런 점에서 타 모델과는 상이한 모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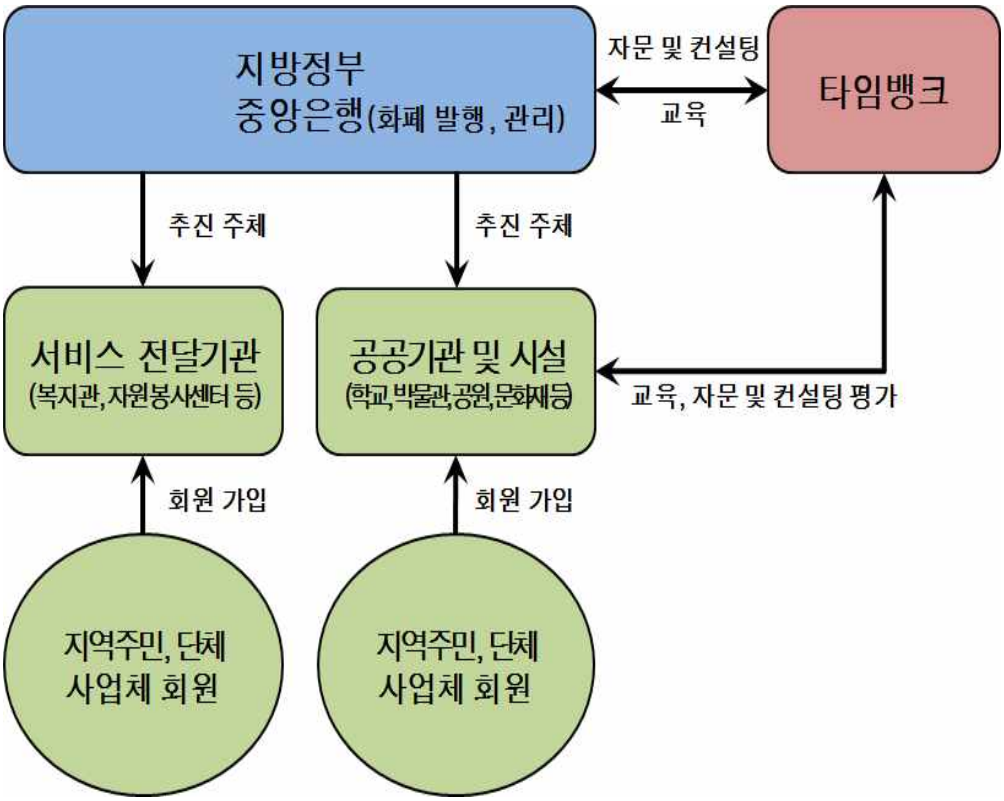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서비스 접속형 운영모델

○ 위치기반형 타임뱅크 모델

◇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타임뱅크 모델임. 국내에도 이미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유시한 기술이 활용되어 개발된 유사 앱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타임뱅크에 활용하려면 그 원리와 중심 가치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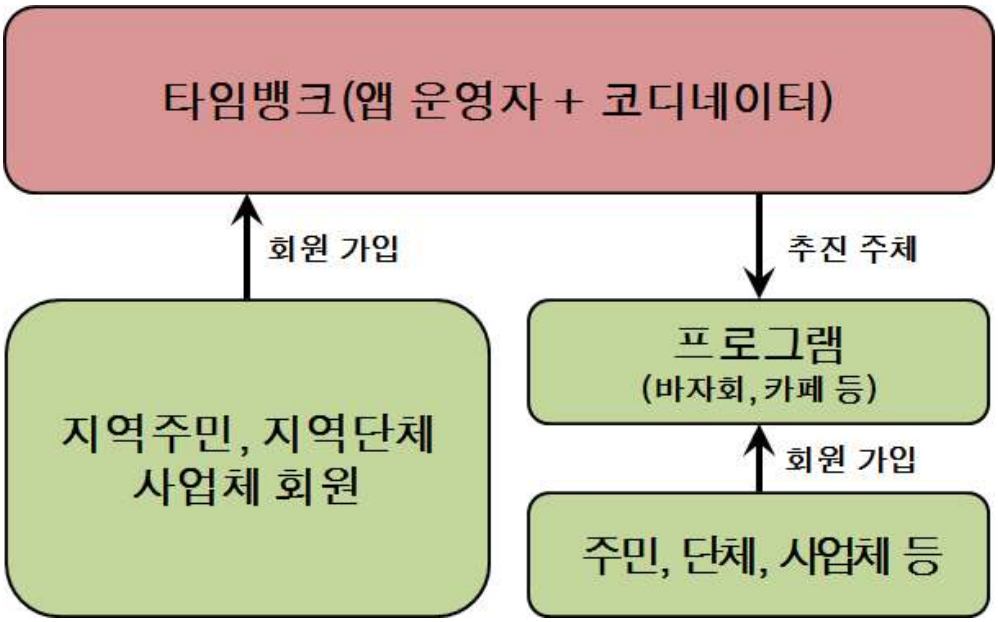


그림 8. 위치기반형 운영모델

□ 정책제언

○ 타임뱅크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 타임뱅크 운동은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가 승패를 좌우되므로 타임뱅크 운동의 핵심역량인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대학이나 평생학습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함.

○ 대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지방정부는 타임뱅크 운동의 성격과 취지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일반 대중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예, 할매할배의 날)과 맞물릴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봄.

○ '할매할배의 날' 과 타임뱅크의 연계

◇ 시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된 노인세대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타임뱅크는, 세대간 통합을 위해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

산으로 이끌어 내려는 '할매할배의 날'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 타임뱅크는 노인이 일방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존중의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참여하기를 강조하고 있고, 주체적인 지역구성원으로 생활할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부모세대의 적극성을 더 요청한다고 하겠음. 이런 측면에서 타임뱅크는 '할매할배의 날' 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 지정

◇ 경상북도는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및 한국의 복지환경에 맞게 이론적 토양을 수립하고 제시 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지정해야함. 경북도 관할 도립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싱크탱크로 지정하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경북에서 자생한 사랑고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 및 평가하여 타임뱅크 실천이 질적으로 관리 및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해야함.

○ 노인일자리사업 보완제로 타임뱅크 인정

◇ 경북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과 지역사회간의 책임있는 관계형성 및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노인의 자발적 참여 향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타임뱅크 연계가 중요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타임뱅크 연계를 권장하여야 함.

○ 사회혁신투자(Social Impact Bond) 시범추진

◇ 타임뱅크는 수혜자의 참여를 통한 코프러덕션을 핵심가치로 이미 그 실천적 가치와 효과를 해외와 구미사례에서 입증하였으며, 그 교환기록 시스템은 정량적·정성적 성과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수집할 기제이고, 사회문제예방의 효과 또한 이미 입증되었음. 그러므로 경상북도는 타임뱅크사업을 사회혁신투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인 민·관 협력이 이루어내는 책임성있는 복지예산집행의 모범사례를 개발하였으면 함.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공동협력생산)

제3장 외국의 타임뱅크 운영사례

제4장 구미지역 타임뱅크 운영사례 및 FGI 분석결과

제5장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1] 5.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5). 또한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는 22조 2,361억원으로 2008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620천원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 이처럼 인구변동과 노인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정착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도 위기에 노출되어 성장을 통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상정해온 4인 가족 체계와 완전고용은 이미 1인가구의 등장과 비정규직의 양산 및 고실업률이라는 복병에 걸려 사회보장제도의 추진의 어려움과 사회보장시스템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현장은 수십년 간에 걸쳐 엄청난 복지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보편복지의 요구에 따라 복지 재정만을 더 요구할 따름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관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의 관계망 형성에 주력해야 할 복지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안겨 정작 관계망 형성이라는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발생한 대구희망원사건은 특정 종교 복지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한국사회의 복지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어 주었다. 시장화된 복지전달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문제

1) 생산가능 인구는 15~64세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간주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에 의존할수록 서비스 이용자는 수동적 존재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에드가 칸[2]의 타임뱅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에드가 칸이 주장하는 타임뱅크는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사람의 1시간 봉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그 봉사를 기록/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타임뱅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은 코프러덕션(Co-Production, 공동협력생산)이며, 이는 복지의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일방적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복지의 수혜자 역시 복지의 공급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복지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복지의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코프러덕션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섯가지의 중심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칸 박사는 주장하고 있다.

타임뱅크의 운영에 있어서의 중심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시각이다. 즉 쓸모없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자산이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즉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보존하며 이웃의 안전과 활력을 도모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등의 활동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호혜성의 강조이다. 시혜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간에 서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자본의 재발견이다. 즉 상호신뢰, 호혜 및 시민참여로 생성되는 사회적 관계망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존중(respect)이다. 개인의 표현과 선택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 핵심이다. 사람에 대한

---

2) '에드가 칸' 은 타임뱅크 설립자임. 에드가 칸 (Edgar Cahn) 박사(1935~)는 예일법대 졸업, 미국내 소수민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활동을 오래하였으며 케네디 정부의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 연설문 작가로도 활동. 인권 변호사들도 로스쿨에서 법률서비스 실습을 통해 사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로스쿨, 안디옥법대 설립. 이후 워싱톤 DC의 UDC 법대(David A. Clark School of Law)에 재직. **현재 미국 타임뱅크(Timebanks USA)를 운영하며 영국의 데이비드 보일(David Boyle)등과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타임뱅크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우리의 바램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현 상태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타임뱅크 운영의 가치실현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그림 1. 타임뱅크의 가치

타임뱅크 운동은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시간을 기준으로 재설정 한다. 타인을 돕는데 투자한 시간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체계를 갖춘 것이 타임뱅크 운동이다. 시간을 중심으로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통해 시장 경제의 팽창을 억제하고 비시장 경제를 재건하며, 두 경제 사이에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세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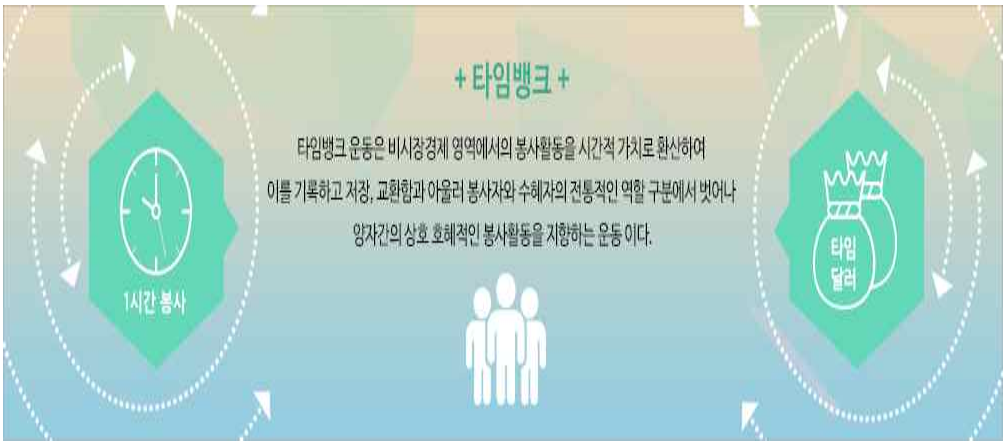


그림 2. 타임뱅크의 운동

타임뱅크는 비시장경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시간적 가치로 환산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봉사자와의 수혜자 간의 상호 호혜적인 봉사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 동안 시장이 평가절하 해버린 자녀양육, 노인 보호, 학습, 이웃돌보기, 시민참여 등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을 건강한 아이를 기르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만들고,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드는 노력을 포함하도록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

타임뱅크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호 소통하는 것을 전제로 코프러덕션(co - production)을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 에드가 칸은 왜, 어떻게 타임달러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역동을 그렇게 심오하게 바꿀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코프러덕션' 이라고 일컬었다. 코프러덕션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 생산 - 분배 - 소비 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비스 이용자를 단순히 서비스 소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의 생산자로 역할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임뱅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적극 참여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임뱅크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적극저인 참여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사회적 지원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의 타임뱅크 운영의 우수사례, 국내 구미지역 타임뱅크 운영사례 및 현장전문가의 의견 등을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차원의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타임뱅크 운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수행체계도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그림 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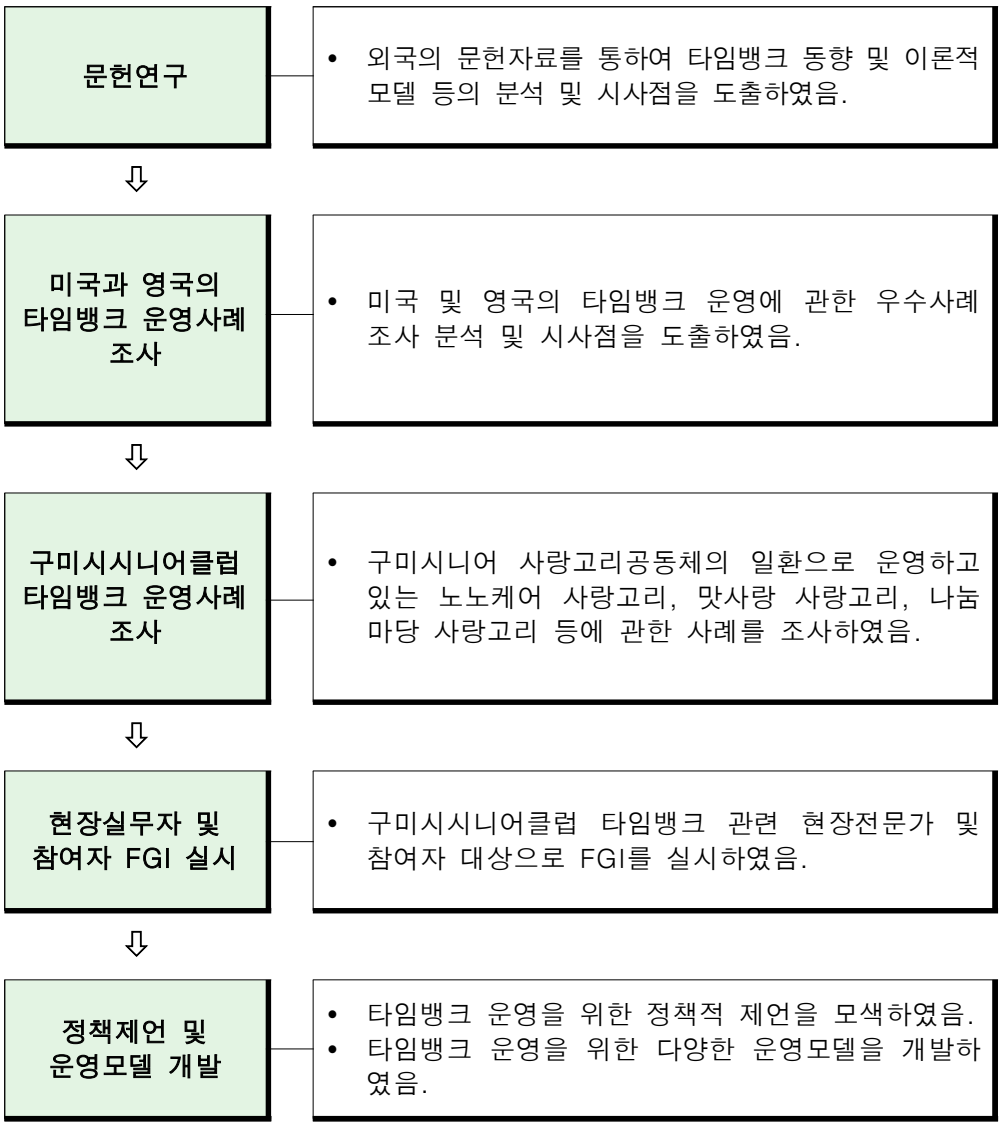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수행체계도

2) 연구내용 및 방법

(1) 문헌연구

타임뱅크 설립자인 에드가 칸 저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NO more Throw-Away People)는 2004년 1판이 출판되었다(구미요한센터 옮김). 최근 2016년 9월 개정판의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타임뱅크의 동향 및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였다.

(2) 사례연구

□ 미국과 영국의 타임뱅크 운영 사례조사

○ 현재 약 34개 국가에서 타임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40개 주에서 300개 정도, 영국 전역에서 300개 정도의 타임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의 우수 타임뱅크 운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모색하였다.

□ 국내 타임뱅크 운영 사례조사

○ 국내 유일 운영지역 : 구미 시니어클럽의 사랑고리공동체(타임뱅크)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타임뱅크를 도입한 사례는 2004년 시작된 구미 사랑고리은행이 있다. 자원봉사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회원들이 봉사하는 만큼 사랑고리라는 화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사랑고리란 미국에서 1시간 봉사하면 1타임달러를 주는 비시장 경제권 화폐를 만든 것처럼, 1시간 봉사를 1고리로 인정해 5~6천원 상당의 가치(최저임금수준)를 주고 이를 적립해 당사자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돈독

해지는 것이 은행의 이자이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은행의 성장인 것이다.

○ 구미 사랑고리공동체(타임뱅크) 프로그램 운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모색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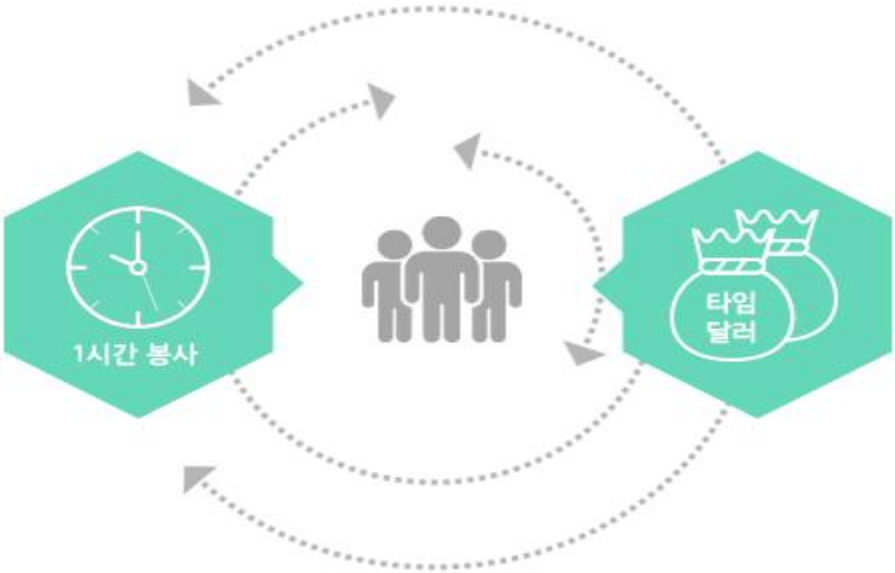


그림 4. 타임뱅크의 원리

(3) 현장실무자 및 참여자 FGI 실시

○ 타임뱅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및 참여자 FGI 실시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아래내용과 같다.

첫째, 타임뱅크의 운영모델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복지 실천방법으로써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복지실천방법의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간의 호혜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변화 및 이웃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실천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공동협력생산)

제1절 타임뱅크의 등장배경

1. 주요개념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이든, 유치원생이 제공하는 것이든, 1시간 봉사는 동등하게 1타임 크레딧이라는 공식에 따라, 타인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한 시간을 저축하였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타임뱅킹(timebanking)' 이라 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80년대 미국의 에드거 칸(Edgar Cahn) 박사였다.

1980년, 칸 박사가 타임뱅킹이란 용어를 보급하기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고안해 낸 '타임달러(Time Dollar)'를 저축하는 방식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타임달러란 용어는 미국사회에 국한된 대안적인 화폐를 지칭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곧이어 타임달러와 유사한 취지와 목적으로 개발된 화폐들이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도 개발되어왔음이 확인되었고, 특별히 타임달러가 영국으로 도입되면서 그 용어는 변형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타임뱅크'로 도입되었으며, 곧 '타임달러'는 '타임크레딧(time credit)'라는 더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되었다. 그 용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타임뱅킹(timebanking) : 봉사시간을 화폐가치로 저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봉사시간 저축 방식
▶ 타임뱅크(time bank) : 타임뱅킹 실행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
▶ 타임달러(time dollar) : 미국에서 봉사시간을 환산하는 화폐단위
▶ 타임크레딧(time credit) : 지역과 무관하게 봉사시간을 환산하는 화폐단위

2. 타임뱅크 발생의 시대적 배경

에드거 칸 박사가 타임뱅크를 시작한 배경은 칸 박사의 개인적 경험과 1980년대 미국의 시대적 상황,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칸 박사는 변호사인 부인과 함께 미국 최초의 공익변호사양성 법대인 안디옥 법대(Antioch Law School)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평생을 사회정의에 몸 담아온 인권변호사 칸박사는 1980년, 44세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된다. 심장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기를 지내던 칸 박사는 유능한 의사와 간호사, 뛰어난 의료기술, 가족과 친구, 자원봉사자의 보호와 훌륭한 의술을 갖춘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환경을 즐길 수가 없었고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도움과 보호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환자의 자격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은 완전히 수동적인 수혜자일 뿐이었으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쓸모없는 존재로 시장경제로부터 밀려난 사회적 소외자와 경제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였지만, 실제로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보는 첫 경험이었다. 그 경험은 후에 타임달러를 만들게 되는 촉발요인이 된다. 의료나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서비스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반드시 수혜자의 적극적 참여가 매칭 되어야만 서비스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수혜자의 참여는 왜 보상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버려진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할 방법을 끈질기게 모색하였고, 마침내 타임달러를 만들게 되었다. 타임달러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소외된 수혜자들을 서비스전달체계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늘어만 가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으며, 심각해지는 고령화, 고실업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당시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상황 또한 복지정책과 맞물려 세계적인 복

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복지예산 삭감을 선언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던 복지사업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운영하던 노인요양병원이 민영화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노인들은 열악해진 서비스를 견뎌 내거나 집으로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복지예산 축소는 정부의 복지예산에 의존해오던 복지단체들에게도 위협이 되었다. 줄어든 기금은 지역사회에 제공하던 복지단체들의 서비스를 끊게 만들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는 전문서비스 제공자를 대체할 수 없고, 안정적으로 예측하거나 장기적 공급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게도 도전이었다. 변화된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 복지모델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칸 박사는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공익을 위한 기여의 욕구가 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용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보편적 인간의 본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인 타임뱅킹 기획에 착수한다. 병원방문을 위한 차량운전, 아이 숙제 도와주기, 병원입원 기간 동안 아이 식사 챙겨주기, 애완견 산책시키기 등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다. 시간과 의향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혹은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있어서 이웃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갚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시간을 봉사하면 1타임달러를 번다. 그 타임달러로 1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복지비 삭감으로 인한 일상의 많은 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예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이 새로운 교환 시스템은 개인과 전체 지역사회가 더 자립하게 만들 것이며, 정책기류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사실상 무임승차자들로 낙인찍힌 개인들의 역량을 발굴하고 활용하게 될 것이

다.”(『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No More Throw-Away People)』, 에드거 칸, 2004, p.34)

화폐를 은행에 저축하듯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시간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에 그 시간을 찾아 쓰려면 회원 간에 교환된 거래를 기록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봉사자를 연결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 주체는 타임뱅크가 된다. 타임뱅크에 저축된 시간은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지만 시장의 화폐와는 다른 새로운 화폐이다. 그 새로운 화폐를 ‘타임달러’라고 불렀으며, 호혜적 봉사교환을 통해 타임달러를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타임뱅킹이라고 한다. 타임뱅크 사업이 제안되던 초기에는 찬반양론이 엇갈렸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도 미주리주와 플로리다주의 봉사점수 법안 통과, 플로리다주립대 고령화연구소의 지원에 힘입어 타임뱅킹은 미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발견하게 된다.

3. 타임뱅크의 경쟁력

타임뱅킹이 안정적으로 미국 땅에 정착하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많았다. ‘타임달러’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계기는 칸 박사가 스탠포드법대의 교수들에게 타임뱅킹 아이디어를 발표하였을 때에 받은 질문이었다. 법대 교수들은 “진짜 돈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주장하는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쓸모없는 사람은 없다(No More Throw-Away People)』, 38쪽)라는 질문이 칸 박사에게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질문을 할 수 없게 된 칸 박사는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런던정경대학에서의 연구를 통해 스탠포드법대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타임달러를 비용대비 이익의 관점에서 옹호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도 아닌 그 ‘우스운’ 돈을 벌겠다고 1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칸 박사는 금전적 이익과는 다른 종류의 이익을 타임달러가 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자긍심도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타임달러가 경쟁력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운 시간을 저축하여, 그 시간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만족감과 자긍심이라는 심리적 보상이 타임달러에는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칸 박사가 알게 된 그 답은 아래 표에서 잘 설명된다.

<표 2>는 시장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속성과 그 속성으로 인한 외부비용[3]을 분석하고 있으며, 타임뱅크를 통해 대안적인 화폐(여기에서는 타임달러)가 발행될 경우에 그 외부비용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칸 박사는 타임달러의 "해독작용"이라 지칭한다. 화폐의 외부비용은 만능의 힘을 소유한 자본이 보상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취약층을 더욱 소외시킨다. 개인적 이유나 사회적 시행착오로 누구든 실패를 겪게 될 경우에 지원과 돌봄을 제공할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지원망을 화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탈해간다. 여기에서 칸 박사는 코어경제(Core Economy)영역을 강조한다. 바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는 시장경제만큼,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경제시스템으로 강조되기 시작한다. 타임달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해답 이상의 확신을 얻고 귀국한 칸 박사는, 타임뱅크를 미국 전역에 실험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3) 외부비용(external cost)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소비가 제3의 영역에 비용을 초래할 경우를 지칭하는 것,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통근시간 연장, 사고사망률 증가,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소음 등으로 볼 수 있음. http://www.economicshelp.org/blog/glossary/external-costs/

표 1. 돈의 외부비용 개선[4)]

돈의 속성	돈의 문제 혹은 외부비용	타임달러의 속성
만능	총 · 마약 구매, 뇌물 수수에도 사용	제한된 용도
매우 유동적	이웃, 지역사회, 국경을 쉽게 떠남.	지역에 정착됨.
가격 책정 : 시간의 가치는 희귀성과 기술에 근거해 달라진다.	돌봄, 사랑, 시민 참여 과소평가 : 시장 가격은 시장 가치를 구현. 가격이 붙은 것은 무엇이든 판매가능	모든 시간은 평등하게 평가 : 보상에는 심리적 보상도 포함.
지폐	흔적 없이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기에 기억되지 않음. 돈으로 대체된 신뢰는 위축됨.	신뢰가 구축되므로 관계가 기억됨. 현재와 미래 긴밀히 연관됨.
보수가 노동력을 규정	직장이 없으면 기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므로 아동, 노인, 장애인은 소외시킴.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타임달러 생성
이자 생성	이자와 환율은 돈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돈의 상품가치는 거래 비용을 상승시키고 파생상품에 대한 중개 거래와 투자를 보상해줌.	이자발생 또는 상품화로 인한 다른 거래를 유발 없음.
부채 = 합법적 집행가능성	피해를 변상하는 한 약속을 파기 허용하며, 법적의무는 명예나 신뢰가 아니라, 집행 가능성과 피해액에 관련됨. 법을 통한 개선비용 높음.	법적의무보다 안전한 도덕적 의무, 약속이 보증수표임.
세금 추징 가능	사회문제 해결 공공 지출 제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시민사회 마비	보살핌 · 시민참여활동 보상, 세금 감면, 무제한 발행

4) 에드가 칸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2000, Washington DC, p.136.

제2절 신사회적 문제와 코프러덕션

1. 코프러덕션의 발견

타임달러를 통해 타임뱅크의 강점은 성공적으로 입증되었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돈만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적인 이익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몇몇 민간기금과 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수용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타임뱅크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타임뱅크가 미국 내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타임뱅크의 시범단계는 끝나고 있었다. 1994년 깅리치(Newt Gingrich) 혁명[5]과 함께 보수 세력이 전국적으로 득세하기 시작하였고, 빌 클린턴 정부의 예산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또다시 정부의 복지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했고, 비영리단체들은 모두 민간재단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민간재단의 기금관리자들은 타임달러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인이 더 빨리 양노원에 갈 것이라는 증거를 원했고, 더 시급한 사회문제(마약, 실직, 사회적 소외, 가난, 노숙자 등) 해결에 타임달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증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자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타임뱅크들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다른 한편, 예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차이에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칸 박사는 성공적인 타임뱅크의 열쇠가 되는 기본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이다.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이란 용어는 1970년대 후반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일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교수 팀의

5)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점검 투표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공화당은 빌 클린턴 정부의 세금정책과 예산지출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음. https://en.wikipedia.org/wiki/Republican_Revolution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연구팀은 시카고 지역의 범죄율 증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은 경찰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멀어질수록 시카고 경찰에게는 주민거주지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효과적인 경찰업무수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가 인정한 중요한 사실은 경찰서비스와 같은 공적 서비스는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오는 정보와 수혜자들의 참여가 전문적 서비스 제공자(이 경우에는 경찰)의 정보와 노력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시카고 경찰의 사례에서, 범죄율 감소에 기여한 주요인은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얻게 된 비공식적인 지역정보와 주민들과 쌓아간 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경찰이 필요한 만큼 경찰에게도 주민들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경찰과 주민간의 코프러덕션을 통해서만 공적서비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가 인정하게 되었다.

2. 한국의 사회문제와 코프러덕션

현재 한국사회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감지되고 있는 여러 국면과 경고는 코프러덕션의 절대적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예측해왔던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파는 부문별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 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충분한 생산가능인구와 적절 수준의 부양인구를 기준으로 구상되었던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럼에도, 변화하는 생태계

6)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임.' 연합뉴스 2016.10.31.

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제도를 기본으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별 제도차원에서 보면, 대상자의 확대, 급여수준의 개선 등 점진적 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개선된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는 복지국가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작동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하여 늘어만 가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만한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혁신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사회 사회복지시스템의 한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현 단계 사회복지 시스템은 관료제와 기관중심으로 구성되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사회적 문제, 특히 노인과 보육의 문제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역현장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담당자들은 과도한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정작 돌보아야 할 소외계층과의 소통 대신에 행정 업무에 파묻혀 있는 게 실상이다.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운동 또한 정부의 공적 자금에 의존하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그 순수성과 전문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행정기관의 보조 역할 수행에 투자하고 있다.

기존의 복지체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을 위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복지수급자들을 서비스 수혜자 역할에 한정하고 있는 바, 막대한 복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전통적 자원봉사 운동은 일방적인 봉사에 머물면서 봉사자의 지속적인 내적 동인을 이끌어내는데서 실패함으로써 단기적 이벤트에 머물고, 반면 봉사의 수혜자로 하여금 의존성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3/0200000000AKR20150313158200004.HTML

한편, 타임뱅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과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즉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의 특징이 다르고, 참여자 및 보상체계 등의 측면에서도 각기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2. 타임뱅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의 비교분석

구분	타임뱅크 활동	자원봉사 활동
추구하는 가치	☞ 코프러덕션(공동협력생산)을 통한 구조학적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의식 복원 운동 ☞ 사람과의 관계 맺기.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개인 - 개인 연계)역할이 개입됨.	☞ 자신의 지식과 재능 등을 이타심과 자발성 등의 정신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 운동
특징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도 재능을 개발하여 자산화 함. ☞ 봉사제공자와 수혜자는 수평적 관계(상호 호혜적 관계) ☞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형성 가능	☞ 결핍 등 도움이 필요로 대상에 초점(수혜자는 소극적인 대상)
참여자	☞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의 재능을 찾아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 예> 현재 참여자 70%정도가 취약계층	☞ 이타심과 자발성을 갖고 봉사활동을 함(일반시민, 학생 및 사회단체 등).
보상	☞ 서비스 수혜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여자로 전환	☞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마일리지제도, 할인 가맹점 혜택 - 물질적 보상)

미국과 영국에서 경험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사회복지시스템의 한계 극복에도 타임뱅크의 실천을 통한 코프러덕션 실현이 중대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진 내재적인

한계와 관련하여 최근 제안된 다양한 진단과 대안들은 공히 복지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간의 코프러덕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복지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관계형 복지' 7)8)는 서구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복지대안이다. 관계형 복지가 지적하고 있는 20세기 복지모델의 문제점은 바로 타임뱅킹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관계형 복지와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는 서비스의 사용자를 단순한 수혜자로만 취급하여 생기는 서비스의 질 관리 부재 및 수혜자의 의존성 문제에 착안하여, 타임뱅킹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사용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제공자가 되기를 격려하는 틀 안에서 전통적 수혜자의 의존성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는 민영공급방식으로 복지서비스가 떠맡겨지면서 전통적으로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역할을 맡아온 육아, 돌봄, 교육까지도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지게 되었다. 시장의 논리로 공급되는 복지서비스에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제공해주었던 '따뜻한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듯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전달되는 돌봄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따뜻한 돌봄은 코프러덕션이 추구하는 중심가치이기도 하다.

---

7) 임채원 "대구 희망원 사건을 사회서비스 혁신 기회로" 2016, 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8410

8) "관계형 사회복지"는 영국의 Hilary Cottam이 제안한 개념으로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현재 영국의 사회복지국가 모델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베버리지보고서 1945년 버전에 따른 "거래 형 사회복지(transactional welfare)"라 비판하며 "공유성의 공동체적 관계형(sharing, collective, relational)"으로 대체하기를 제안하면서 사용한 용어임. Hilary Cottam "Relational Welfare" http://www.participle.net/includes/downloader/MTg0NzMwNzI4NjZkMGQ1MTA4MzAxMGQyZGYzNmJjYjhvy_Bkw5J5tvpI8s7ajaLKNFZZa1R5Vm1Lam05Y2ZibHROWnE5SmFwQkx1dUV5bUM0OG9CTVh2YjNob0VRaytLNjFxS005bS9zMTFpdk41eUpzRisrMjI6VEcyeXVxRHFIZFFEaFE9PQ

3. 타임뱅크의 추진력 : 코프러덕션(공동협력생산)

타임뱅크 운영에서도 코프러덕션은 주요한 원리로 작용하였다. 1987~1990년 동안 전국적인 타임뱅크 실험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수많은 성공적인 타임뱅크 사례가 생겨났다. 예산이 중단되자 멈추어버린 타임뱅크 관련자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낸 장애물은 봉사수혜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공한 타임뱅크는 코프러덕션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코프러덕션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긴급한 현안 해결에 타임뱅크가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자가 있어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습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어도 약물 중독자 자신이 의사의 조언과 처방과 따르지 않는다면 교육자나 의사의 전문성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타임뱅크는 단순히 봉사시간을 보험처럼 저축하여 뒀다가, 후에 본인이 필요할 때에 봉사점수를 인출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고, 운영되었던 타임뱅크는 지원금이 고갈되면 더 이상 추진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전히 단순한 호의적, 일방적, 시혜적 자원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봉사를 받는 사람과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 간의 경계가 없이, 양자 간의 평등한 코프러덕션에 의해 서비스 교류가 일어나고 인적유대와 관계가 형성되고 있던 타임뱅크는 지속될 수 있었다.

4. 코프러덕션의 여러 가지 차원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간의 코프러덕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 기관과 개인 내담자 사이에, 기관과 기관 사이에도 코프러덕션은 작용한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보건소가 있다고 하자. 기관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보건소는 내담자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여야 치료의 효과를 유도

할 수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내담자에게 보건소 담당의사가 야외활동과 사교활동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타임뱅크가 운영하는 텃밭 가드닝 참여를 권고한다면, 전문의사와 내담자 개인 간의 코프러덕션뿐 아니라, 타임뱅크와 보건소 간의 코프러덕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담자는 단순한 소비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치료의 효과를 생산해내는 협력자로 동참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사회 조경을 위한 가드닝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오래된 우울증 환자가 의사의 의뢰를 받고 가드닝에 단순히 참가하는 별개의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임뱅크는 이 둘을 연계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환자의 협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역량을 부여하는(empower) 역할을 한다. 타임뱅크가 그에게 접속되고 코프러덕션이 작동하면 그 내담자는 지역사회의 조경에 기여하는 능동적 지역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 활동으로 벌어들인 타임크레딧(봉사점수)은 그 내담자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받아왔던 도시락 봉사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며, 그와 함께 높아지는 자긍심과 보람은 내담자의 우울증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게 되고, 보건소는 기관의 사명완수에 기여한 내담자와 타임뱅크와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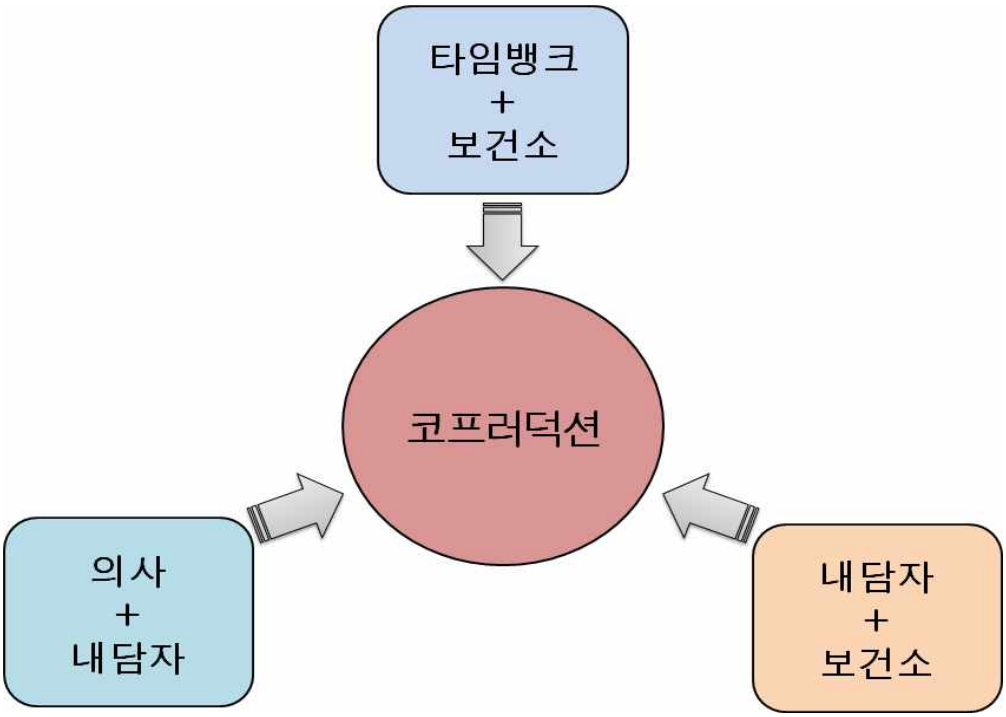


그림 5. 코프러덕션의 실례

5. 코프러덕션이 아닌 것

에드가 칸 박사는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을 설명하면서 그 동안 파트너십, 협력, 동반관계라는 유사한 이름으로 진행된 유사 코프러덕션에서 탈피한 새로운 평등한 관계를 강조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의 동향이 '욕구조사' 패러다임에서 '강점기반' 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수혜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타임뱅크가 지향하는 코프러덕션의 기준으로 그 접근법을 평가한다면,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계가 뚜렷하였고, 수혜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의사나 복지사가 판단한 처방과 중재를 묵묵히 따르는 상황이었다.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중재방식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다(에드가 칸,

2004, pp.73 - 74).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에 수혜자를 참여시키던 방식과 코프러덕션을 구별하여 코프러덕션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영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진보적 정치사회진영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뉴이코니믹스 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코프러덕션을 기존의 수혜자 참여적 복지프로그램과 구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코프러덕션은] 엄격히 본다면, 그저 자문 받는 정도의 참여는 아니다.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혜자들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역량(skill)과 그들의 경험을 이용하여 서비스 전달을 돕는 것이다.[9]

프로그램 참여자 자문회의를 몇 차례 더 개최하고, 참여자의 평가를 과정 평가 및 사후 평가에 반영하여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정도로는 여전히 수혜자를 수동적 존재로 남기게 될 것이며, 코프러덕션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임뱅크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동반관계(parity)를 형성한다. 접두어 'co-'는 '협력적, 상호적, 보완적(joint, mutual, complementary)'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에드가 칸, 2004, p.62).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에 내재된 이러한 동반관계와 평등의 정신은 타임크레딧의 환산공식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다고 하겠다. 시장경제 안에서 고부가가치를 인정받은 변호사의 1시간과, 시장상품성이 전혀 인정되지 못한 초등학생의 1시간은 동일하게 1타임 크레딧으로 환산된다.

6. 코어경제에 기여한 노동의 가치 복원

이러한 평등정신의 배후에는 시장경제와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비

9) 『Co-production : A Manifesto for Growing the Core Economy』, new economics foundation, 2008, p10.

시장경제(non - market economy)영역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그 근저에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비시장 영역으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이다. 이 영역에서 생산되는 비재화성 서비스(사랑, 양육, 신뢰, 호혜, 시민참여 등)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기준과 원리로 생산 · 배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의 운영시스템과 같은 이 영역이 와해되면 시장경제의 작동마저 멈출 수 있다. 인재를 출생시키고 양육시켜 준비해주는 가정이 와해된다면, 기업은 첨단 지식과 기술개발에 참여할 인재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며, 십대들의 골목길 패싸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없다면,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복구에 노력하는 지역사회가 없다면, 책임 있는 조직원으로 활약할 기업구성원을 기업은 발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시장경제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칸 박사가 영국에서 경제학공부를 통해 이미 인식하고 발표하였다. 그 후에, “비시장 경제” 라는 용어를 “코어 경제(core economy)” 라는 이름으로 대체한다. ‘비시장(non-market)’ 이라는 용어가 (지하경제, 탈세 등)불법적 거래까지 포함하게 될 우려와 함께, 가정 · 이웃 · 지역사회 · 시민사회가 시장경제에 기여하는 지대한 가치가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우려에서 나온 변화였다(에드가 칸, 『No More Throw - Away People』 2nd Edition, Essential Books, Washington DC, 2004, p.203).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려면 제대로 작동하는 운영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하듯이 시장경제로서는 코어경제가 운영시스템과 마찬가지라고 칸 박사는 비유한다. 시장경제는 코어경제의 자원투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한다. 그러나 물질주의와 과도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양육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웃과의 교류는 차단되었고, 자녀를 집밖으로 내보내기조차 위험한 동네로 지역사회를 황폐화 시켰다. 시장경제는 코어경제를 파괴시킨 외부비용뿐 아니라, 코어경

제가 육성하고 준비시켜준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비용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화된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 복원에 기여한 노동의 가치를 이제까지 평가 절하하였고, 소외시켰다.

코어경제의 노동을 새로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관점은 바로 코프러덕션의 중심가치이다. 실제로 타임뱅크를 통해 변호사 상담 비용의 일부를 타임크레딧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회사가 의료용품구매 비용의 일부로 타임크레딧을 수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타임뱅크가 시장경제와 코어경제 영역간 코프러덕션을 생성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빈민주택가의 공원폐쇄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수임료의 일부를 타임크레딧으로 받기를 동의하였다. 평등한 시간 환산율이 변호사의 주민인터뷰를 도와준 이주민 출신 초등학생의 통역봉사에도 적용되었다. 라틴계 이주민으로 구성된 그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가 필수였고, 그 초등학생의 통역봉사가 아니라면 그 변호사는 그 소송 건에서 승소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초등학생은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이며, 동네 노인들이 만남의 장소인 그 공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한 것이었다.

7. 코프러덕션이 추구하는 중심가치

그렇다면 코프러덕션을 유발하고 추진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왜 어떤 타임뱅크는 코프러덕션을 생성할 수 있었고, 어떤 타임뱅크는 끝까지 코프러덕션을 유도하지 못했던가? 칸 박사는 코프러덕션이 생성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코프러덕션을 생성하는 동력을 5가지 중심 가치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 중심가치는 타임뱅크를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코프러덕션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금석과 같은 것이며, 타임뱅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중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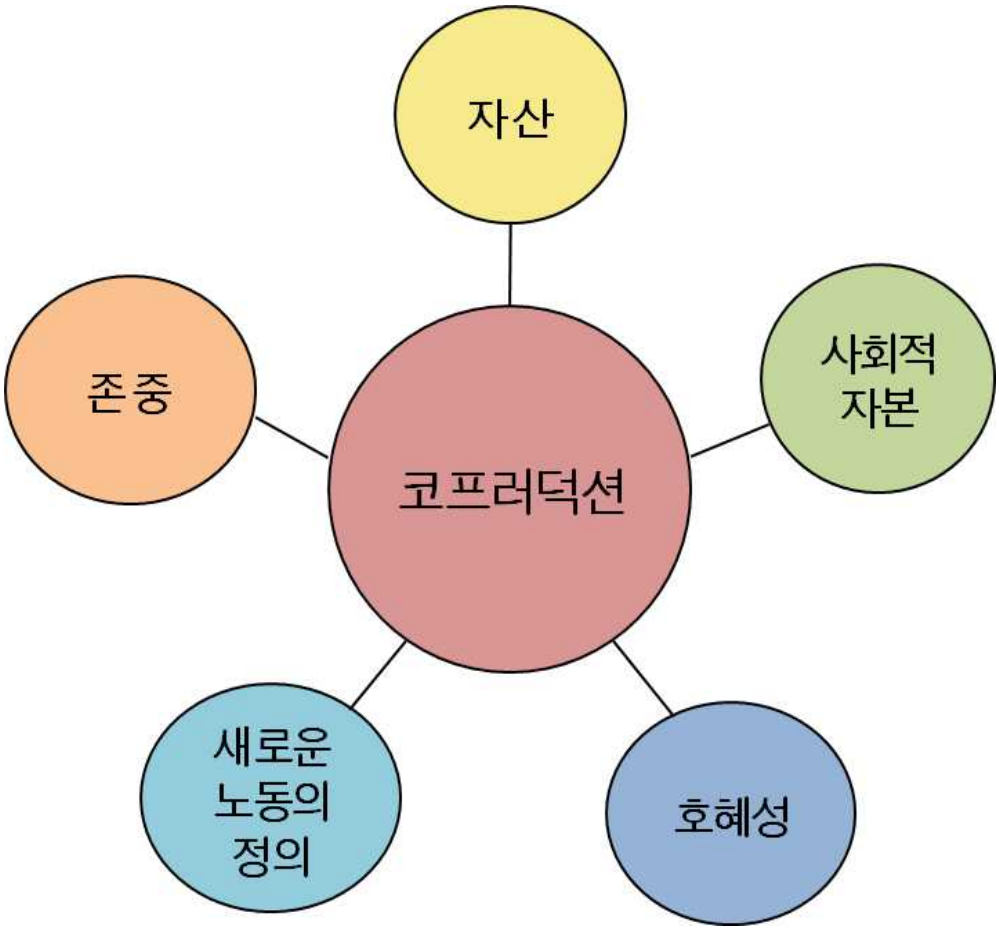


그림 6. 코프러덕션의 중심가치

▶ 자산의 관점 :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이 있다. 타임뱅크는 사람들에게 결핍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산에서 출발한다.

▶ 노동의 관점 :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보존하며, 이웃의 안전과 협력을 도모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의를 개선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사회유지에 필수적이며 시장경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노동과 동일하게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 호혜성 :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호혜적 봉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열어준다. 타임뱅크는 호혜적 봉사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해요” 라는 일방적 봉사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로 바뀌어야 한다.

▶ 사회적 자본 : 도로, 항만, 시설 등 경제적 인프라 구축만큼 신뢰, 호혜, 시민참여로 생성되는 사회적 자본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마을을 구축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타임뱅크는 가족, 친구, 이웃을 확대시켜주고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시켜준다.

▶ 존중 : 개인의 표현과 선택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인종, 성,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현재 처한 상태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입게 된다.

타임뱅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중심가치가 실현되는지를 점검하며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서비스 교환이나 코디네이팅,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이 중심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타임뱅크의 출발점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이 중심가치는 결국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한다는 타임뱅크의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8. 코프러덕션과 중심가치

타임뱅크는 코프러덕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이다. 그 자체로 시장경제의 화폐보다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판단 내리기에는 어렵다. 타임뱅크에 장착된 코프러덕션 원리와 중심가치가 있기에 타임뱅크는 시장화폐의 폐해를 해독하고,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타임뱅크의 가치는 시장화폐와 감히 경쟁할 만하다 하겠다. 앞서 살펴본 기존 화폐와 타임달러의 속성 비교에서 보여주었듯이, 타임뱅크는 기존화폐의 외부비용을 상쇄시키고 코어경제를 육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타임뱅크 운영에는 코프러덕션의 원리가 작동해야하며, 코프러덕션을 생성하고자 하려면 다시 이 다섯 가지 중심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9. 타임뱅크 운영원칙

타임뱅크가 발생된 배경, 타임뱅크 원리가 되어야 할 코프러덕션, 코프러덕션이 추구해야 할 중심가치를 이제까지 알아보았다. 타임뱅크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이미 대안적 화폐를 통용하는 시도들은 있어왔고, 효력이 이미 입증된 사례들도 많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타임뱅크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임뱅크에서 독특한 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외되어왔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열망이 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영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후기 자본주의의 폐해와 복지정책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거듭된 실험을 통해 진화된 도구이며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제적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된 타임뱅크의 철학과 그 운영방식은 1998년 처음 영국에 소개되었고, 그 이후 영국의 보수·진보 정권에 걸쳐 타임뱅크가 정착된 속도와 성장의 판도는 미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조

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진보담론을 이끌고 있는 뉴이코노믹스 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 개념이 영국에 도입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영국의 복지정책과 복지현황에 적용하여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 개념을 영국적 토양 맞춤형으로 재정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한 예로, 2008년에 이 재단이 발표한 문서 『코프러덕션 : 코어경제 성장을 위한 매니페스토(Co-Production : A Manifesto for grwoing core economy』는 코프러덕션을 타임뱅크의 핵심으로 제시하였고, 영국복지정책의 중심에 있는 보건서비스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는 칸 박사가 주장하는 코프러덕션의 5가지 중심가치를 영국적인 보건서비스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코프러덕션 실천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다.[10] 이 재단의 연구와 이론적 실험은 현재 영국 내에 300개 이상의 타임뱅크가 운영될 수 있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제3절 타임뱅크 이론적 모델과 접근방법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이 그 개념과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어떻게 시작하는가이다. 새로운 단체가 필요한지, 새로운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타임뱅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타임뱅크 USA의 2대 소장을 역임한 그레이(Chris Gray) 박사는 타임뱅크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타임뱅크 운영가이드로

10) 이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프러덕션 가이드를 제시함 : 내담자를 보건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 서로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노동으로 인정, 호혜적 관계형성을 위한 장치(예를 들어 타임뱅크) 마련,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개인과 지역사회의 유연성(resilience)확보를 위해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기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망 제공. 뉴이코노믹스 재단, 『코프러덕션 : 코어경제 성장을 위한 매니페스토(Co-Production : A Manifesto for grwoing core economy』, 2008, London, pp.16-18.

제시하고 있다[11]. 이 매뉴얼은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아래와 같이 크게 지역사회중심교환(neighbor - to - neighbor exchange)과 특수교환(specialized exchange), 혼합교환(mixed exchange) 세 가지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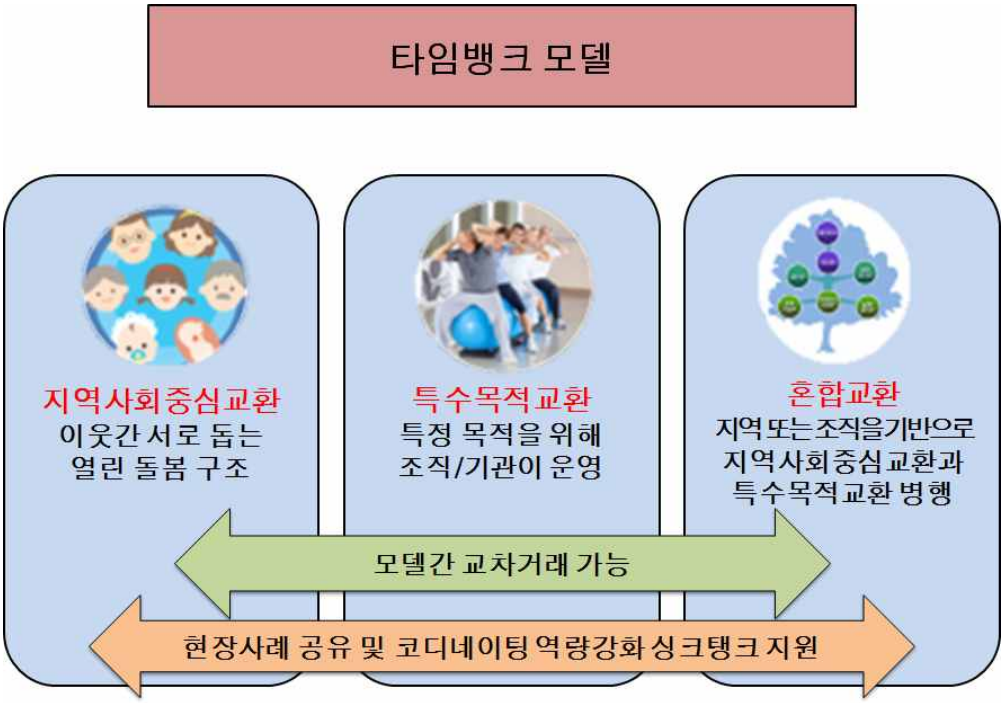


그림 7. 타임뱅크의 운영모델

▶ 지역사회중심교환(neighbor - to - neighbor exchange) : 이웃끼리 돕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소모임, 지역단체, 종교단체 등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미 고유의 사명을 가진 단체이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중심 교환을 위한 타임뱅크를 시작할 수 있다.

▶ 특수교환(specialized exchange) : 특별한 목적에 타임뱅크를 적용하

11) Chris Gray, 『타임달러 운영매뉴얼(Time Dollar : How-to Manual)』, 2003, Wasington DC. p.8.

여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중심 교환은 회원 개인들 간의 교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특수교환은 특정집단이 특정목적을 위해 타임뱅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고학년 학생의 저학년 멘토링 타임뱅크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고, 또는 노인 단체에서 특정 노인그룹을 중심으로 시간에 맞추어 약을 복용하도록 상호 지원해주는 특수교환을 운영할 수 있다.

▶ 혼합교환 : 지역사회중심 교환과 특수교환이 동시에 진행되면 시너지 효과가 촉발될 수 있다. 지역사회중심 교환으로 형성된 회원 간의 관계망은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특수교환이 지향하는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특수목적 교환이 가진 장점 중, 일관된 목적과 대상자의 명확성은 전문가나 자원봉사자의 일방적인 봉사를 호혜적으로 변형시키는데 효과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중심 교환의 지역 관계망과 특수목적 교환의 전략적 기획이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다.

어떤 모델로 시작하든, 타임뱅크 운영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코디네이터, 사무 공간 및 사무집기(컴퓨터, 책상, 전화기 등) 정도이다. 이를 충당할 기초비용이면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12]. 타임뱅크 운영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사회복지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회원개인과 다양한 그룹의 성향과 능력에 대한 성숙한 이해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성향과 능력을 조정할 수 있는 친화력과 지도력이 필요하다. 또한 타임뱅크가 기반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할 것이다. 봉사 요청자와 제공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회원개인의 특수성은 물론 지역에 특수한 문화와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에드커 칸,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2000, Washington DC, p.53.

제4절 시사점

앞서 살펴본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임뱅크의 모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게는 개인이 모인 소그룹이나 가족, 친구 사이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며, 크게는 지역단체나 기관, 공공단체, 지방정부까지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다.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 복지서비스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되고 전달되는 중앙 집중방식의 체계 내에서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모델을 택하는가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기존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전달체계가 각각 하나의 특수목적교환을 위한 타임뱅크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수목적교환을 하는 타임뱅크는 지역사회중심교환과도 교차거래가 가능하도록 연계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영국의 예를 든다면, 지방정부가 타임뱅크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저소득가정, 소외된 독거노인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여기에 가입하는 회원은 지역 일반주민뿐 아니라 지역사업체 · 영화관 · 박물관 · 스포츠센터 등도 단체회원으로 가입한다. 타임뱅크의 운영모델은 단순하지만 그 적용방식은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조합 · 변형될 수 있다.

타임뱅크에 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은 자원봉사와 무엇이 다른가, 지역화폐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이다. 타임뱅크는 자원봉사의 일방성 및 시혜성을 극복하려는 도구이다. 봉사제공자와 수혜자간의 경계선을 두지 않는다. 모두가 봉사를 제공하고 모두가 봉사를 제공받는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시장경제에서 제외된 지역구성원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과 장애자들을 지역사회 안으로 통합하여 적극적인 지역구성원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집중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의 추진이 없다면 자원봉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와 타임뱅크는 자원봉사보다 더 유사성이 많아 보일 것이다.

지역화폐는 타임뱅크가 기초하는 코어경제 영역의 복원과 코프러덕션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시장경제 내에 머물면서 하나로만 인정되는 화폐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출발이었다면, 코어경제를 복원하여 시장경제와의 코프러덕션을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타임뱅크의 출발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타임뱅크가 만능의 도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현장에서 선호하는 도구가 무엇이 되든 타임뱅크는 기존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을 추구하며 제안된 도구라는 점이며, 타임뱅크 운영상에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임뱅크 운영에는 코프러덕션이 핵심이 되어야하며, 그 핵심을 추구하는 기준은 5가지 가치점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 복지시스템의 오리엔테이션에 익숙해진 직원이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은행제가 낳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가 타임뱅크 모델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과 현장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연구를 지속해온 기관이나 인력풀이 포함된 타임뱅크 운영팀을 상시 활용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시범사업에 착수하고자 할 시에는 치밀한 운영기획은 물론, 운영인력 교육 및 운영과정 자문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팀과는 별도로,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전문 운영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3장 외국의 타임뱅크 운영사례

제1절 개요

현재 타임뱅크는 미국, 영국뿐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34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40개 주에서 300개 정도, 영국 전역에서 300개 정도 외에도 일본, 타이완, 세네갈,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3][14] 이 장에서는 특히 미국과 영국의 타임뱅크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한국맥락에 적용·확산 시에 고려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장에서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실제 타임뱅크 사례를 모델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간편하지가 않다. 초기에는 지역사회중심교환 모델로 시작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목적교환을 도입하여 함께 교차하며 진화해나가거나, 특수목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지역사회중심교환 모델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인, 장애자, 어린이 등 특수 인구 층에 제한된 분절적 복지모델을 벗어나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사회복지 모델로 복지체계가 영미사회에서는 정착되어 있다. 타임뱅크가 복지모델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점을 생각한다면, 노인, 환자 등 특수목적으로 시작된 타임뱅크이지만,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전체적 기조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중심교환 사례를 중심으로 영미 타임뱅크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것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중심교환과 병행하여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

13) Cahn, Edgar(July 19, 2011). “Beyond Bartering : Banking On Community Connections”. National Public Radio : Tell Me More (Interview). Interview with Michel Martin. Washington, DC.

14) Simon, Martin(2010). Your Money or Your Life : Time for Both. Gloucestershire, UK: Freedom Favours. pp.110-115.

수목적교환을 운영하는 기관을 살펴봄으로써 두가지 모델이 어떻게 상호보완적 공존관계를 이루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 사례별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겠지만, 타임뱅크 운영에는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초기 핵심인력이 중요하다. 지역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핵심인력의 뜻이 모이면, 앞선 사례를 찾아보게 되거나, 앞선 사례를 보고 지역을 다시 보면서 핵심인력이 뜻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초기 추진모델이다. 이런 초기 핵심인력이 있더라도 타임뱅크 운동 자체가 널리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그 핵심인력만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엔 역부족일 확률이 높다. 자칫하면 자원봉사활동과 중복되거나, 지역화폐와 혼동되어 본연의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핵심멤버와 코디네이터만큼 중요한 것이 동기를 유발/재생시키며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코디네이터 교육, 슈퍼비전, 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다. 미국에서는 타임뱅크 USA가, 영국에서는 타임뱅킹 UK가 이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외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국가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을 함께 포함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타임뱅크와 유사한 지역화폐 운동이 다수 활동적이긴 하나, 정확히 타임뱅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구미에서 활동하는 구미사랑고리은행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구미사랑고리 은행은 타임달러 창시자인 에드가 칸 박사의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2006)』 한국어본 출판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후 10년간 모범적으로 활동해왔지만 그 내용과 효과의 풍성함에 비해 지역 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확산효과가 아직 미약하다. 그러므로 구미사랑고리 사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영·미 타임뱅크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한국에서 타임뱅크가 더 용이하게 확산·정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절 미국의 사례조사

설립 초기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스컨신(Wisconsin) 주 소재 데인카운티(Dane County) 타임뱅크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창의적인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오하이오(Ohio) 주 소재 켄트(Kent) 타임뱅크, 이 두 개의 지역사회중심교환 타임뱅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데인카운티와 켄트 타임뱅크는 지역구성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설립하여 추진되고 있는 타임뱅크인 점과는 달리, 소개된 사례 외에도 특정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타임뱅크 또한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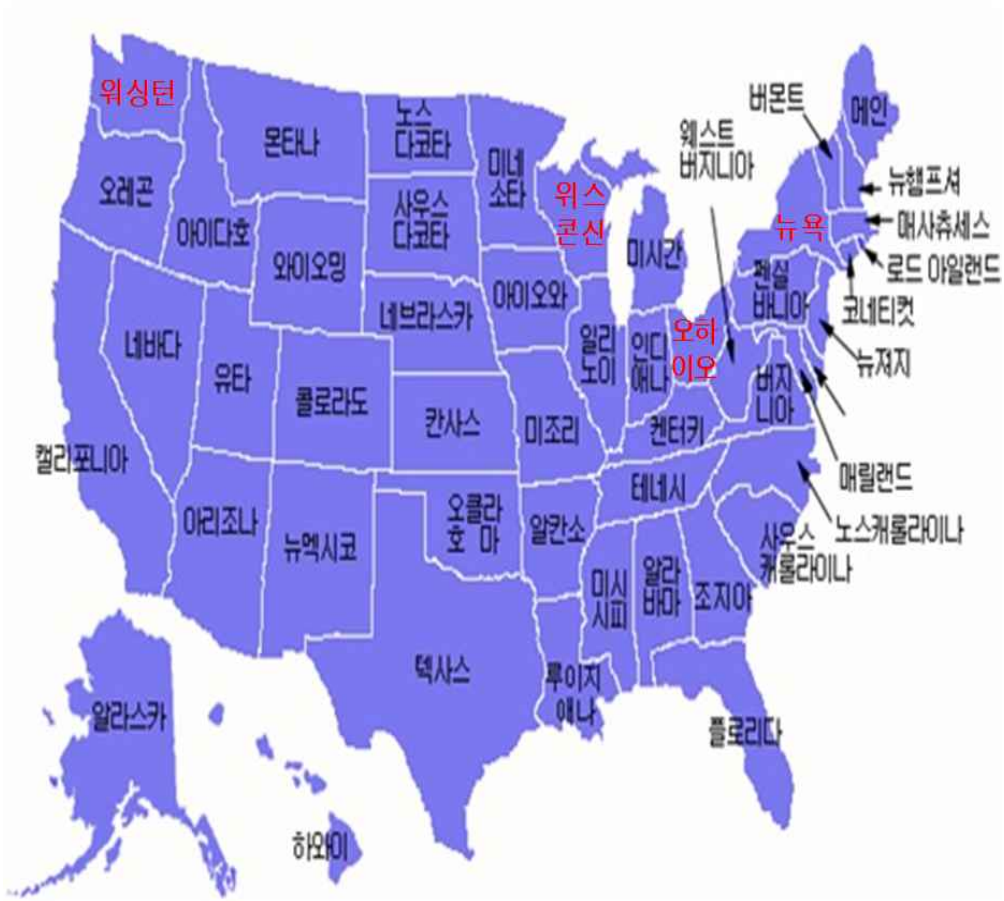


그림 8. 미국 타임뱅크 사례 소재지

특히,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방문간호서비스 기관이 타임뱅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의료보험부터 일상생활지도까지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또한 타임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뉴욕시 맨하탄 지역에서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아치케어(Archcare)를 살펴보겠다.

이 타임뱅크는 지역사회중심교환으로 시작하였으나 특정기관(Archcare, 보건의료 서비스)이 기관미션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중심교환으로 시작한 것이 특이하다.

미국 내 타임뱅크 운영 사례와 함께 타임뱅크 현장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타임뱅크 USA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제시되는 미국 내 타임뱅크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3. 미국 내 타임뱅크 사례

타임뱅크	소재지	설립동기/설립자	모델/기능	비고
데인카운티	위스컨신 주, 메디슨 시 http://danecountytimebank.org	지역 구성원	지역사회중심교환/특수목적교환 병행	
켄트	오하이오주, 켄트 시 http://kentcommunity.timebanks.org/renamed.php?name=crookedriver	지역 구성원	지역사회중심교환	
아치케어	뉴욕시 맨하탄 https://www.archcare.org/timebank	아치케어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교환	기관의 사명지원 목적
타임뱅크 USA	워싱턴 DC http://timebanks.org	에드가 칸	싱크탱크	

1. 데인카운티 타임뱅크

1) 지역의 특성

○ 미국의 중북부 위스컨신 주에 위치한 데인 카운티(뉴욕시에서 비행기로 2시간, 버스로 15시간 정도 중북부 방향)는 인구 500,000여명이 거주하는 중소도시이다(2010년 인구조사로는 426,526명 거주)[15]. 그 중에서도 데인카운티 타임뱅크가 소재한 메디슨(Madison) 시 인구는 250,000명 정도이다. 데인 카운티 내 주요 도시로는 밀워키, 메디슨, 그린베이 등이 있으며, 메디슨 시는 위스컨신 메디슨 주립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캠퍼스를 유치하고 있으므로, 대학 재학생, 교직원 등 대학에 관계된 인구비율이 큰 캠퍼스 타운이다. 전통적으로 낙농업 및 축산 가공업이 발달하여, 일찌감치 농부들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었고, 메디슨 시에는 식품가게, 친환경 제과점, 기술자, 주택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다.[16]

2) 타임뱅크 설립배경

○ 초기에는 진보적 지역사회활동에 관심있던 개인 몇 명이 모여 2005년 메디슨 북부지역 타임뱅크(Madison's Northside Neighbor-to-Neighbor Timebank)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중심 교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메디슨 북부지역 의회(Northside Planning Council), 메디슨 시, 데인카운티의 지원을 받았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지역 내 주민뿐 아니라 노인연합, 농부단체, 지역센터, 학부모 단체, 인력관리업체 등 단체들이 지속적 가입하였다, 메

15) https://en.wikipedia.org/wiki/Dane_County,_Wisconsin
16) https://en.wikipedia.org/wiki/Madison,_Wisconsin#Economy

디슨 시 경계를 너머에 소재한 데인카운티 소속 단체들이 가입하면서 그 이름을 데인카운티 타임뱅크로 전환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 2007년도에는 타임뱅크 USA(Timebanks USA)와 협력하여 제2차 타임뱅크 국제회의를 메디슨 시에 유치할 정도 데인카운티 타임뱅크의 활동은 왕성하며, 국내·외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는 우수프로그램 사례로 발전하게 되었다.

3) 타임뱅크 현황

○ 2005년도 출범 시에는 200명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2,500명 회원이 가입되어있고, 그 중 기관회원은 학교, 도서관, 지역센터, 라디오 방송국, 취미교실 등 총 200개 정도 등록되어 있으며, 연 10,000~14,000시간이 교환되고 있다.

○ 지역사회중심 교환으로 시작하여 초기에는 회원들 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특수한 목적(예, 환자병원방문,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등)을 가진 특수목적 교환을 실행하면서 두가지 모델을 병행하는 혼합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중심 교환에 등록된 일반회원들이 신부전환자의 병원방문을 위해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목적교환에 참여하는가 하면,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로 참여하여 청소년 법정 타임뱅크에 참여하여 타임크레딧을 저축하기도 한다. 이런 교차거래를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 근무 직원은 소장, 프로젝트 담당자, 기금모금 담당자, 회계담당자 등 총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직원의 50%정도는 파트타임 근무자이다. 현재 소장(Director)은 직전 소장과 함께 초기 설립멤버로 2016년에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초기 설립자들이 타

임뱅크를 알게 된 것은 타임달러 설립자 에드가 칸의 책을 통해서이다. 책을 읽은 후 에드가 칸의 자문을 받으며 지역 내 활동을 전개시켰다. 타임뱅크 USA의 자문과 컨설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최근 영국 타임뱅크와의 교류가 활발하여 2016년 여름에는 영국의 Rushey Green, Timebanking UK, SPICE 등을 방문하여 현장사례 공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지역사회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중심교환 타임뱅크와 함께, 이동지원과 청소년 법정을 위한 특수목적교환 타임뱅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재원은 데인카운티 지방정부의 복지사업부(Human Service Department)이며, 그 외 교육청, 메디슨 시정부, 기관자체 모금행사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협동조합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지역 내 협동조합을 타임뱅크로 연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그림 9. 데인카운티 타임뱅크 사무실

4) 타임뱅크 이동지원 프로그램(Timebank Public Transportation)

○ 데인카운티 대중교통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리적 반경은 넓은 반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아서 자가운전자가 아니면 주민들의 시내이동 불편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차로 10분 걸리는 거리이지만 버스를 타면 1시간 내에 도착이 불가능하다. 데인카운티 정부는 메디슨 시외에 거주하면서 장기치료가 필요한 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정기적 병원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이동지원 서비스(Medical Transportation)를 실시하도록 데인카운티 타임뱅크에 요청하였다.

그림 10. 타임뱅크 이동지원

그림 11. 타임뱅크 청소년 법정

○ 환자이동지원 프로그램을 카운티 정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 타임뱅크는 대상자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이동지원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방하였다. 일반회원들 중 자가운전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병원방문뿐 아니라, 청소년 법정 참가, 모임참가, 출근 등을 위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 운전자로 승인되면, 운전거리 250마일 당 유류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5) 타임뱅크 청소년 법정

○ 청소년 법정은 미국의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 중 범죄에 준하는 오류를 범하여 경찰의 경고를 받을 위험이 있는 학생(경고를 3번 받으면 그 후로는 청소년 범죄 전과자로 낙인을 받게 됨)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경찰과의 협의 하에, 경찰의 경고장 대신 청소년 법정에서 또래 청소년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심리와 판결을 받도록 하는 대안법정이다. 경찰시스템과 다른 것은 청소년 본인의 강점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본인이 서약한 참가 동의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경찰이 발급하는 경고장을 면제받는 제도로 미국 전역에서 다수 실시하고 있다.

○ 타임뱅크 청소년 법정이 다른 점은 배심원봉사와 후속 회복 프로그램 참가에 대해 타임크레딧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배심원은 일반학생뿐 아니라 과거 청소년 법정에서 피고였던 학생도 배심원봉사를 한다. 학생 개인 또는 학교가 회원이 되어 배심원봉사 참여할 수 있다. 학교회원은 학교자체 청소년 법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자체 청소년 법정인 경우, 반드시 경찰의 경고장을 받을만한 범죄건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학교자체의 폭력문제 등 주요이슈에 집중하여 학교의 청소년 법정을 디자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메디슨 시내 4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차원의 청소년 법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2개 지역에서도 운영 중이다.

○ 배심원 판결은 지역사회참여와 자기개발을 기준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년 배심원이 결정한다. 희생자에게 사과편지 쓰기, 회복적 정의를 위한 활동, 생활기술 멘토링 받기, 후배 학습지도 등 다양한 판결을 내리면, 피고학생은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 동의하에 타임뱅크를 적용한다.

○ 배심원 봉사, 판결 후속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 교환에 소속된 일반 타임뱅크 회원들에게도 개방되어있다. 학생이 개인으로 참여하여 타임크레딧을 벌었다면, 원예교실, 개인학습지도, 음악·미술 지도, 멘토 지도 등을 받는데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단체회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전교생 대상 특강료 지불, 현장체험학습 비용일부 지불, 직원교육·학생요가교실 강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청소년 법정은 청소년이 중심이지만 후속 프로그램에는 성인지도자가 필요하며, 준비과정에서도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정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 청소년의 멘토링, 학습지도, 생활기술지도, 심리상담, 직업지도, 배심원교육 및 관련문서 준비 등을 통해 성인회원, 직원, 청소년 회원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촉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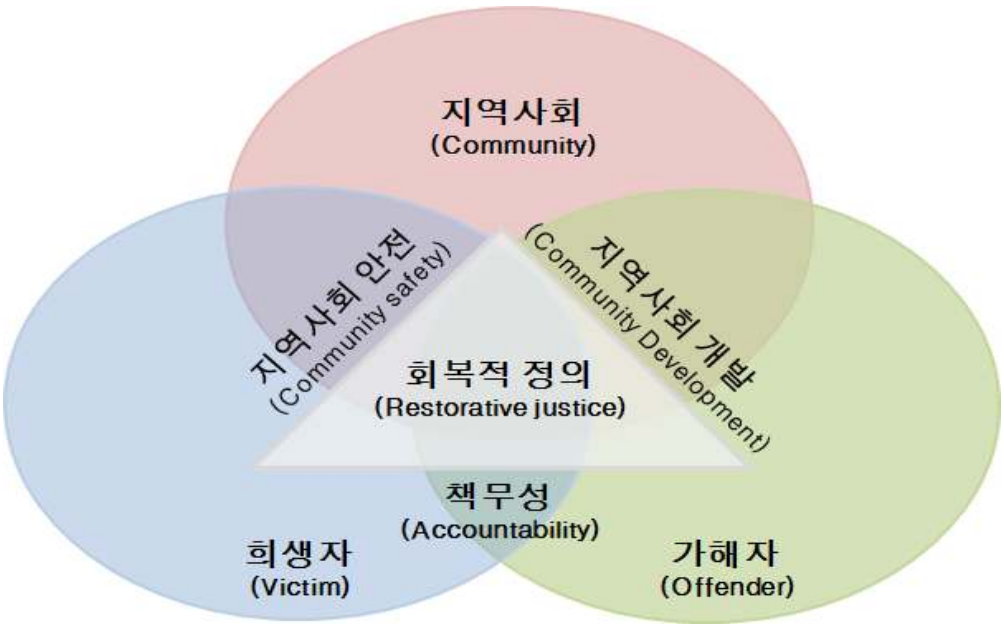


그림 12. 데인카운티 타임뱅크 청소년 법정 추진방향

○ 데인카운티 타임뱅크 회원(2,200명)들이 분노조절, 갈등해결, 명상훈련, 멘터링 기술, 학습지도, 토론학습, 직업현장체험, 예술지도 등에 지도자 또는 참가자로 함께 참여하면서 세대간 교류,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두가지 타임뱅크 모델이 상호 시너지를 내고 있다. 예산지원은 데인카운티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예산 안에는 평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는 평가가 완료되어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켄트 지역사회(Kent Community) 타임뱅크

1) 지역의 특성

○ 켄트 시는 오하이오 주 북동부, 쿠야호가(Cuyahoga) 강을 따라 발달한 도시로 클리블랜드, 콜럼버스와 함께 오하이오 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다. 25,000명을 웃도는 인구(2010년 인구조사로는 28,904명)[17]가 거주하는 대학중심 도시이다. 1900년대 초까지는 철도사업과 제조업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켄트 스테이트 대학(Kent State University)이 대학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건축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켄트시 최대 일자리 제공자가 되었다. 대학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 박물관 등이 주민들의 스포츠(농구, 야구, 배구, 수영 등) 및 예술 활동 중심이 되기도 한다.

○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아래에서 농산물 직거래시장(Farmers' Market)이 열린다. 5~10월, 토요일 오전에 그리어 브리지(Greer Bridge)아래 교각 두 개 사이에 농산물

17) https://en.wikipedia.org/wiki/Kent,_Ohio

직거래시장을 개설한다. 온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이 두 개의 교각에 동네를 상징하는 벽화를 그려두었다. 벽화작업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였다.

2) 타임뱅크 현황

○ 타임뱅크가 설립된 동기는 가정 주부였던 애비(Abby Greer)가 에드가 칸의 책을 읽고 타임뱅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주부들과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타임뱅크 USA의 조언을 받으면서 6년 전 관심 있는 이웃 몇 명과 함께 지역사회중심 교환을 위한 켄트 타임뱅크가 설립하였다. 초기에 함께 시작한 핵심구성원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운영한다. 6명의 위원들은 매월 회의를 통해 타임뱅크 활동경과 보고, 활동계획, 회원모집 및 교육, 회계 관리 작업을 하고 있다. 타임뱅크 운영비는 자문위원이 지불하는 연회비, 마을 축제기간 및 행사기간에 바자회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근에 비영리단체 등록이 되었으므로 켄트 시정부의 비영리단체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켄트 시에는 대학관련 인구가 많으므로 유동적인 인구가 많고 연령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그러나 켄트 타임뱅크를 알게 된 인근 지역에서 타임뱅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켄트 타임뱅크에 함께 하기엔 지리적 거리가 멀어서 각각 하나의 작은 타임뱅크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각각의 타임뱅크를 운영할 4명의 지역지도자들을 교육하였다. 그 4개의 타임뱅크와 켄트 타임뱅크를 연합하여 크루키드 리버 타임뱅크 연맹(Crooked River Alliance of Timebanks, CRAT)을 조직하였다. 연맹을 관리하는 이사회를 결성하여 하나의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다(2014). 현재 CRAT 전체에 등록된 회원은 500명이 넘으나 활

동적인 회원은 230명 정도이다. 켄트 타임뱅크를 제외하면 다른 타임뱅크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회원교육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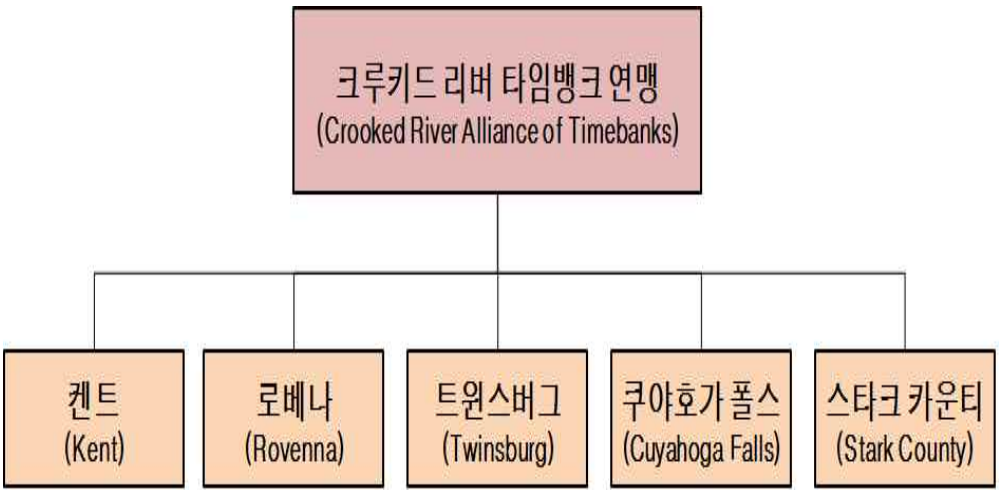


그림 13. 크루키드 리버 타임뱅크 조직도

3) 주요 프로그램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 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농부, 동네 식당, 일반주민 대상 타임뱅크 행사로, 농부들의 농산물 기증, 동네 식당의 조리봉사, 일반주민들의 주말 시식행사 참여로 구성된다. 마을 축제기간이나 스포츠행사와 함께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켄트 시의 상징물인 벽화그리기에 타임뱅크 참여를 시장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의뢰하였다. 그 사랑고리로 식사비, 아기 돌보기, 강아지 산책, 집안 수선 등 회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 타임뱅크에 관심은 있으나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기에, 타임뱅크 설명회를 매월 개최하며, 소규모 사교모임(potluck)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주민대상으로 타임뱅크를 설명하고, 동시에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4) 평가 및 모니터링

회원가입 시에 가입동기 관련 간단한 설문을 실시하며, 서비스교환 후에 활동 보고와 함께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전반적인 타임뱅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평가하려면 기금확보와 연구역량이 필요하므로 켄트 스테이트 대학연구소와 협력 계획 중이다.

그림 14. 켄트 타임뱅크 행사 포스터

3. 아치케어(Archcare) 타임뱅크

1) 타임뱅크 설립 배경

○ 아시아 · 남미 출신 이주민이 많은 맨하탄 중심부에 아치케어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그 사무실 내부에 타임뱅크 사무실 공간이 위치해 있다. 설립 주체가 뉴욕 최대교구인 아치교구이다.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여를 강화하라는 카톨릭 교황의 특별 권고를 이 교구가 받고, 교구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인 아치케어에 타임뱅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아치케어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에만 한정시키지는 않고, 지역사회중심 교환모델로 2006년에 아치케어 타임뱅크를 출범하였다.

○ 아치케어(Archcare) 보건의료서비스는 뉴욕 카톨릭 교단에서 규모나 재정 면에서 가장 큰 아치교구(Arch Diocese)가 운영하는 의료복지 종합서비스이다.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가정간호, 입주간병, 재활지원, 대안적 요양서비스, 말기환자 통증완화 서비스, 건강보험 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다. 아치케어가 사무실·집기 및 직원 6명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재단(예 : 카톨릭 재단)이나 지방정부에서 프로젝트별로 타임뱅크를 소액 지원하고 있다.

2) 타임뱅크 운영 현황

○ 직원은 7명이며, 소장은 1987년부터 특수목적교환(노인케어 및 방문간호) 타임뱅크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가, 그 외 직원들은 지역단체 활동경험이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2~3년 쌓인 활동가들로 대부분 이주민 출신이다. 아치케어 보건의료서비스 회원에게 가입 시 타임뱅크 이용에 대해 반드시 안내한다. 보건의료서비스 가입 회원이 원한다면 타임뱅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아치케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카톨릭 교회 대상으로 홍보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 카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한 타임뱅크 홍보는 그 직원의 아치케어 홍보에 포함되어있다. 카톨릭 교회를 제외한 지역사회 대상 타임뱅크 홍보는 주로 기존 회원을 기반으로 한다. 기

존회원을 통해 정보를 얻고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타임뱅크 직원들이 방문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 시에 추천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회원 추천 1부, 1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의 추천서 1부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재 개인회원 1,360명, 기관회원 70여개(주로 카톨릭 교회, 지역단체 등)가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의 50%정도가 영어구사력이 없는 이주자, 50%이상이 60세 이상, 70%가 연소득 $ 30,00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 신입회원용 안내자료(A4 양면 분량)에는 핵심가치, 행동강령, 교환 후 보고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회원이 가입하면 그 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정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번역·운전 등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교육 세션을 구성한다. 추가교육은 가능하면 회원 중에서 리더를 발굴하여 그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하게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문그룹을 만들어 회원교육을 실시하고 자문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아치케어의 전반적인 타임뱅크 효과를 평가한 적은 없지만, 회원가입 시 간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활동 6개월 후에 다시 설문을 하여 변화의 추이(자긍심, 건강변화 등)를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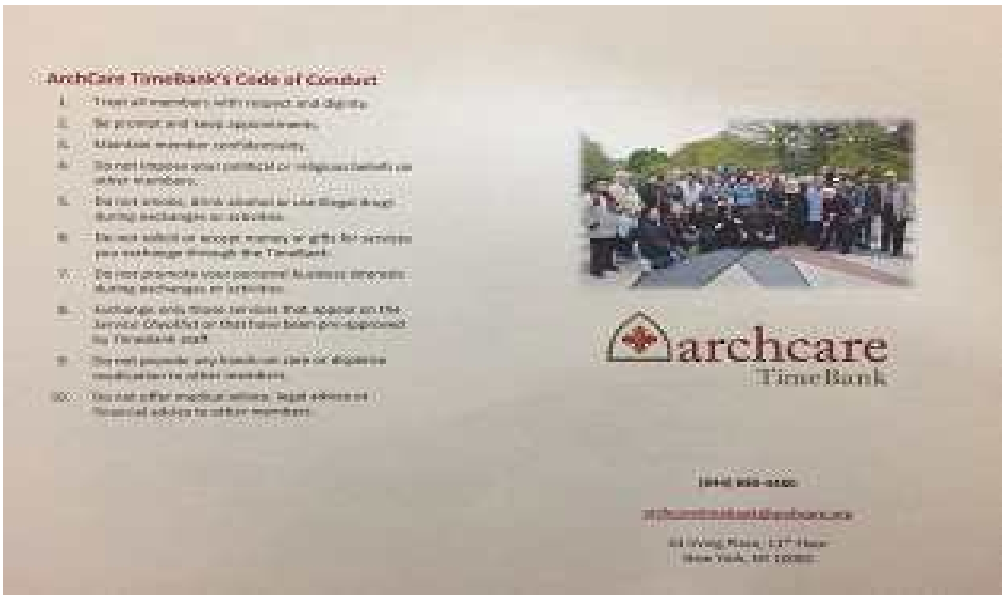


그림 15. 아치케어 타임뱅크 교육자료

3) 타임뱅크 활동

○ 지역사회중심교환 모델이므로 회원들이 교환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식사제공, 요리, 화장실 이동지원, 스마트폰 사용법, 통역 등)부터 특정기술이 필요한 서비스(외국어 지도, 예술 강좌, 행사운영지원, 차량수송, 컴퓨터 기술, 사진작품, 보석세공, 스포츠 강습 등), 문화 활동(드로잉, 수공예, 가죽공예, 영화·공연 관람, 파티 초대권 등), 직업상담, 건강 상담(기억력 감퇴, 알츠하이머 예방 등)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그림 16. 아치케어 타임뱅크 활동 영상(https://vimeo.com/126173238)

그림 17. 아치케어 회원 활동

○ 이주민이 많은 지역사회이므로 외국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지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회원(교구 내 교회 및 지역단체)이 운영하는 저소득층·소외계층 대상 서비스에 회원들이 봉사자로 또는 봉사 수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회원들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원은 개인회원 간의 서비스 교환뿐 아니라,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교회와 단체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며 활발하게 타임크레딧을 교환하고 있다.

○ 영어구사 가능자가 전체 회원의 50%정도뿐이므로 온라인상의 공지나 기록은 전달효과가 저조하다. 그러므로 회원을 위한 거의 모든 공지는 종이문서 혹은 유선상 혹은 그룹 리더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봉사내역 기록 또한 일차 종이 혹은 유선상의 보고를 접수한 후에 담당직원이 컴퓨터 시스템 상으로 입력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4. 타임뱅크 USA(Timebanks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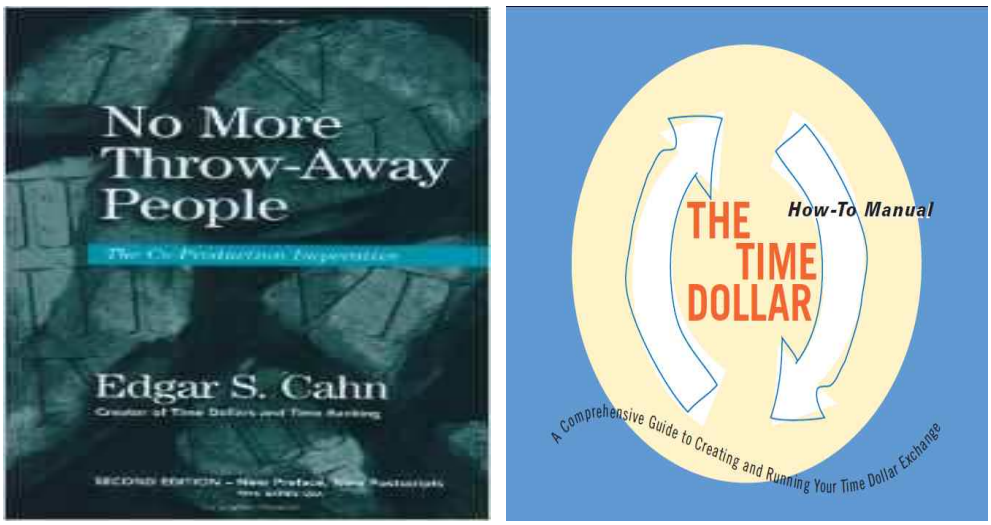


그림 18. 타임뱅크 USA 개발 자료

1) 설립 및 기능

타임뱅크 개념을 창안한 에드가 칸이 1995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하였고, 현재 전 세계 135개 타임뱅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미국 및 전 세계에 타임뱅크를 보급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타임뱅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타임뱅크 정보허브

☞ 실제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으나, 미국은 물론 전 세계타임뱅크 관련 자료를 축적해두고 있고, 외부 요청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타임뱅크 운영을 위한 온라인 기록 시스템 Community Weaver를 개발하여 원하는 타임뱅크에 사이트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②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 타임뱅크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운영할 때에 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한 철학적 혹은 기술적 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타임뱅크 운영 매뉴얼, 교육자료 등과 함께 타임뱅크 출범을 원하는 지역사회나 기관대상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역량강화의 한 방법으로 코디네이터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매월 전 세계 코디네이터들의 온라인 미팅을 개최한다. 이 미팅은 타임뱅크 운영에서 발생하는 핫이슈와 관련 사례들을 포럼 또는 회의형식을 통해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공간이다.

그림 19. 타임뱅크 USA 공개 강의

그림 20. 타임뱅크 USA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

③ 출판 및 컨설팅

☞ 타임뱅크 운영 업그레이드에 관련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시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매년 미국내외 타임뱅크 운영자들이 모일 수 있는 컨퍼런스를 조직한다. 그 외 학자 혹은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전문가로 참가하여 컨설팅을 하거나 코스개발 및 특강을 제공하면서 타임뱅크 관련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있다.

제3절 영국의 사례조사

타임뱅크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었다. 에드가 칸 박사가 창안한 타임뱅크가 영국으로 건너가 정착하게 된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뉴이코노믹스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펠로우로 있던 데이비드 보일(David Boyle)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에드가 칸을 방문하였고, 영국의 사회혁신가 마틴 사이먼(Martin Simon)은 같은 해에 미국 포트랜드에서 열렸던 첫 타임달러 콩그레스에 참석한다. 두 사람 모두 타임뱅크를 영국에 수입해오기로 결심하고 귀국한다.[18] 데이비드 보일은 다음 해에 에드가 칸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런던과 뉴캐슬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마틴 사이먼과 힘을 합해 BBC 라디오 방송 출연을 섭외하고 토니블레어 수상과의 면담을 섭외한다. 모두 성공적이었고 임팩트는 기대 이상이었다. 마틴 사이먼은 페어셰어(Fair Share)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영국에서 타임뱅크가 출범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그 결과 1998년 '타임뱅크 UK'가 출범하였고, 이것은 후에 영국 내 타임뱅크 보급 및 운영을 지원하는 타임뱅크 허브인 '타임뱅킹 UK(Timebanking UK)'로 이름을 바꾼다.

영국에서 타임뱅크가, 특히 지역사회중심 교환이 진화해간 방향은 미국

18) David Boyle & Sarah Bird GIVE & TAKE : How Timebanking is Transforming Healthcare, Timebanking UK : 2014, p.20 - 21.

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미국에서의 지역사회중심 교환은 풀뿌리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개인 몇몇이 시작하여 진화시켜가는 방식이 우세하다면,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정책(NHS) 개혁과 맞물려 기관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실험을 하면서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시 데이비드 보일과 마틴 사이먼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기관과 함께 정부와 재단 대상으로 모금과 홍보에 주력했던 것이 기여하였다고 본다. 보건의료분야 실험의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 남동부 캣포드(Catford)에 소재한 러쉬그린(Rushe Green) 타임뱅크이다. 러쉬그린 타임뱅크는 1차 의료기관인 러쉬그린 의원(Rushe Green Primary Care Centre)에서 특수목적으로 파일럿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식출범 때에는 지역사회중심 교환으로 확대되었다.

러쉬그린과 동시에 영국의 여러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에서도 타임뱅크를 실험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이웃간 교환을 촉진하는 실험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 스파이스(Spice)가 시도한 지역사회중심교환 모델은 미국에서 해보지 못한, 아주 영국적인 새로운 시도라 볼 수 있다. 그 모델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에는 여전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영국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국적인 국가주도 복지모델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타임뱅크 사례를 지켜볼 만하다고 하겠다. 기존 모델이 개인 혹은 단체 간의 서비스 교환을 직접 코디네이팅 하는 타임뱅크였다면, 스파이스 모델은 정부와 직접 협력하여 타임뱅크를 정부가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공적서비스 시스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볼 만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타임뱅크 설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일찍이 설립되었다. 타임뱅킹 UK(Timebanking UK)는 영국으로 타임뱅크를 수입하는 즉시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영국 내 타임뱅크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의 정책입안

시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영국 내 타임뱅크 사례

타임뱅크	소재지	설립동기/설립자	모델/기능	비고
러쉬그린	캣포드(Catford) http://www.rgtb.org.uk	러쉬그린 진료소 및 구청	지역사회중심교환	
스파이스	런던 http://www.justaddspice.org	대학연구소/지역구성원	지역사회중심교환	공적서비스 연계로 시스템변화 추구
타임뱅킹 UK	스트라우드(Stroud) http://www.timebanking.org	에드가 칸	싱크탱크	

1. 러쉬그린 타임뱅크

1) 지역특성 및 설립 동기

○ 런던 남동부에 위치한 캣포드의 일차 진료소 러쉬그린(Rushe Green Group Practice)에 위치한 타임뱅크이다. 국내 한 자료에 따르면, 타임뱅크가 소재한 루이샴(Lewisham) 지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에 있는 354개 열악한 지역(deprived district) 중에 하나이다. 실업률 29위, 경제악화가 31위인 지역으로 런던에서도 경제적으로 황폐한 지역이다[19].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전체 인구의 47%)[20]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다.

19) 오사와 마리 편저, iCOOP 생활협동조합연구소 옮김.『생활 속의 협동』, 푸른나무, 2009.
20) https://en.wikipedia.org/wiki/London_Borough_of_Lewisham.

○ 1999년 에드가 칸의 강의를 들은 러쉬그린 진료소의 의사가 사회적 소외와 우울증 환자 치료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처방에 포함하여 실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반의(GP) 리차드 빙(Richard Bying)은 내담자의 소외감과 우울증을 완화해 줄 대안을 찾던 중, 타임뱅크를 치료대안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한다. 내담자의 진료처방으로 정원 가꾸기 등 타임크레딧 교환에 참여 권유를 포함시킨다. 그 결과 소외된 노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회적 지원망이 생겨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기반 지원망이 개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노인들이 양로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원망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 2000년 3월, 러쉬그린 진료소가 소속된 루이샴구청(Lewisham Borough)은 진료소 중심의 타임뱅크를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러쉬그린 타임뱅크를 출범시킨다. 18개월이 지난 2002년 2월 뉴이코노믹스 재단(NEF)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쉬그린 타임뱅크의 회원은 68명이었고, 그 중 개인회원은 59명, 기관회원은 9개 기관이었다. 기관 회원에는 러쉬그린 진료소, 정원 가꾸기 센터, 요양원, 구립자원활동센터, 구립보건의회, 지역교회 등이 포함되어있다.[21]

21) New Economics Foundation “Keeping the GP away : A NEF briefing about community time banks and health,” London, 2002, p.3.

그림 21. 러시그린 타임뱅크 소재지 및 재능나눔 행사 포스터

2) 타임뱅크 현황

○ 설립 초기부터 러쉬그린 진료소가 진료소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였다. 현재에도 사무실은 진료서 내에 위치해 있다. 직원은 소장(director) 1인, 직원 1인, 파트타이머(와일드캣 프로젝트 담당, 주 2일 근무) 1인으로 구성된다. 2016년 10월에는 지역 내에 타임뱅크 회원 모임 및 활동공간을 사무실과 멀지않은 공간(Place/Ladywell)에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16년간 축적된 회원 수는 현재 1,100명 정도이나 비활동 회원이 상당수이다. 진료소가 여전히 타임뱅크를 안내하고 연결하며, 때로는 처방을 해주고 있으나 의사의 이해도에 따라 진료소의 참여도는 유동적이며, 현재는 타임뱅크 독자적으로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고 홍보하는 활동이 더 중요해졌다. 현재에

는 주로 구의회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타임뱅크 소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소개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운영예산은 구의회 또는 민간 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3) 주요프로그램

○ 초기 실험은 진료소 내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구청이 공식 출범시킨 이후로는 지역사회중심 교환이 중심이다. 초기에 내담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작은 정원이 지역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자연체험 프로그램, '와일드 캣(Wild Cat Wilderness)'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진행되고 있다. 개인 또는 가족, 기관(학교, 직장 등) 단위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22. 와일드 캣 주말자연체험 프로그램

○ 핵가족,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모아 저소득층, 단독세대를 초대하는 푸드 사이클(food cycle)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23. 러쉬그린 타임뱅크 푸드 사이클

○ 생활용품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가진 재활용 기술을 공유하는 장터(Bring And Fix)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연 3~4회) 운영한다. 옷 수선, 자전거 수선, 칼갈이, 문서편집, 원예 강좌, 예산서 작성, 휴대전화 사용법 지도, 유언쓰기 등 다양한 재능장터를 열어두고 주민들끼리 서로의 재능을 교환하는 재능장터이면서, 지역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사교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2. 스파이스(Spice) 타임뱅크

1) 설립 동기 및 특성

○ 2003년 웨일즈대학(University of Wales) 내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개발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Wales Institute of Community Currency)가 설립되었다. 유럽연합(EU)기금으로 시작한 지역화폐 연구사업이 2008년에 완료되면서 타임뱅크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운영하는 단체설립에 착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2011년에 Spice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주로 받고 있다.

○ 현재 웨일즈의 카디프(Cardiff)와 런던에 2개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사무소는 각각 독립적인 대표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런던사무소는 런던지역을 중심으로 멀리는 캠브리지 지역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 스파이스 타임뱅크의 특징은 지역사회중심 교환의 주류였던 개인간의 교환보다는 민간단체나 지방정부가 주민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적서비스 시스템에 타임뱅크를 적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 타임뱅크 현황

○ 런던과 카디프에 각각 평균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각 사무소는 대표가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하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런던사무실의 전일 근무 직원은 대표, 회계 행정 직원을 포함하여 5명이며, 나머지 3명은 파트타임 근무(프로포절 작성 등)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산

의 65%정도는 지방정부 지원금이며, 그 외 민간재단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개인회원 25,000명, 기관회원이 1,200개 정도이다. 현재까지 Spice를 통해 450,000시간이 거래되었다.

3) 타임뱅크 운영모델

○ 초기 웨일즈대학 내 연구소에서 경험했던 유럽의 지역통화 비교연구 프로젝트에서 얻은 통찰을 살려 기존 타임뱅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개인 간의 서비스 거래를 취급하는 지역사회중심 교환을 추구하되, 기존 지역단체나 정부의 공적서비스에 타임뱅크를 접속하여 타임뱅크의 임팩트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그 방식은, 지방정부 예산책임기관인 의회와 스파이스 타임뱅크는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그 계약 하에 지역 내 민간단체의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그 직원들은 기관 코디네이터가 되며, 그들을 대상으로 스파이스는 타임뱅크 교육을 실시한다. 각 민간단체에 지정된 코디네이터는 해당기관 회원들의 타임뱅크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활동결과를 정기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혹은 의회가 지정한 기관이 중앙은행이 되어 타임크레딧을 발행하고 관리하며, 모든 서비스 거래내역도 총괄 관리한다. 타임뱅크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보고는 스파이스가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 스파이스 타임뱅크는 온라인 기록시스템과 함께 종이화폐를 유통하고 있다. 종이화폐가 주어지면 참가자들이 타임뱅크의 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체득하고 타임뱅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진다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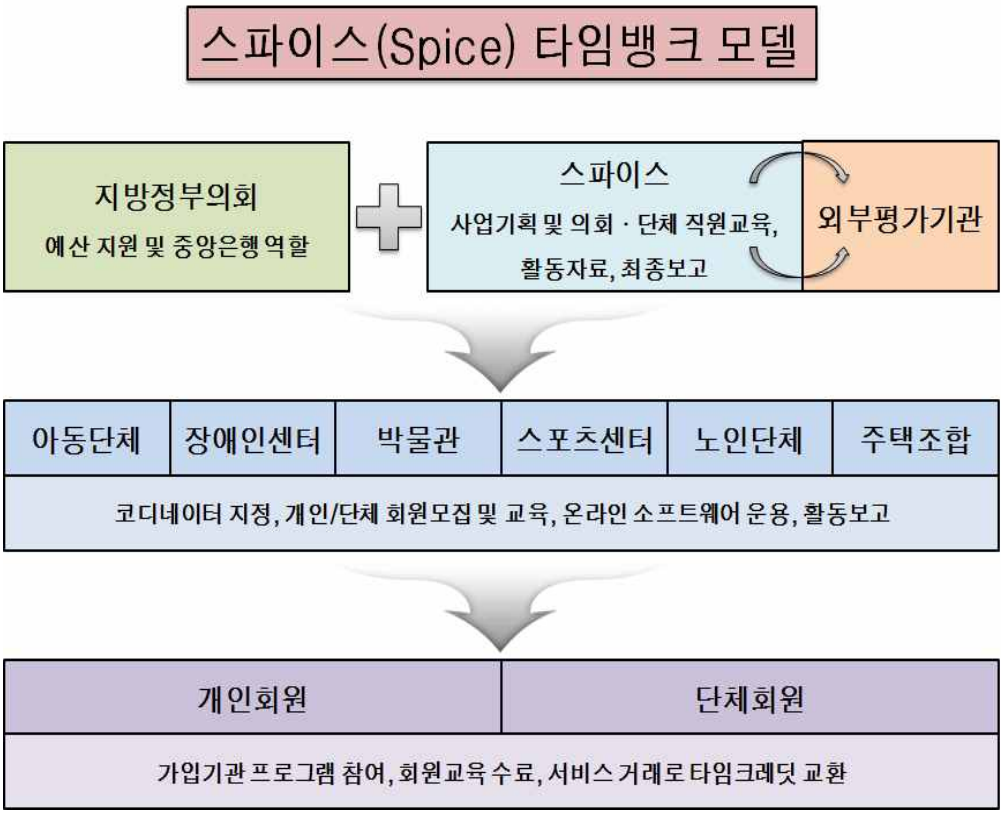


그림 24. 스파이스 타임뱅크 모델

○ 스파이스 타임뱅크 운영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 키워드는 시스템 변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참여 및 연대 형성이다. 모든 프로그램 기획에는 이 세 가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평가 시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스파이스의 연례보고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림 25. 스파이스 타임뱅크 연례 평가 보고서

4) 주요 프로그램

(1) 공공주택(social housing) 프로그램

☞ 주거지 건축과 함께 안정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영국공공주택 사업자 대상 프로그램이다. 공공주택사업자들에게 늘 도전이 되어왔던 것은 주거지 운영에 입주자를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타임뱅크를 통해 주거지 운영에 관련된 입주자 회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타임크레딧을 제공한다. 입주자들은 입주자 회의 참가, 입주자 의견 제안, 행사진행 보조 등을 통해 타임크레딧을 받고, 그 크레딧으로 예술·스포츠 등 취미활동, 미용실·수영

장 · 헬스클럽 사용권,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또는 주거지가 소재한 지역사회의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향상되었고 주택사업자의 지역사회 공헌기회를 향상시켰다.

그림 26. 스파이스 공공주택 임차인 활동의 날

(2) 학교 프로그램

☞ 현재 캠브리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부형들이 특별활동, 방과후 활동, 급식, 가드닝 활동 등에 참가하며 지역사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예로, 소외된 편모 저소득가정 학부형이 동화 읽어주기에 참여하면서 타임크레딧을 벌었으며, 그 크레딧으로 스포츠 경기, 연극관람 티켓을 구입하여 자녀와 함께 관람하면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3) 보건의료 프로그램

☞ 지방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장애아·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에 타임뱅크를 적용한다. 장애아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Reach Up and Go' 에 타임뱅크를 적용하여, 장애아들이 리더역할을 할 경우에 타임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리더가 된 장애학생은 그 크레딧으로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지불하거나 여름캠프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전용 까페(Cuppas)에서도 장애자와 노인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타임크레딧을 저축하고, 이 타임크레딧으로 그들을 위해 제공되는 야외 나들이 행사에 친구 또는 카페 단골손님들을 초대하는 비용으로 지불한다. 이 나들이 행사는 매월 까페 운영자들이 장애자와 노인들을 초대하여 조직하는 행사이다.

그림 27. Cuppas 주민전용 카페

3. 타임뱅킹 UK(Timebanking UK)

그림 28. 타임뱅킹 UK 홍보자료

1) 설립배경

○ 1996년 미국의 에드가 칸을 방문하고 온 마틴 사이먼이 1998년 영국의 남서부지방 글로스터에 타임뱅크 UK(Timebank UK)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다. 현재에는 스트라우드(Stroud)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름도 Timebanking UK로 이름이 변경되어 영국 내 타임뱅크 보급과 운영을 지원하는 허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2) 기능

○ 영국전역에 타임뱅크 보급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국 타임뱅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내 300여개의 타임뱅크가 타임뱅킹 UK의 회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타임뱅크 정보허브 : 실제 타임뱅크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회원으로 등록된 영국 내 타임뱅크 기관 관련 자료(데이터 및 사례)를 축적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회원기관들과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정보허브 역할을 한다. 2년을 주기로 타임뱅킹 컨퍼런스를 조직하여 전 세계 타임뱅크 근황 및 현안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②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센터 : 어떤 기관이나 지역사회가 타임뱅크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타임뱅크 회원 모집부터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되고 있는 타임뱅크의 코디네이터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사례연구회를 조직하고 개별 기관의 요청에 맞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③ 출판 및 컨설팅 : 타임뱅킹 관련 이론서나 지식정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출판물로 보급함으로써 타임뱅크의 철학을 대중에게 홍보한다. 타임뱅크 운영 출범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문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회원기관의 타임뱅킹의 실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보고서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회원 기관의 평가 및 모금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4절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작된 타임뱅크는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영국적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인 진화를 하게 된다. 같은 국가 안에서도 각 사례는 지역현장의 맥락을 반영하여 각기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한 사례들이 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임뱅크 운동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신뢰를 상당한 수준 축적해두었고, 타임뱅크 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범사례들임은 분명하다. 타임뱅크의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역의 맥락에 맞추어가며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들이라 볼 수 있다. 지역사회중심 교환과 특수목적 교환의 틀을 자유롭게 응용하여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진화시키고 있다. 그런 유연성과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타임뱅크의 중심가치와 코프러덕션을 추구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1시간=1타임 크레딧을 적용하는 기본을 존중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그러므로 경상북도 지역에 타임뱅크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 주목할 만한 시사점들을 위의 사례들에서 검토해 본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타임뱅크가 설립된 배경에는 지역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개인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데인카운티, 켄트, 러쉬그린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경제적 격차, 사회적 소외, 이웃의 고통,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특수한 경험이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기관, 종합복지관 등 그 기관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뉴욕의 아치케어 보건의료서비스는 뉴욕 주

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유료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한 돌봄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안목이 성공요인에 중대하게 작용한다. 영국의 스파이스 타임뱅크가 설립되었던 근저에는 웨일즈대학 연구소를 통해 유럽지역의 지역화폐를 연구했던 작업이 기초가 되었고, 그 경험에 영감을 받아 영국적인 새로운 모델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러쉬그린 진료소가 장기 외래환자들과 함께 타임뱅크를 파일럿한 덕분에 현재 영국 보건의료서비스에 타임뱅크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씨앗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셋째, 타임뱅크 운영에 드는 비용의 효율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뉴욕의 아치케어 타임뱅크와 영국의 스파이스를 제외한다면, 타임뱅크의 평균 정규직원 수는 1.5인이다. 단독 사무소를 가진 경우도 소수이다. 앞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타임뱅킹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과 기여를 인정하자는 운동이고, 그럼으로써 소외와 차별을 완화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므로 기존의 프로그램 예산에 코디네이팅 비용을 추가하고 코디네이터의 사무공간을 추가하는 정도로도 시작 가능한 것이다. 아치케어와 스파이스가 예외적인 가장 큰 원인은 두 타임뱅크가 취급하고 있는 회원 수의 규모에 있다고 보겠다. 아치케어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 이주민 · 노인이 주회원인 점, 아치케어 의료보건서비스 회원을 잠재적 타임뱅크 회원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위한 업무를 유사시에는 지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타임뱅크 회원 수를 훨씬 능가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스파이스는 지방정부의회가 주 고객이므로, 지방정부의회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시 또는 구 단위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하게 된다. 비용대비 그 임팩트와 효율성은 지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넷째,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먼저 언급

하였듯이 타임뱅크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었던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코프러덕션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유도하는 코디네이팅의 예술이 필수적이다. 미국 데인카운티와 켄트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회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아치케어의 코디네이터는 뉴욕지역에서 보건의료, 방문간호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후 타임뱅크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스파이스는 초기 설립멤버들과 함께 일하며 젊은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코디네이팅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리더십과 통찰과 실무력을 함께 갖춘 코디네이터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질을 갖춘 코디네이터 발굴과 동시에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뿐 아니라, 잠재력을 갖춘 젊은 리더를 발굴하여 코디네이터로 육성해 나가는 시스템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 영국에서 타임뱅크의 효과적 보급 및 운영에는 싱크탱크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수적이었다. 타임뱅크가 그 중심가치와 코프러덕션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지역밀착형 운동으로 존재하려면, 지속적인 사례연구와 자문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자에 대한 책무성을 유지하려면 타임뱅크의 효과로 시스템상의 변화, 사회 · 정서적 변화, 개인적 변화를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에 반해, 타임뱅크 코디네이터가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도의 기금으로 외부기관이 맡기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중앙 센터 역할을 하는 타임뱅킹 UK가 맡고 있다.

제4장 구미지역 타임뱅크 운영사례 및 FGI 분석결과

제1절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운영사례

1. 도입배경

현 사회적인 여건은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다양한 노인문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재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공서비스 정책의 한계와 위기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미지역에서는 '타임뱅크'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사랑고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동협력생산(Co - production)의 원리를 기반으로 사랑고리제도를 활용한 창업형 및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통합모델로 볼 수 있다.

구미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노노케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돌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노인돌봄모델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사랑고리(타임뱅크)을 통해 잠재적 재능, 시간 및 경륜을 발굴하는 방법과 타임뱅크의 공동협력생산(코프러덕션)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공동협력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랑고리 봉사의 수혜자는 단순히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참여와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랑고리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공공복지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타임뱅크는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기술 및 재능 등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적립된 타임달러는 자신과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타임뱅크는 당사자 간의 일회성 교환거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쇄적인 교환거래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타임뱅크의 원리를 적용한 사랑고리는 실제로 화폐거래가 발생하는 시장경계가 아니라 가족, 이웃 및 지역사회 나아가 시민사회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실제 화폐가 아니라 사랑, 친절, 돌봄, 동정과 격려 등의 심리적인 에너지로 작동되어 운영하는 형태이다. 또한 사랑고리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노동, 돌봄 등의 가치를 인정하며, 시장경제 균형과 호혜적이고 공동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랑고리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주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고,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제한 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기술, 재능을 사용하여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벌 수 있는 화폐이다. 다른 사람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공된 1시간의 봉사는 1고리로 사랑고리은행에 적립된다. 적립된 사랑고리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증하여 그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랑고리는 당사자 간의 일회적 교환거래가 아니라 어떤 개인과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 교환거래를 발생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사랑고리은행(타임뱅크)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고리 봉사의 실천을 통해 복지수혜자(일자리참여자, 지역취약계층)를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공급자로 전환하고자 한다.

둘째,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전인적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참여자와 노노케어 담당자, 지역봉사자 간의 사랑고리 봉사를 통하여 노노케어의 공공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넷째, 시장경제와 사랑, 돌봄, 우애 및 정의 등에 기반한 핵심(코어)경제의

공동협력생산(Co - production)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구하고자 한다.

사랑고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참여의 봉사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잠재적 봉사인력을 발굴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 및 단체들이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건강 및 공동체 증진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지원망 및 집단적 효력으로 사회적 노인공공복지 비용 및 의료복지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29. 사랑고리(타임뱅크)의 순환도

30. 사랑고리 발행 화폐

2.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운영체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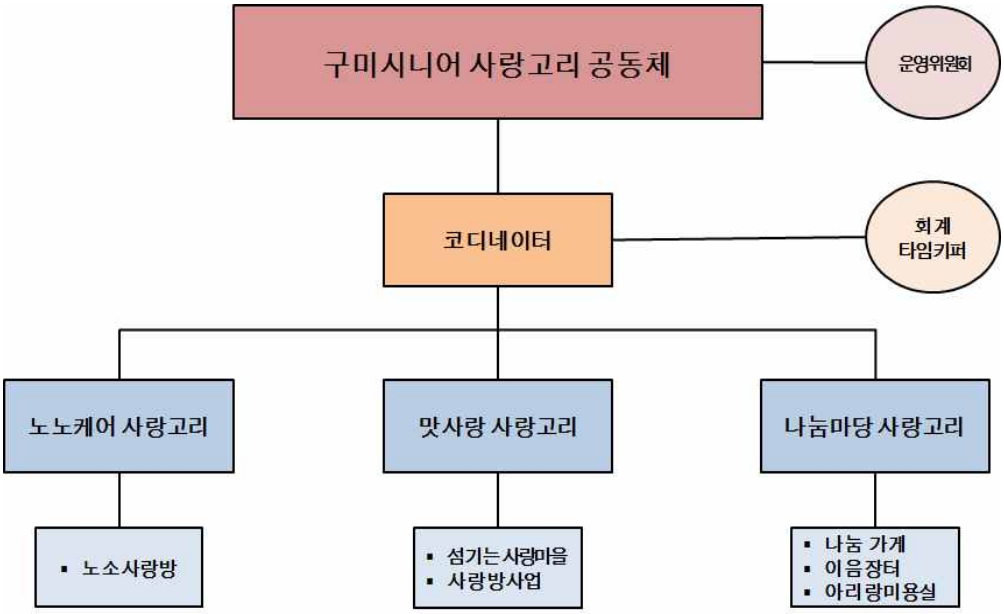


그림 31. 구미시니어 사랑고리은행 운영체계도

1) 노소사랑방 사랑고리 프로그램

(1) 개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노인자살, 외로움 및 고독사 등의 노인문제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자녀들의 돌봄을 공공지원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노인 및 아동의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의 고독사 및 아동의 돌봄 문제는 정부의 복지재정의 한계로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지원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사

회 차원에서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타임뱅크의 원리를 접목하여 적용한 것이 1 - 3세대 노소사랑방 프로그램이다. 사랑고리 운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소사랑방 프로그램은 아동과 노인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노소사랑방은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1 - 3세대 사랑고리 매칭사업이다.

노인과 아동의 문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문제로 상호상생관계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으며, 타임뱅크 시스템을 통하여 노인과 아동의 돌봄 및 나눔의 관계 등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노소사랑방 사랑고리가 원활이 추진된다면 공공의 복지재정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사랑방은 가까운 거리에 마련된 작은 쉼터에 매일같이 어르신들이 모여 삶을 나누는 공간이며, 정부의 서비스 자원 이외에 사랑고리 봉사와 접목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사업 활동은 사랑고리 봉사자에 의해 지원되고 있고, 이용어르신들 간 서로 돕는 연대망도 사랑고리 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어르신 간에 이동 동반, 말벗, 안부문안 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봉사로 인정해 줌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는 확보한 봉사 고리를 물건구입 또는 필요한 봉사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 목표

◇ 사랑고리 사랑방 사업 확대, 지역시민단체 · 자선기관 · 기업과의 협력관계 확대, 공공복지사업의 참여자 및 지역노인들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여 사랑고리 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배경

◇ 2005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내 복지형 사업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 내용

◇ 마을독거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고 말벗과 물리치료, 여가, 노래 등 여러 봉사와 노노케어가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사업이다.

(2) 추진방향 및 활동내용

노소사랑방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은 다음 내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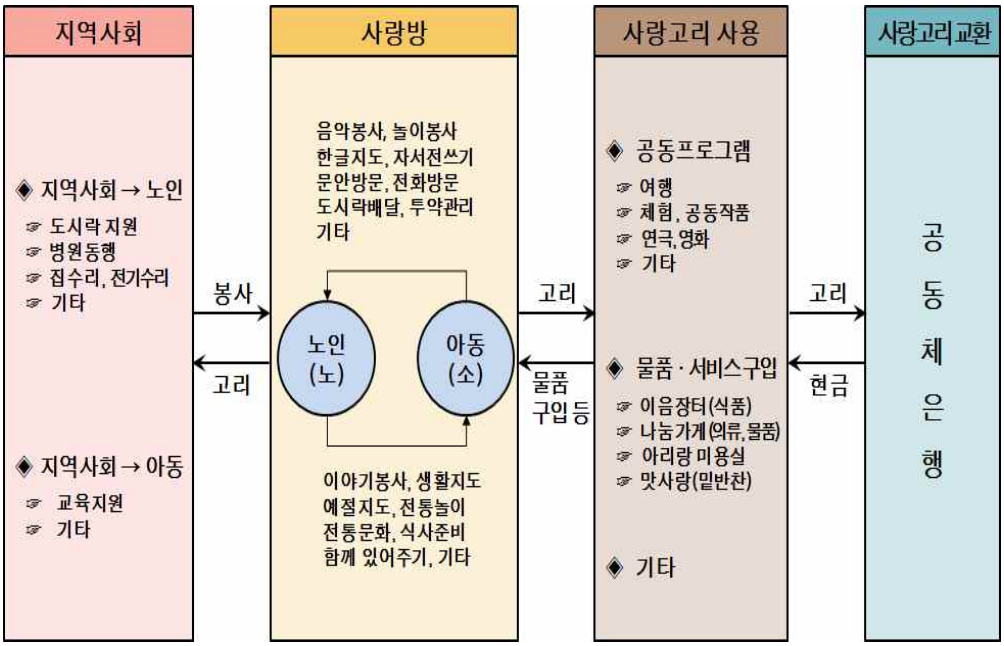


그림 32. 노소사랑방 추진체계

노소사랑방 프로그램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인 노인과 아동의 홍보를 위해 각 개인의 재능을 특성화하였고, 이들의 욕구를 발견하고

매치하여 교환하였다. 무엇보다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노인과 아동에게 홍호를 하였다. 이를 위한 수행도구는 홈페이지, DB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앱(IOS, 안드로이드), 포스터, 리플렛 등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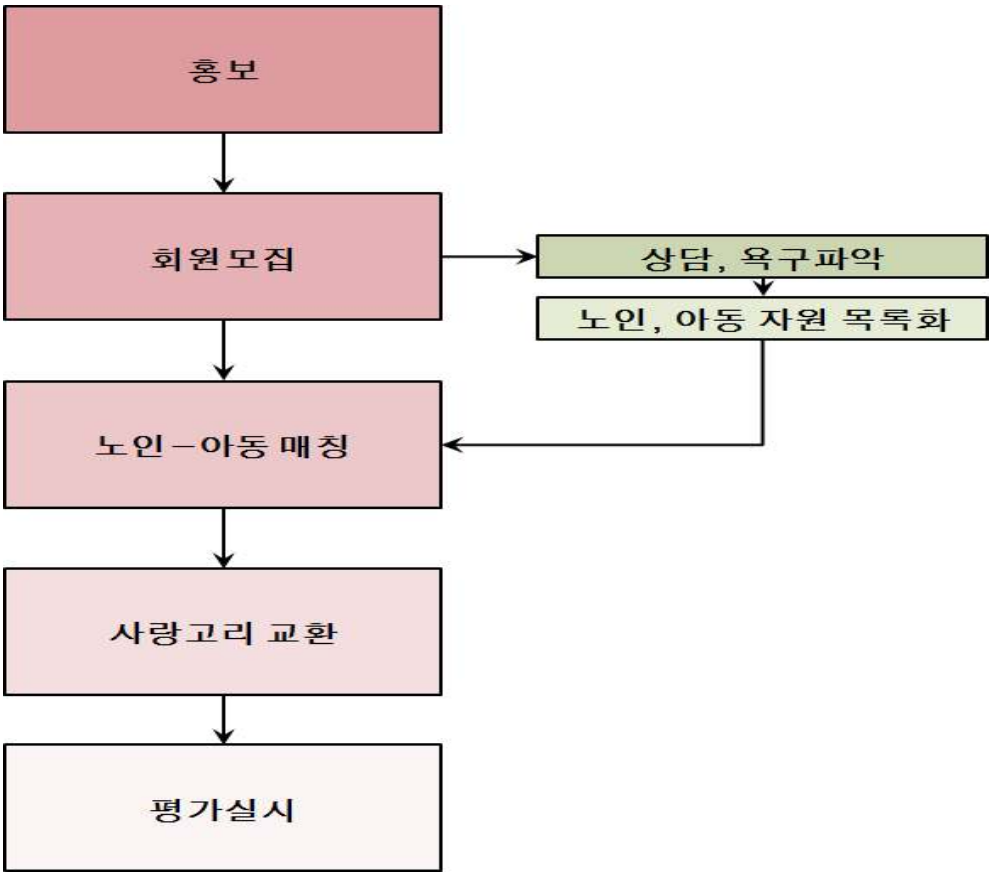


그림 33. 노소사랑방 추진전략

□ 기대효과

○ 사랑고리는 비공식적인 복지자원에 의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 사랑고리를 통하여 노인과 아동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1-3세대 사랑고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과 아동의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할 것이다.

○ 사회적 비용 및 복지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표 5. 노소사랑방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내용
활동목표	• 1-3세대 상호 호혜적인 돌봄망 구축 및 마을공동체 회복
운영형태	• 운영요일 : 월~토요일 • 운영시간 : 노인사랑방 10시~16시 / 아동·청소년 사랑방 15시~20시 • 재원확보 : 일반후원금, 제일로터리클럽, 그린로터리 클럽 후원금
운영방식	• 사랑고리 적용
활동내용	• 이용자 : 독거노인 19명 ☞ 중식제공, 이·미용서비스, 책읽어주기, 놀이프로그램, 말벗, 반찬조리봉사, 병원동행, 노인용품대여,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 이용자 : 아동 5명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학습지도, 문화 활동, 석식제공, 도시락봉사, 봉사교육, 체험(전통문화예술, 예절, 자연), 나들이, 청소년 멘토 연결 서비스 제공 • 참여인원 ☞ 청소년봉사자 8명, 지역사회봉사자 4명, 미용봉사자 6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

(3) 노소사랑방 활동사진

어르신 여가활동

호혜적인 윈윈 봉사　　청소년 멘토 연계

아동 도시락 배달봉사　　학습지도 장면

그림 34. 노소사랑방 활동사진

2) 맛사랑(사회적 기업) 사랑고리 프로그램

(1) 개요

2013년부터 맛사랑 사회적 기업 측에서 구미시 도량동 및 봉곡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밑반찬 서비스를 매주 금요일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받은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배달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밑반찬 사랑고리를 통하여 지역회원 간의 만남을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 목적

◇ 지역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사랑고리 봉사활동을 통한 자존감 증진, 밑반찬 제공으로 사랑고리 적용 활성화, 호혜적 봉사를 통한 돌봄망 구축, 코프러덕션을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등이다.

○ 목표

◇ 지역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의 봉사참여,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확대(100명 → 200명), 사랑고리 적용한 사회적 기업 사업모델 개발 등이다.

○ 기대효과

- 지역취약계층의 사랑고리사용(생활필수품 구입)으로 욕구충족
-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 협력단체간의 봉사참여로 사회문제 해결
- 취약계층 및 공공복지 참여자, 사회적 기업 직원의 건강증진 및 공동체성 향상
- 참여자 및 취약계층은 돌봄 봉사 수혜 가능
- 사회적 기업의 지역연대로 지역공동체 형성 도모

(2) 주요 활동내용

섬기는 사랑마을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은 다음 내용과 같다.

그림 35. 섬기는 사랑마을 추진체계

표 6. 섬기는 사랑마을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내용
활동목표	• 지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사랑고리 봉사활동을 통한 자존감 증진 • 밑반찬 제공으로 사랑고리 적용 활성화 • 상호봉사를 통한 돌봄망 구축
운영형태	• 운영요일 : 월~토요일 • 운영시간 : 11시~15시
운영방식	• 사랑고리 적용
활동내용	• 지역주민 : 밑반찬 배달봉사, 식재료 다듬기, 설거지 • 맛사랑 : 밑반찬 조리, 밑반찬 배달, 중식제공 • 이음장터 : 식재료 제공, 조리봉사 • 참가인원 : 총 22명(밑반찬 서비스 수혜자 11명, 지역봉사자 5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6명)

(3) 맛사랑 활동사진

밑반찬 봉사

식재료 다듬기 봉사

설거지 봉사

그림 36. 맛사랑 활동사진

3) 나눔마당 사랑고리 프로그램

(1) 나눔가게 사랑고리

○ **사업목표**

◇ 고령화 사회에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원의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환경보호에 이바지를 한다.

○ **참여대상** : 5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표 7. 나눔가게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내용
활동목표	• 사랑고리 연대로 공동협력생산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주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봉사로 사회적 자본 창출 • 사랑고리 가맹점 역할로 돌봄 지원망 형성
운영형태	• 운영요일 : 월~토요일 • 운영시간 : 9시~18시
운영방식	• 사랑고리 적용
활동내용	• 지역봉사자(매장정리봉사, 매장관리 봉사, 수거봉사)에게 생필품 교환, 매장 임대, 매장판매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수혜대상 : 지역봉사자 33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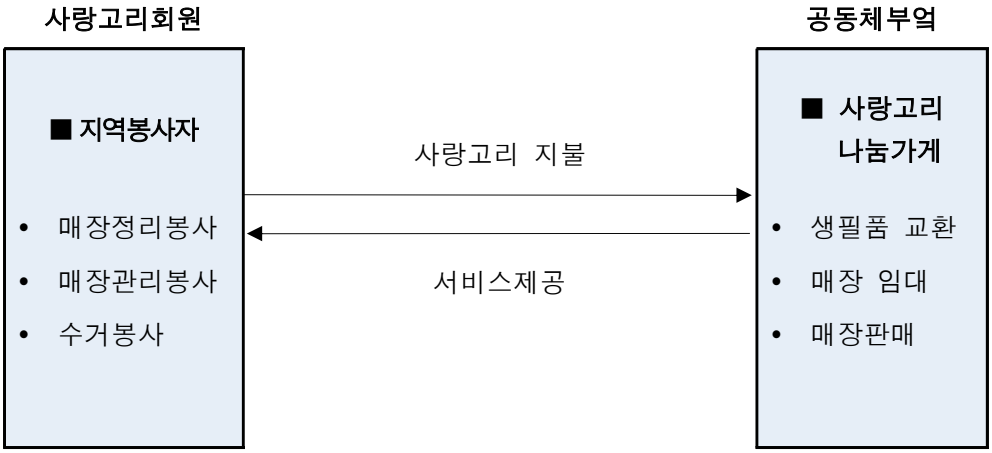


그림 37. 나눔가게 추진체계

매장 임대 봉사

매장정리 봉사

그림 38. 나눔가게 활동사진

(2) 이음장터 사랑고리

표 8. 이음장터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내용
활동목표	• 지역순환형 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사랑고리 가맹점 역할로 돌봄 지원망 형성
운영형태	• 운영요일 : 월~토요일 • 운영시간 : 9시~18시
운영방식	• 사랑고리 적용
활동내용	• 사랑고리 봉사자(매장정리 봉사, 매장관리 봉사, 배달봉사)에게 식재료 교환 및 매장판매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수혜자 : 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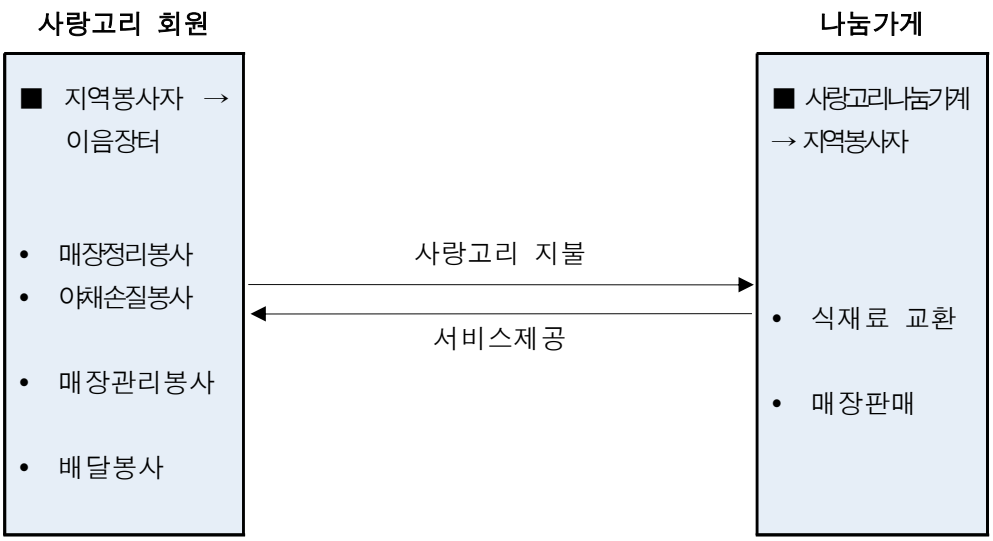


그림 39. 이음장터 추진체계

야채손질 봉사

매장정리 봉사

그림 40. 이음장터 활동사진

(3) 아리랑미용실 사랑고리

표 9. 아리랑미용실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내용
활동목표	• 시니어의 미용욕구 충족과 지역사회의 사랑방으로서 소통 • 미용을 통한 소외된 이웃과 함께 마을공동체 회복 기여
운영형태	• 운영요일 : 월~토요일 • 운영시간 : 9시 30분~17시 30분
운영방식	• 사랑고리 적용
활동내용	• 노소사랑방 봉사자들에게 이 · 미용(컷트, 파마, 염색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수혜자 :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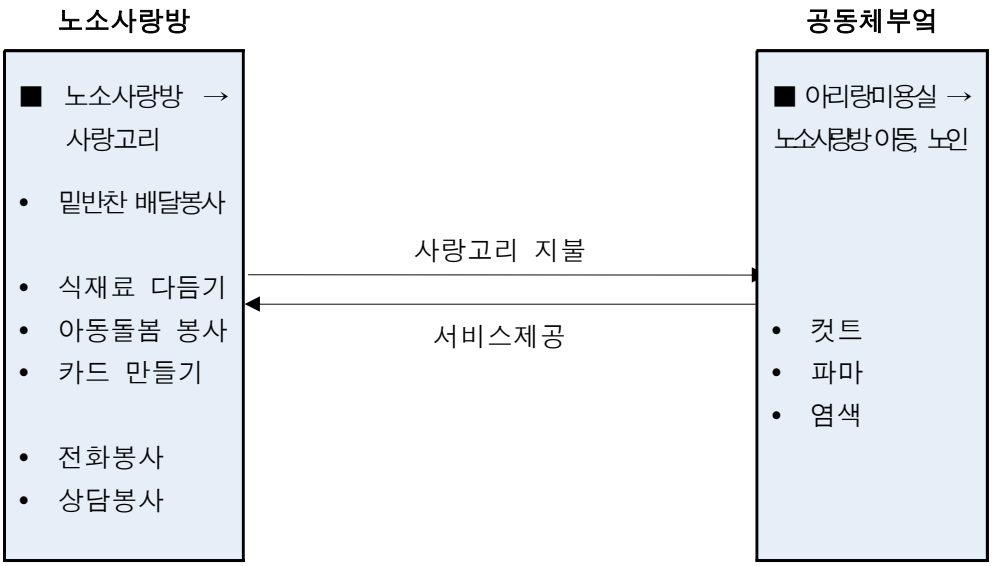


그림 41. 아리랑미용실 추진체계

아리랑미용실 사랑고리 사용

사랑고리 교환

그림 42. 아리랑미용실 활동사진

(4) 공동체부엌 사랑고리

표 10. 공동체부엌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내용
활동목표	• 요리체험, 조리봉사를 통한 독거노인 식생활 지원 • 사랑고리 연대로 공동협력생산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주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봉사로 사회적 자본 확충 • 사랑고리 가맹점 역할로 돌봄 지원망 형성
운영형태	• 운영요일 : 월~토요일 • 운영시간 : 9시~18시
운영방식	• 사랑고리 적용
활동내용	• 조리봉사, 배달봉사, 차량봉사, 병원동행봉사, 매장관리봉사, 웃음치료, 수거봉사 등의 봉사를 통한 사랑고리를 확보한 대상자에게 요리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수혜자 : 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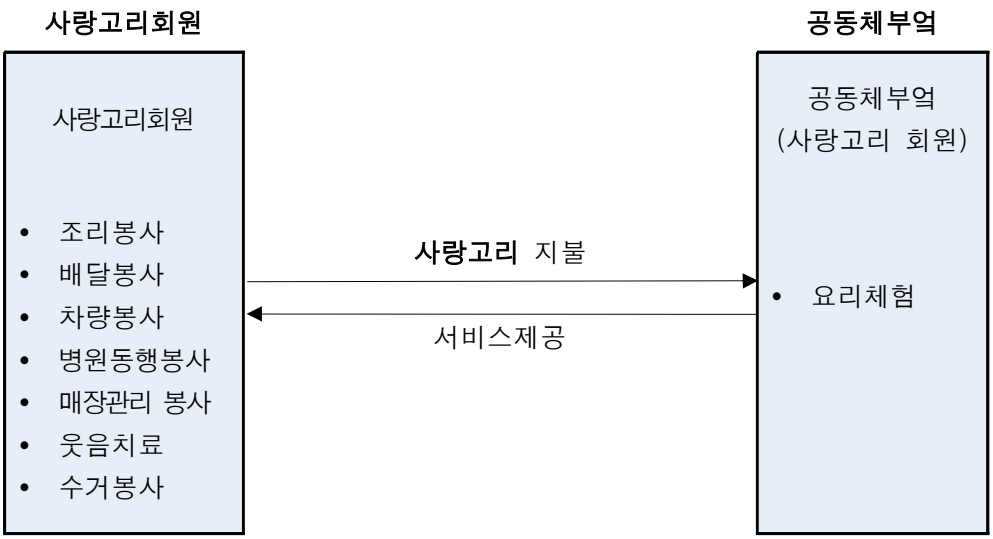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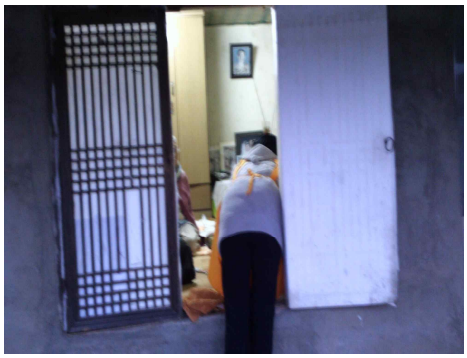


그림 43. 공동체부엌 추진체계

조리 봉사



배달 봉사

요리체험교실

그림 44. 공동체부엌 활동사진

제2절 현장전문가 및 참여자 FGI 분석결과

1. 개요

본 장에서는 국내의 타임뱅크 운영 현장의 증언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타임뱅크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구미요한선교센터의 사랑고리은행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청춘은행의 실무자와 참여자이다. 구미 사랑고리는 정식출범 이후 13년차에 접어들고 있어 도입 시기부터 성숙 단계까지의 과정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사례이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청춘은행은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화폐 수행의 경험과 지역 내 한밭레츠 다자간 품앗이 사례의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청춘은행의 경험을 통해 현재 지역에서의 타임뱅크 도입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조사 기관 타임뱅크 관련 현황 및 특성

(1) 사랑고리은행

구미의 타임뱅크인 사랑고리은행은 구미요한선교센터 김요나단 신부가 2002년 미국에서 창시자 에드가 칸(Edgar Cahn) 박사로부터 직접 도입했다(김성훈, 2011). 구미요한선교센터는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가정간호와 재활봉사사업에 사랑고리은행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4년 정식 출범한 뒤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4년 ‘어린이 공부방’ 사랑고리 활동과 타임뱅크 서적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No More Throw Away People)」(에드가 칸 저)를 번역 출판하였으며, 2005년에는 미국 타임달러 연구소 대표 에드가 칸 교수를 초청하여 대구와 서울 지역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해평면 지역에서 ‘지

역사랑고리’ 운동을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사랑고리나눔가게를 신평, 황상 지역에 개점하며 사랑고리 운동을 전개하였다(구미시니어클럽, 2016). 구미시니어클럽에 사랑고리 운동이 적용된 것은, 2012년 시장형 노인일자리 ‘맛담은 우리음식’ 사업단이 방학기간동안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도시락지원사업’에 사랑고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구미요한선교센터가 2004년, 구미요한선교센터 운영 기관인 구미시니어클럽이 2012년 타임뱅크 체계를 도입한 목적은 지속적인 수혜자로 머물게 만드는 기존 공공 또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소진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의 공급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돌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구미시니어클럽, 2016).

사랑고리의 시행 목적은 첫째, 복지수혜자(일자리참여자, 지역취약계층 노인)를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기여자로의 전환, 둘째,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전인적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셋째, 참여자와 노노케어 내담자, 지역봉사자의 사랑고리 봉사를 통해 공공복지사업(노노케어)의 효율성 극대화,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와 사랑, 돌봄, 우애, 정의 등에 기반한 핵심경제의 협력공생(Co-production)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있다(구미시니어클럽, 2016).

사랑고리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고리’와 구미요한선교센터가 보건복지부 사업기관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구미시니어클럽 내에서 운영되는 ‘시니어사랑고리’ 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랑고리’는 노인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이용자 노인 간 연대망을 만드는 함께하는 집, 청소년 봉사단인 청소년 사랑고리,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밑반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섬기는 사랑마을 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니어사랑고리’는 구미시니어클럽 초기부터 진행

해 온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일자리 참여 이후 노인돌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노인돌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에서 2012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에 사랑고리를 적용하며 시작되었다(구미시니어클럽, 2016). '시니어사랑고리'는 노인에게 식사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 간 소통과 정서 교류를 지원하는 노노케어사랑방,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분리, 수선, 판매하는 나눔가게, 지역의 농산물과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음장터, 미용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그림 참조). 사랑고리의 교환처는 ㈜맛사랑, 나눔가게, 이음장터이며 그 외에 개인 간 교환이 이루어진다. 각 프로그램들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일자리 제공의 기능과 노인 공동체 조성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사랑고리와 시니어사랑고리는 별도로 운영되어 별도의 계정에 기록·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각 고리 간 자원봉사가 가능하며, 고리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사랑고리는 최초 가입신청에서 시작된다. 가입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봉사 내용과 받고 싶은 봉사 내용에 기반하여 매칭·교환된다. 제공된 봉사 1시간은 1고리를 기본으로 하며, 적립된 고리는 사랑고리 교환처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기여자의 도움과 교환할 수 있다. 사랑고리은행 초반 운영 당시에는 교환되는 행위의 종류별(말벗, 병원동행, 목욕 도움 등)로 교환 가치(고리)를 상정해 두었으나(예, 목욕봉사=3고리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움을 받는 당사자 상호간의 인정에 따라 교환 가치를 상정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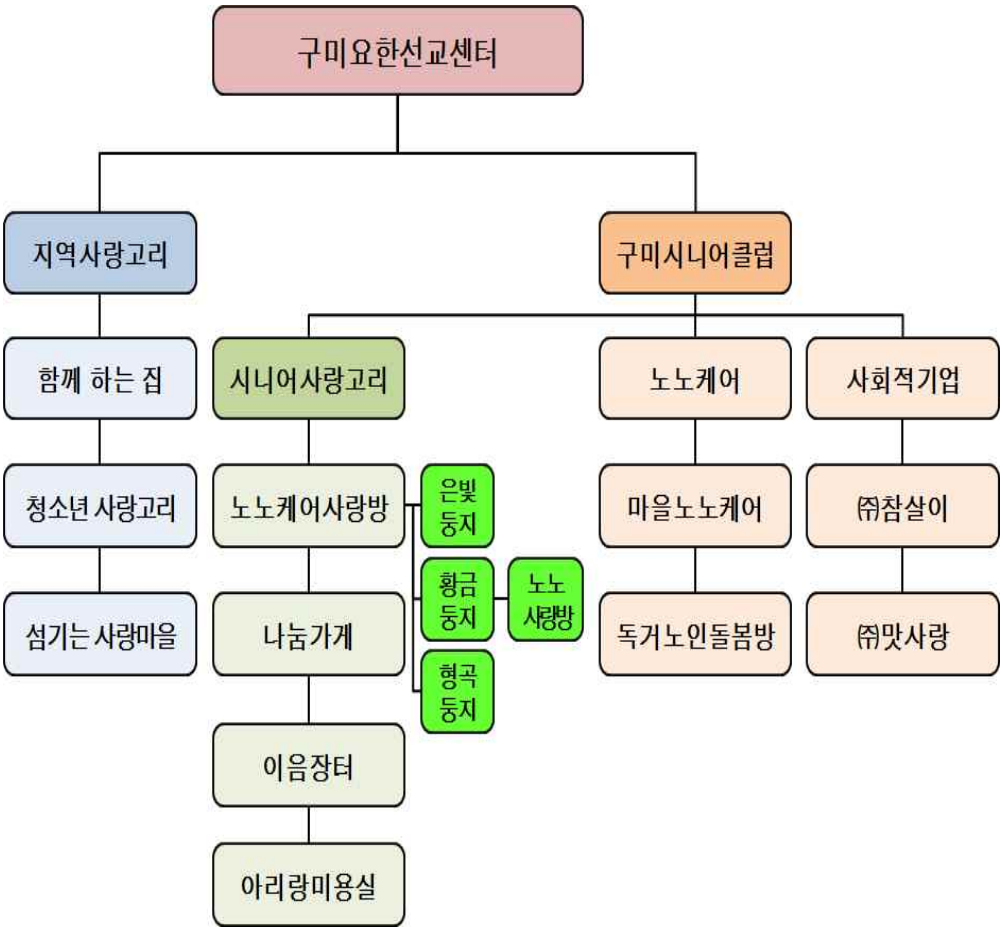


그림 45. 구미 사랑고리 작동 범위

참여자의 재능을 발굴하거나 개인 간의 도움 교환을 매칭하고, 이들 간 사랑고리 교환 내역을 기록하는 코디네이터는 총 4명이다. 사랑고리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코디네이터는 위계적 관리체계에 따른 별도의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사업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장 및 책임자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코디네이터 역할과 관련하여 이사장 김요나단 신부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의 필요와 공급을 연결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사랑고리 도입을 통해 구미시니어클럽 내 참여자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참여자 간 유대와 상호 호혜적 돌봄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타임뱅크 본연의 가치가 사회복지 급여 수혜 대상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 청춘은행

청춘은행은 대전에 소재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하고 있는 시간품앗이 시스템(타임뱅크)이다. 현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받아 노인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금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노인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간 상호돌봄 체계 방안을 모색하던 중 타임뱅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대전 지역에는 2000년부터 공동체 화폐 거래소 운영단체인 '한밭레츠'를 통해 지역주민 간 상호호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공동체 화폐인 '두루'와 연계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들레의교복지사회적협동조합 또한 건강화폐인 '조각'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내 상호호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춘은행을 도입한데에는 노인들이 다른 주민들과 상호호혜를 교환할 수 있는 접근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상호호혜에 노인이 포함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춘은행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상호돌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타임뱅크 도입 초기엔 1단계로서 노인 간 상호돌봄,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인 간의 돌봄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당시 부터 지역주민과 특히 노인들에게 청춘은행의 가치와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고리와 같이 이미 사회복지 사업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 참여자들을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 참여 동기를 유인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 정립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 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잘 상상이 안 되거나 받아들이거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송○○)

청춘은행의 타임크레딧 명칭은 ‘봄’으로, 1봄 당 기여 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환 가치는 수혜를 받는 사람의 인정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이다.

> “ ‘봄’이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한 것은 살펴봄, 돌봄의 의미도 있고, ‘청춘’ 개념도 (포함되어) 있죠. 어르신들은 ‘지금’, ‘오늘’이 항상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젊었을 때 시간을 저축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이후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청춘은행’, ‘청춘을 저축한다.’ 이렇게 썼었고, (그래서) 화폐단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봄’을 썼죠.” (송○○)

> “결국엔 두 사람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예를 들면, 1시간 활동에도 노동 강도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고마운 마음이 더 생겼다거나 한다면 그 둘의 당사자들한테 맡겨 놓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1시간을 했지만 2봄을 줄 수 있는 거죠.” (송○○)

또한 교환 대상은 현재로서는 노동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재화를 교환 대상으로 포함할 때의 교환 가치 설정에 대한 어려움과 실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처의 확보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물건을 교환한다고 하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매길 것이냐, 노

동력과 실제 화폐적 가치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가 쟁점이었어요. (조합)의료기관에서 이용한다고 할 때도 진료비가 있는데 1봄을 얼마로 쳐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봄을) 가격으로 매기는 순간 시간의 가치를 매겨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있는 것이고요. …(중략)… 봄을 받고 물건을 파는 가게라든지 개인단지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열어놓으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현재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송○○)

청춘은행은 1차적으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회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이유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적용할 경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타임뱅크 시스템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에 대응 가능한 범위를 적정 수준 확보하기 위함이다. 당사자 간 교환은 대부분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된 기존 조합원을 1차적 적용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초반에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에, 참여자가 밀려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 대처할 수 있을까, 아직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문제들을 (적용대상을) 한 번에 넓혔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에서…(중략)…" (송○○)

청춘은행은 현재 이와 같이 기본 운영 매뉴얼과 참여 가능 대상, 교환대상 및 가치를 확정하였고, 별도의 기금활동을 통해 온라인 운영 시스템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온라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최종 목표인 지역사회 전체의 상호호혜 체계 마련을 위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직원이 타임뱅크

운영·관리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 부담과 코디네이터 채용을 위한 별도의 자금 조달에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임뱅크 운영 목표 1단계 대상인 노인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웹 기반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생각했던 타겟이 어르신들이었는데 또 이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어요.” (송○○)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인력이 타임뱅크 운영을 담당하는데 대한 업무 과중 문제, 별도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데 대한 인건비 조달의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랑고리를 지급을 통해 활동하는 다수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 청춘은행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해결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지역 내 존재하는 한밭레츠의 ‘두루’와의 교환 문제 및 화폐가치와의 거래 단위 설정, 운영관리 인력, 욕구와 기여의 발굴 및 그 차이의 발생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 참여대상자 특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하는 대상은 타임뱅크 운영 조직인 구미의 사랑고리와 대전 청춘은행의 현장 전문가와 현재 타임뱅크가 운영되고 있는 사랑고리의 참여자이다. 현장전문가와 참여자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는 각 집단별로 진행되었다.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사랑고리 현장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시행 전인 청춘은행은 기획담당자 1명과 개별 인터뷰로 진행

되었다.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참여내역

지역	연번	참여자	소속
구미	1	이○○	구미요한선교센터
	2	박○○	구미시니어클럽
	3	황○○	구미시니어클럽
	4	임○○	구미시니어클럽
	5	김○○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6	방○○	강사
	7	최○○	구미요한선교센터
	8	이○○	구미시니어클럽
	9	김○○	구미요한선교센터
	10	권○○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대전	11	송○○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랑고리의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는 총 11명으로, 참여자 중 10명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시니어클럽 실무자의 안내를 통해 연계된 경우였고, 1명은 사랑고리 봉사사업 중 하나인 해평음식나눔방의 도시락 배달을 받던 수혜자가 도시락 배달에 동참하게 되면서 사랑고리 참여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참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12).

표 12.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참여내역

연번	성명	연령	성별	참여경로
1	장○○	69세	남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2	장○○	73세	남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3	김○○	68세	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4	장○○	76세	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5	손○○	73세	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6	박○○	80세	남	도시락 배달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전환
7	김○○	81세	남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8	김○○	74세	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9	김○○	70세	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10	장○○	72세	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11	박○○	71세	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타임뱅크 운영 현장의 증언들을 통해 타임뱅크 운영 과정과 그 영향, 제약사항들을 이해하고, 타임뱅크 운영모형 발견과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타임뱅크 운영과 관련한 현장 전문가, 타임뱅크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표에 제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경험과 생각을 토론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선택하였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현장전문가 및 참여자의 심층적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은 녹취되었다. 작성된 녹취록은 개방코딩(open coding)하여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는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범주화된 내용을 관련 주제별로 분석, 정리하였다.

표 13.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내용

1. 타임뱅크는 어떠한 경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2. 타임뱅크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어떠한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3. 타임뱅크 참여가 다른 복지기관 활동과 다르다고 체감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4. 타임뱅크 참여과정에서 만족스런 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점에서 만족하셨습니까?
5. 타임뱅크 참여과정에서 불만스런 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점에서 불만이었습니까?
6. 타임뱅크 참여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이웃공동체(사람)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 지역사회(공간)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삶의 의미, 삶의 가치관, 인생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7. 타임뱅크 현 운영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타임뱅크가 앞으로도 잘 운영되려면, 어떠한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임뱅크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14.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내용

1. 타임뱅크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어떠한 목표와 변화기대를 갖고 도입을 기획하셨습니까?
2. 타임뱅크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타임뱅크의 작동지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 참여자 확대 전략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 홍보 전략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 운영 매뉴얼과 인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운영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타임뱅크의 지속가능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3. 타임뱅크를 추진하는 시작단계에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4. 타임뱅크 운영할 때, 가장 역점을 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단계별(초기단계, 정착단계, 성장단계 등)로 역점을 둔 점이 달랐었다면, 단계별로 역점을 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5. 타임뱅크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단계별로 어려운 점이 달랐었다면, 단계별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6. 타임뱅크 운영이 기존 지역사회조직(자원봉사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협력이나 연계가 이루어졌습니까?
7. 타임뱅크 운영하면서 기획당시 생각과 가장 동떨어진 현실의 벽은 무엇이었습니까?
8. 타임뱅크를 운영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 타임뱅크 기획당시 목표로 했던 변화 기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시민의 공동체성 제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 지역의 사회적 자본 증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9. 지금까지 타임뱅크 운영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 타임뱅크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성공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한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해당 지역의 타임뱅크 성공적(또는 시행착오) 경험 중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기인하는 부분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12. 타임뱅크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한다고 할 때,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2. 현장전문가 FGI 분석결과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분석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도입동기	기존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 및 상호 돌봄의 필요성 인식	•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자는 의존성과 무력감 • 자원봉사자의 소진 및 수직적 관계의 유지 • 일방적 기여자 수혜자의 분리 • 노인 돌봄 사각지대로 인한 노인 간 상호 돌봄 체계 모색의 필요성 인식
타임뱅크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	타임뱅크 작동 범위 및 대상	• 사랑고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심의 복지급여와의 결합 모형 –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기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여 유인 • 청춘은행 : 기존 조합원과 노인의 참여를 통해 거래 활성화 후 지역으로 확산시킬 예정
	운영 인력	• 사랑고리 : 기존 복지사업 관리 책임자의 코디네이터로 역할 수행 • 청춘은행 : 온라인 운영체계 중심의 운영으로 기존 인력의 부가적 업무 수행(전담인력 배치 배제)
	교환방식 및 가치 단위	• 사랑고리 : 기여활동 1시간=1고리=1만원 • 청춘은행 : 기여활동 1시간=1봄 • 공통점 : 수혜자의 가치 인정에 따른 교환가치 설정
	사업대상 (노동 및 재화)	• 사랑고리 : 노동, 재화 • 청춘은행 : 노동 – 타임크레딧을 재화로 교환할 때 개입되는 시장가치의 적용에 대한 갈등과 사용처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노동력만을 기본 거래 대상으로 설정

표 15.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분석내용(계속)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타임뱅크 운영과정의 어려움	타임뱅크 운영 가치인 코프러덕션(co-production)에 대한 인식 미흡		• 1:1 일방향의 대인봉사 개념의 탈피 부족 • 단순한 품앗이 개념으로 인식 • 인식 미흡으로 인한 참여자 자원발굴과 연계의 어려움.
	지역사회로의 확산의 한계 : 사회복지사업과의 접목의 한계		• 기존의 시혜적 자원봉사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함. • 참여자들의 코프러덕션의 가치 공유 구조 미흡 • 참여자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다양성 미흡 • 기여자와 수혜자의 욕구 불일치 • 다양한 교환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 인식
	코디네이터의 업무 과중		• 담당 업무 외에 코디네이터(타임크레딧의 교환 연계(욕구 발굴 포함), 자원봉사자 역할) 역할을 함께 하는데 따르는 업무 과중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사 기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 유사 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 중복 문제
타임뱅크로 인한 변화 및 운영성과	실무자의 인식 변화	참여자의 문제에서 참여자의 자산(재능) 발견으로의 초점 변화	• 복지수혜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복지수혜 대상이 기여자가 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발견 • 노인,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마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발견 • 참여자를 복지 대상으로 보던 인식에서 동등한 관계로 인식, 참여자의 자원 발견에 중점
		주 업무와의 갈등→사업 안정화의 윤활유	• 주 업무와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갈등, 부과업무라는 인식에서 주 업무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참여자에 대한 깊은 이해 가능, 참여자의 자존감 증진을 통한 사업 참여의 적극성)

표 15.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분석내용(계속)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타임뱅크로 인한 변화 및 운영성과(계속)	참여자의 삶의 변화	• 참여자의 자존감 및 정서 회복
	공동체적 상호호혜의 선순환 체계 마련	• 복지대상자의 기여자로서의 전환/활동 → 조직화를 통해 친교 발생 → 새로운 돌봄의 교환 발생 • 경험에 기반한 참여자의 상호 호혜적 공동체 의식 회복 • 지역사회의 돌봄 욕구의 발굴과 돌봄의 수행 주체로서의 역할 확대 –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욕구를 발굴하여 돌봄을 제공한 ‘노소사랑방’ 운영 사례
타임뱅크 성공 요인	지속적인 타임뱅크 운영 의지	• 초기 실패 경험에도 불구,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임을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운영
	복지사업과 결합한 연계·확장 전력	• 시행 초기의 안정적 참여자 확보 가능 • 상대적으로 타임뱅크 운영원리에 대한 학습이 신속히 이루어짐. • 이를 통한 성과는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기제로 활용됨.
	참여자 간 선신뢰 확보	• 기존의 조직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적용으로 상호호혜의 기반인 참여자 간 선신뢰 확보
	상호호혜의 실천과 경험	• 실제 관계를 통한 상호돌봄과 호혜의 의미와 가치 습득
타임뱅크의 과제	복지사업과의 결합 모형의 한계 극복	• 코프러덕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구조의 한계 극복 • 참여자 자신의 기여 가치에 대한 인식 • 기존 자원봉사 인식의 탈피 • 참여자 및 교환 가치의 다양성 모색
	타임뱅크 운영 원리의 이해	•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현황 및 문제와 부합하는 기획 및 전략 수립
	지역사회 확산	• 지역 내 주민, 단체, 기업들을 연계·참여시켜 상호호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지역운동으로서의 접근

1) 타임뱅크 도입 동기 : 기존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 문제 해결의 도구

구미요한선교센터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공통적인 타임뱅크 도입 계기는 기존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의 수단으로 타임뱅크가 도입되었다.

구미요한선교센터의 경우, 1995년 개소 당시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키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훈련과 재활전문의 등을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도 수혜자는 여전히 의존성와 무력감을 보이고, 초기 상당한 열정을 지녔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소진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에도 구미요한선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시니어클럽 관장은 기존의 일방적 자원봉사 방식의 수직적 관계와 일방적 관계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저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공자와 수혜자들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주는 사람은 주기만하고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데 …(중략)… 인간은 주기만 하거나 또는 받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중략)… 우리가 베푸는 시혜적 봉사가 그들(수혜자)의 자비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이○○)

구미요한선교센터는 이러한 기존 자원봉사의 결함을 개선하여 지역 노인문제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2002년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정받았다. 상대적으로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진 노인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사업을 지정받게 된 것이다.

"구미시니어클럽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의 결함을 회개 하려고 시니어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생산적인 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중략)… 노인들이 한 달에 30시간 일을 하면 20만원을 줍니다. 노인들 시간이 많거든요. 그 노인들의 자원을 쓰자는 것이 시니어클럽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재능, 경험, 그 분들의 모든 것을 활용하면, 20만원을 주고 한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니어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구미시니어클럽은 굉장히 독특한 시니어클럽이었습니다. 자원봉사 기회를 이분들에게 줄 수 있고 이분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9-김○○)

이러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던 중, 세계자원봉사협의회장(IAVE) 이강현 박사를 통해 에드거 칸(Edgar Cahn)과 연결되어 타임뱅크를 도입하게 되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업인 '어르신 주치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 되면 지역사회 안에서의 노인돌봄 체계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 간 상호돌봄 시스템을 고려 중 타임뱅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노인 간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과 지역사회의 상호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타임뱅크가 차용된 것이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노인을 상호돌봄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저희가 어르신 주치의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공동모금회에서 자금이 빠지거나 아님 민들레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르신들끼리 서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화폐방식이 건강화폐 외에 별도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쉽게 벌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 어르신들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상호부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 고려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중략)… 어르신들이 한밭레츠에서 두루로 벌 수 있는 게 많이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본인이 특별하게 뭔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타임뱅크 사례가 있어서 그걸 도입을 하게 됐어요." (11-송○○)

이렇게 두 지역의 타임뱅크 시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노인과 복지 수혜자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상호호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상호호혜가 가능해지는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있다. 즉, 타임뱅크가 상호 호혜적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주목한 것이다.

2) 타임뱅크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들

(1) 타임뱅크 작동 범위 및 대상

사랑고리는 대구 지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니어사랑고리는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사랑고리로 구미시니어클럽의 참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즉, 시니어사랑고리는 구미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및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노인을 사랑고리 활동으로 연계한 것으로, 복지급여와 타임뱅크를 결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시간 외의 시간을 다른 참여자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이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급여 수혜자인 동시에 돌봄을 제공하는 기여자가 되는 것이다.

청춘은행은 최종적으로는 대전 인접 시도까지를 작동 범위로 상정하고 있으나, 착수 단계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회원에 한하여 타임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차적인 적용 대상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간 돌봄이지만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돌봄 체계 마련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

단계는 노인 간 상호돌봄, 그 다음 2단계는 지역사회와 노인 간의 돌봄으로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즉, 노인이 지역사회 상호호혜 구성원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첫 단계로 노인 간 상호돌봄 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타임뱅크는 기존 운영 중인 사업이나 조직 단위에 접목하여 작은 범위에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접목의 정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구미의 사랑고리는 정부 재정지원 복지사업과 접목하여 민간의 자발적 상호호혜를 조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즉, 기존의 재정지원 복지사업의 참여자와 인력을 활용하여 타임뱅크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대전의 청춘은행은 타임뱅크의 이념과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조직에서 시작되었지만, 인적, 재정적 기반 없이 타임뱅크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타임뱅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조달, 참여자 모집 등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타임뱅크는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기반 활용은 초기단계 활용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도입 초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작은 단위로 운영할 경우 타임뱅크 가치와 원리에 대한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직 내 참여자의 가치 있는 경험이 참여자의 확대와 타임뱅크를 홍보하는데 주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타임뱅크를 운영하기 위한 물적·인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2) 운영 인력 :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는 참여자 간의 자원과 욕구를 연계하고 교환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것 외에도 회원 개인 및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발굴하여 교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랑고리의 경우, 기관의 관장, 사업단 운영 팀장 4명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즉, 본연의 복지사업의 운영·관리 업무에 코디네이터 역할

을 부가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사랑고리의 코디네이터는 위계적 관리체계에 따라 부여된 직위가 아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의 필요와 공급 사이에서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코디네이터는 사랑고리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사랑고리에서는 관리(management)의 의미가 약합니다. 조직 안에서 순환시키는 역할과 다양한 것을 코디네이트(co-ordinate)하는 역할만이 있습니다. …(중략)… 개인 대 개인의 재능을 보고 교환해 주고, 전문성을 지닌 단체를 연결해주는 역할, 결국 연결입니다. 인간관계는 '관리' 차원이 아닌 '연결'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9-김○○)

현재 기획·준비단계에 있는 청춘은행은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조달 문제로 인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진술했다. 조합원 회비를 통한 인건비 조달 방식, 인건비 마련을 위한 별도의 기금 마련, 타임크레딧 제공을 통한 다수의 코디네이터 운영 등이 고려 방안들이다. 청춘은행도 자원과 욕구의 발굴 측면에서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병행하는데 대한 부담감으로 고려된 대안들이다.

조합원 회비나 별도 기금지원을 통한 인건비 조달 방식은 전담인력이 연계의 관리와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인건비 조달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장점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반면 타임크레딧 제공을 통한 다수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지만, 다수의 인력을 총괄하고 타임뱅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까지는 인건비 조달의 부담으로 인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3) 교환방식 및 가치 단위

사랑고리는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형성된다. 가입신청서에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여활동과 제공 받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면, 코디네이터가 이를 기반으로 교환 당사자들을 연계한다. 사랑고리의 화폐단위인 '고리'의 적립과 사용이 일어나는 교환 발생에 관한 기록은 각 코디네이터가 기록하며, 매월 사랑고리은행 담당자에게 보고되어 개인별 계정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동적 시스템은 코디네이터가 사랑고리의 교환 여부를 인지해야만 적립이 가능한 구조이며, 참여자가 즉각적으로 계좌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구미요한선교센터는 지역사랑고리와 시니어사랑고리를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개인의 지역사랑고리 계정과 시니어사랑고리 계정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두 개의 사랑고리는 공용하여 사용이 가능함에도 통합계정 확인과 사용에 번거로움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타임뱅크의 커뮤니티 웨버(Community Weaver) 시스템을 도입하여 두 사랑고리 간 합산·호환 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청춘은행 또한 회원가입 신청서에 간략한 자신의 소개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기입한다. 청춘은행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온라인 타임뱅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참여자 본인의 거래정보 확인, 참여자들의 교환 후기 및 평가, 참여자 간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은 직접 검색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자원이나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공개 수준은 참여자 개인이 설정할 수 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테스트 중에 있다.

사랑고리의 가치 단위는 기여활동 1시간 당 1고리이며, 재화 구매 시 1만원=1고리에 해당한다. 청춘은행 또한 기여활동 1시간 당 1봄을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재화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유는 다음 사업대상에서 기술할 것이다. 사랑고리는 기본적으로 기

여활동의 종류별(예, 목욕봉사=3고리 등)로 가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점차 교환 당사자 간 특히, 수혜자의 인정에 의한 가치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청춘은 이러한 사랑고리의 경험과 지역 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화폐 교환의 사례를 기반으로 청춘은행은 교환 자원의 종류에 대한 공동체 화폐가치를 규정하지 않고 “1시간=1봄”의 원칙하에 당사자 간의 인정에 따른 공동체 화폐 교환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랑고리는 타인에게 기증할 수 있는 구조여서 수혜를 받고자 할 때 고리가 없더라도 기증을 통해 고리를 축적할 수 있다. 반면 청춘은행에서는 ‘마이너스 계정’을 설정하고 있다. 타임뱅크 시스템이 시작되는 시점에 참여자 간 교환이 이루어질 때 “0”계정인 상태에서 누군가의 기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계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는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 주체와 관리 문제로 인해 ‘마이너스 계정’을 도입한 것이다. 회원가입신청서에는 회원탈퇴 시 ‘0계정’ 상태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확인될 것이다.

(4) 사업대상 : 노동과 재화

타임달러는 시장경제 영역이 아닌 비시장경제 영역을 재구축하는 것(한성일, 2015)으로, 화폐의 교환 가치가 아닌 유대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돌봄, 나눔, 상호호혜 등의 가치가 교환되는 것이다. 이때 교환 대상이 재화가 되는 경우 시장경제의 화폐가치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가치에 의해 교환될 것인가가 타임뱅크 운영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이 된다.

청춘은행은 타임뱅크 운영기획 단계부터 타임크레딧의 교환가치를 설정하는 것에 많은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의 교환 가치로서 공동체화폐인 ‘봄’을 “1시간=1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때 재화가 교환의 대상이 될 때 상호호혜로 교환된 노동의 가치가 일반 시장의 화폐 가치로 매겨지는 것에 대한 가치의 충돌로 현재로서는 노동에 대한 교환만을 거래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환 활동 종류별로 책

정해두는 것 또한 청춘은행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제공되는 기여활동 1시간에 대해 1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호돌봄, 상호호혜에 기반한 교환은 수혜자가 느끼는 가치와 인정에 기반하여 교환되어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 “물론, 전체적인 시스템은 ‘모든 거래는 봄으로 한다’는 큰 전제는 있지만 …(중략)… 서로 간의 거래는 열어줘야 되지 않으냐가 저희의 입장이에요. 한밭레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서로 거래했을 때 거래별로 금액을 정하진 않거든요.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삿짐을 나르려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수혜자가) ‘어느 정도 드리면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기여자가) ‘전 이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거래가 성사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사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11-송○○)

또한 재화를 교환 대상으로 포함할 때 타임크레딧을 실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처의 확보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는 노동만을 교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사랑고리는 운영 초반, 노동 자원에 대한 교환의 단위를 설정(예. 목욕봉사=3고리 등)하였으나, 점차 수혜자가 인정하는 가치로 교환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는 처음 미국에서 타임뱅크 도입 시 활용된 타임달러가 도구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였으나, 점차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며 수혜자가 제공받는 노동에 대해 느끼는 필요와 기쁨 등의 가치에 기반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사랑고리는 재화 또한 교환 대상으로 상정한다. 나눔가게와 이음장터,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맛사랑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화폐 가격의 일부를 고리로 교환할 수 있다. 이 교환처는 모두 구미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조직들로 교환처 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3) 타임뱅크 운영과정의 어려움

(1) 타임뱅크 운영 가치, 코프러덕션(co-production)에 대한 인식 부재

타임뱅크 도입 단계에서의 어려운 점은 운영진의 타임뱅크 운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 꼽히고 있다. 기존 자원봉사는 1:1 개인 간에 한 사람은 일방적 기여자, 나머지 한 사람은 일방적인 수혜자 관계에 놓인다. 타임뱅크는 수동적 수혜자가 능동적 기여자,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돌봄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코프러덕션의 5가지 중심가치, 개인의 가치를 자산으로 여기고, 그들이 하는 활동을 시장경제의 노동과 동일한 가치로 인식하며, 일방적인 호혜가 아닌 상호호혜를, 이를 위한 투자를, 취약한 이들을 존중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타임뱅크 운영 초기, 실무자들이 이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여 실패를 경험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 “처음 저희가 이제 사랑고리를 적용한 대상이 장애인들이었는데 그때는 코프러덕션의 이해가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걸 품앗이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끼리만 연결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지역의 다른 단체나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8-이○○)

> “환우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루고자하는 그 목적보다는 내가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더 우선이 돼서 부딪히고 깨지고 좌충우돌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냥 따라가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놓는 방법,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봉사자가 따라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사랑고리가 아닐까.” (1-이○○)

더불어 실제 타임뱅크가 운영되려면 참여자의 자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 다양한 참여 주체가 존재해야한다. 특히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대상만으로 타임뱅크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참여 부족은 타임뱅크 체계를 유지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도입과 시작 단계에 타임뱅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타임뱅크에 대한 운영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춘은행은 그동안 수혜자의 입장이었던 노인 참여자에게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발굴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곧 타임뱅크 운영의 지속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에 대한 타임뱅크의 운영 가치와 원리 등을 이해시키는 과정은 운영 이전 홍보단계부터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로의 확산의 한계 : 사회복지사업과의 접목의 한계

사랑고리는 사회복지 급여와 접목하여 타임뱅크를 운영한 모델로, 비교적 참여자들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작은 규모 내에서의 운영을 통해 타임뱅크 운영의 가치를 학습하며 상호 호혜적 공동체의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실무자들은 타임뱅크가 지역사회의 상호호혜 구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몇 사례가 존재하지만 지역사회 내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했으며, 또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면, 사회복지 급여 접목으로 인해 기존의 시혜적 자원봉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코프러덕션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 타임뱅크의 가치가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랑고리 김요나단 신부는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복지사업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보완해주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동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고리는 주동적이라는 것이 복지사업과 병행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9-김○○)

그럼에도 이러한 인식은 참여자 전반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사랑고리의 경우 참여자의 80%가 기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수혜자로서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여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여자 대부분이 도움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수혜자로서의 욕구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 돌봄만을 교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기존 시혜적 자원봉사 방식의 가치를 탈피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기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과연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 없는 것일까? 급히 외출할 경우 어린 자녀를 맡아주거나, 집을 오래 비우게 될 때 우편물을 챙겨 준다거나, 손이 닿지 않는 전등을 갈아야한다거나, 지역 내 진료를 잘하는 병의원의 정보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고 교환의 욕구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랑고리에서는 발굴에 대한 책임 주체를 코디네이터만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가 발굴의 역할에 임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원이나 욕구를) 발굴하는 것은 코디네이터 뿐 아니라 직원들의 역할, 참여자들의 역할입니다. 참여자는 다른 사람(참여자)이 필요한 것을 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9-김○○)

그러나, 실제 자신의 욕구를 본인이 인식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고리 실무자들은 자원의 기여자 역할만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사용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건강한 참여자의 경우

대면 돌봄 중심의 교환 구조에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개인적으로 제가 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읽어드리기나 아니면 해평음식나눔방 등 봉사를 하는데 고리를 벌지만 사실 서비스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딱히 제가 받을 봉사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도 고리를 버니까 고리를 어디에 써야겠는데... 사랑고리라는 것은 주고받는 개념인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오히려 봉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에요.” (3-황○○)

현재 사랑고리의 교환은 나눔가게, 이음장터, ㈜맛사랑 등 재활용품 및 먹거리 교환과 개인 간 돌봄 교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용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다양한 교환 자원 개발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교환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은 결국 기여자와 수혜자 간의 욕구에 부합할 수 없다. 청춘은행의 경우 기여자와 기여자 간의 욕구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적 측면에 대한 고민으로, 청장년층의 참여자인 경우 학업, 근로 등으로 인해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요 수혜자로 예상되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일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 “여전히 고민인 것은 …(중략)… 요즘 세대에 사람이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청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시간대가 서로 안 맞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중략)… 청춘은행에서 ‘봄’을 제공할테니 함께 활동을 하자고 홍보했는데 그(요구가 있는) 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활성화되기에는...” (11-송○○)

(3) 타임뱅크 운영 인력(코디네이터)의 업무 과중

기존 직원들에게 타임뱅크 운영의 역할을 부가함으로써 별도의 인건비 조달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나, 이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 과중과 직결된다. 실제 기존 담당업무 외에 사랑고리의 교환 연계, 욕구 발견, 기여자 역할 수행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하는 실무자는 타임뱅크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었다.

> “솔직히 말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다 저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코디네이터 일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하니까 아침에 나오면 저녁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중략)… (고유업무 사업을) 한번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략)… 하루하루 거의 매일 방문을 해도 모자랄 만큼 …(중략)…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가는 게 참 죄송스럽고 과부화가 걸릴 정도로 힘이 드는 단계입니다.” (2-박○○)

(4)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현재의 단일 조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타임뱅크를 확산시키는데 한계를 인식한 사랑고리는 관내 사회복지관과의 공동 추진을 몇 차례 제안하였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고 한다. 실제 지역사회 내 호혜적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 단위뿐 아니라 기관, 기업 차원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의식 있는 지역 내 몇몇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청춘은행의 경우 동일 지역의 한밭레츠의 지역품앗이와의 관계에서는 차별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향후 두 조직의 타임뱅크의 호환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 타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임뱅크와의 관계 설정에서 차별화는 주요한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상호호혜 공동체 확산과 이를 위한 자원 다양화를 위해서는 타 조직의 타임뱅크와의 호환성이 요구되나, 기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그 내용이 중복된다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이슈는 각각 존재하는 공동체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이다. 현재 단계에서 청춘은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환 원칙으로 결론지어가고 있으나, 호환되는 시점에서 보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타임뱅크로 인한 변화 및 운영성과

실무자들의 보고를 통해 확인된 타임뱅크 운영을 통한 변화는 크게 실무자의 인식 변화, 참여자 삶의 변화, 공동체의 상호호혜 선순환 체계의 기반 마련과 공동체성을 제고로 평가되며, 각 요인들은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실무자의 인식 변화

사랑고리 운영을 통해 한 실무자는 참여자를 복지 대상으로 보던 인식에서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참여자의 자원 발견에 초점을 두게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실무자와 참여자의 관리감독을 주고받는 상하 관계가 아닌 연대와 상호호혜 의식에 기반한 공동체 형성의 기초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코프러덕션의 기본 가치와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 “사회적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중심에 와서 그 프로그램의 주도자 역할, 참여자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그거를 아우를 수 있을 때만이 그 프로그램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코디네이터들이 꼭 가져야겠고, 제가 이제 사랑고리를 한지 얼마 안됐지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자원을 자꾸 발견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견해가 자꾸 바뀌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보는 성향으로 조금씩 발돋움 하는 것 같아요." (1-이○○)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일컬어지는 노인,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앞서 진술된 참여자의 자원과 강점 발견이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이자 성공사례로서, 실무자들이 참여자의 자원 발견에 초점을 두고 타임뱅크 운영에 확신을 갖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황금둥지라고 하는 사랑방이 위치한 곳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중략)… 최근에 편부모가정인데 그 엄마가 아버지나 그 부모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사랑방에 와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2학년 두 아이가 지난주 교사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약한 노인과 아이들로 시작해서 그 마을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산화이다, 그들을 사회적 자산화하는 것이다." (8-이○○)

앞서 진술되었던 타임뱅크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주업무와의 갈등과 업무과중을 느끼기도 하지만, 타임뱅크 운영으로 인해 업무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업이나 타임뱅크의 자원 연계가 보다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타임뱅크 운영 초반 겪었던 본연의 업무와 타임뱅크 관련 업무 간의 갈등은 현재 적절한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타임뱅크 운영을 통한 긍정적 영향을 통해 업무 갈등은 상쇄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처음 사랑고리를 모르고 직업에 대한 목적으로 왔을 때를 생각하면 많은 고민이었죠. '이걸 해야 하나? 근무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우선적인 일이 있는데 이것(사랑고리)을 더 우선으로 해야 하나?'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지금은 조절을 하죠. 이걸 하고 차후에 하고 업무를 조절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은 사업을 맡고 하다 보면 이 사랑고리를 통해서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참여자들과 또 사랑고리 통해서 깊숙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장점이 있고요." (4-임○○)

(2) 참여자의 삶의 변화

타임뱅크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참여자이다. 참여자의 긍정적 경험과 변화는 참여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의 참여로 전환되고, 이러한 참여자의 삶과 태도의 변화는 공동체의 상호호혜가 지역으로의 확산을 견인하게 된다. 실무자들은 사랑고리를 통해 노인 참여자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정서가 회복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 어르신은 자녀관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분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기분변화가 심하십니다. 기분이 좋으시면 엄청 좋으시고 안 좋으시면 엄청 안 좋으시고. 이 어르신에게 제가 형곡동 사랑방 자원봉사를 제의를 했습니다. …(중략)… 첫날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갔는데 …(중략)… 이 어르신도 가시니 일단 또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시집 올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신랑이 뭐 어땠다던지 시어머니가 어땠다던지 이런 이야기부터 쭈욱 하시는데 …(중략)… 듣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옛날에 겪었던 일들이고 그런걸 '아이고 나도 그랬다 니도 그랬나'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봉사를 하러 가신거지만 봉사를 하시면서 일단 지난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그 과거가 다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2-박○○)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높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중략)… 어른들도 사랑고리라는 개념을 주고받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하기는 쉬우신데 내가 무얼 받을 까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하고 난 후에 …(중략)… 기쁨이 '아 내가 이걸 또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구나.' 나이가 드시면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재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실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자리 하시면서 자존감도 높이는 것이 이 사랑고리가 굉장히 좋구나, 요즘은 그걸 보며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4-임○○)

(3) 공동체적 상호호혜의 선순환 체계 마련

실무자들은 사랑고리 참여자 간 연대와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상호호혜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진술하고 있다. 복지 수혜대상이었던 노인 참여자가 사랑고리를 통해 자원의 기여자로 전환하고, 사랑고리 참여자 간 친교가 발생하며 자발적인 돌봄의 교환과 상호돌봄과 지지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게 타임뱅크의 운영 가치와 원리를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것부터, 참여자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통해 자발적인 그룹홈에 대한 욕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청춘은행은 참여자가 친교를 통한 신뢰 구축, 자원의 발견과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 간 "만찬"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에 있다.

"열 분 정도 매주 봉사를 하시는데 시간대가 비슷하니까 만나면서 그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봉사교환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요. 어떤 경우는 저도 모르게 A 할머니 집에 가서 B라는 할머니가 머리를 깎아줬대요, 두 번이나. 전 전혀 몰랐어요." (1-이○○)

"처음 주고받는 고리에서 …(중략)… 그 안에서 자조모임이 형성이 되는데 같이 (봉사)하시다가 하루 편찮으셔서 안 나오시잖아요. 그 (자조모임)안에서 반찬을 해서 들고 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또 같이 모여서 문병을 가시고 이런 식으로 자조모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중략)… 몸이 안 좋아서 이사를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만두실경우에는 어른들 간 위로하는 자리를 손수 만드십니다." (4-임○○)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도 하시면서 공동체성이 생기니, 몇 개월 전에 저희에게 부탁을 한 것이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룹홈을 만들어 달라' 는 말씀이셨습니다. …(중략)… 이렇게 관계형성이 되니 이분들이 함께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8-이○○)

사랑고리를 오래 경험한 참여노인들은 실제 고리를 적립하고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최상위의 목표인 상호호혜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받은 수혜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여건이 되는 한 기여 활동을 실천하여 상호 호혜적 공동체의 주체로서 실천하고, 이는 일종의 책임의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게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조금씩 두드러져요. 장애인아들을 키우는 분이고 몸도 조금 불편하신데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제가 오늘 늦게 가도 괜찮겠냐?' 고 꼭 전화를 줘요. 그럼 전 얼마든지 늦게 오셔도 된다고... 이런 게 하나의 책임 같아요. 물론 당신 것도 가져가시면서 한두 집 것 더 엮어서 가져가셨는데 …(중략)… 그 수고로운 노동과 마음씀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적인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이○○)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사랑고리 참여자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돌봄 욕구를 발견하고, 실제 돌봄의 수행 주체가 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노케어사랑방 황금둥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소사랑방' 이 그 결과이다. 황금둥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두 명의 참여자가 해당 지역 내 한부모가족 자녀나 홀로 집에 남겨진 아동들을 발견하고 노노케어사랑방 담당 실무자에게 마을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여 '노소사랑방' 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랑고리 참여 노인이 공동체 의식을 지닌, 동시에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시민으로 변화한 성공적 사례이며, 타임뱅크가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참여자 외에도 지역 내 주민, 청소년, 기업 등의 참여로 지역 내에서 공동체가 그물망으로 확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해평음식나눔방은 지금은 정부의 도움 없이 봉사자 분들과 연계해서 지역 내 회사나 단체 후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중략)… 토요일에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120가정에 배달한 밑반찬 조리, 포장, 설거지, 배달까지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중략)… 거리상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으로 유류비 지원 하나도 없이 …(중략)… 1차적으로 마을까지 배달해주는 사람, 그 다음 마을 안에서 배달해주는 사람, 어르신들이 사랑방에 가지러 오시면 어르신들이 마을 다른 이웃에게 배달해주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략)… 그런 의미 있는 봉사도 이루어지고요. 또 남녀노소, 학생들 청소년 봉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은 동아리에 연결도 되고..." (7-최○○)

5) 타임뱅크 성공요인과 과제

이상의 분석을 통해 타임뱅크의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돌봄 공동체 구축에 대한 타임뱅크의 가치와 필요성에 기반한 강력한 추진 의지는 성공에 한걸음 다가가도록 한다. 사랑고리는 도입 이후 수많은 실패 경험에도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임을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참여자와 지역의 작은 변화에 그 가능성을 인식하며 실무자들은 사랑고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변화해 왔다. 이는 타임뱅크 체계의 당위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이자 성공사례로서, 타임뱅크 운영에 확신을 갖게 하는 순환구조를 가져온다.

둘째, 초기 타임뱅크의 도입과 운영단계에서 복지급여와 결합하여 참여 대상을 연계·확장하는 전략이다. 이는 시행 초기 비교적 빠른 참여자 확보가 가능하며, 타임뱅크 운영원리에 대한 학습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랑고리의 경우, 운영조직인 구미요한선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2개의 사회적 기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참여자 및 사랑고리 교환 구조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복지급여 사업의 참여로 소속감과 참여자 내 신뢰감이 형성되어 도움과 필요가 교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실제 도움과 필요의 교환을 통해 상호호혜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상호호혜 가치의 경험은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욱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사회에 홍보의 역할을 하면서 타임뱅크가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성·확산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참여자 간 선(先)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로 대인간 접촉을 통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서로의 필요와 욕구, 자원을 파악하게 되어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청춘은행의 경우, 도입 첫 단계에서는 조합원만을 참여 대상으로 한정하고, 시행 이후 ‘만찬’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참여자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넷째, 담당자는 타임뱅크 운영에 있어서 ‘신뢰형성’을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 간 대면접촉의 기회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교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 “외국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만찬개념이 있더라고요. …(중략)… 저희가 온라인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얼굴을 잘 모르니까. 집에 찾아와서 도움을 받거나 할 때는 특히 서로의 신뢰가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만나는 사이에서 서로 수요가 파악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만찬)들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11-송○○)

다섯째, 상호호혜의 실천과 경험이 주요한 성공요인이다. 김요나단 신부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는 실천 자체의 가치와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기존 자원봉사는 기여자의 입장에서 수혜자의 특성, 접근방법 등을 교육받는 결국 일방적인 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습득 차원이었다면, 타임뱅크는 실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통해 상호돌봄과 호혜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해가는 경험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1995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랑고리에는 교육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다른 봉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9-김○○)

이상과 같이 구미의 사랑고리와 대전의 청춘은행은 타임뱅크가 운영되고 확산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복지급여와 결합하여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들이 코프러덕션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결국 외부로 타임뱅크의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온다. 또한 참여자가 기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공동체 내 상호 돌봄과 공동체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동안 일방적인 수혜를 받아온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자신의 기여의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실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일부 성공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나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따라서 기존 참여자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가치를 고취시키는 작업과 함께 단계적인 참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호혜 가치를 지역에 확산

하고 교환 자원의 규모와 다양성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타임뱅크 추진 의지에 앞서 타임뱅크의 취지, 목적, 운영원리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지역 내 현황 및 문제,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획과 전략을 수반하며, 타임뱅크가 상호 돌봄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에서 이사장 또한 타임뱅크 운영이 목적이 아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 "(타임뱅크는)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타임뱅크가 발견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상호의존보다 더 강한, 책임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타임뱅크는 이를 엮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9-김○○)

셋째, 사랑고리는 10여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조직 단위에서 지역으로의 확산을 과제로 삼고 있다. 타임뱅크를 통해 실무자와 참여자의 변화를 견인하고, 이러한 변화가 조직과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 및 한계를 지역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을 뿐이다. 타임뱅크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의 지역 확산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조직 내에서의 타임뱅크체계 도입과 같이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 기업들을 연계하여 참여시키고 공동체를 통한 상호호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지역운동으로 접근해야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확장성은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직원들을 참여시켰던 것처럼 또는 참여자를 참여시켰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운동입니다. 아마 타임뱅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으로 끝날 겁니다." (9-김○○)

4. 참여자 FGI 분석결과

사랑고리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6.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분석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타임뱅크 참여 경로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 자원봉사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전환	
타임뱅크에서의 기여와 혜택 : **물질적·기능적 보상 이상의 가치가 혜택으로**	기여	• 남성노인 : 환우 목욕, 반찬/도시락 배달 • 여성노인 : 노노케어
	혜택	• 남성노인 : 이동서비스(시각장애인 아내), 요리강습 • 여성노인 : 식료품(콩, 팥, 호박), 명절 선물 마련 등 이용(빈번한 이용은 아님)
	• 물질적·기능적 보상 이상의 가치 추구 –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마음의 저축, 마음의 부자라는 인식 – 당연한 일, 어르신들이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된 일	
참여과정에서의 만족 : **새로운 가치 인정을 통한 보람과 행복**	새로운 사회적 역할, 소속감, 보람, 기쁨, 행복	•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할 생성 • 반겨주고, 찾아주고, 고마워해주는 이가 존재한다는 것에 따른 보람과 책임감
참여과정에서의 불만족	• 다양한 타임크레딧 활용처의 부족	
다른 복지기관 활동과의 차이점	연대감, 소속감 형성	• 일회적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연대감에 기반한 소속감 형성

표 16.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분석내용(계속)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참여 이후 변화	가치관의 변화 : **봉사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삶'**	• 혜택을 받는 노인들 간 소통, 돌봄을 목격하며 상호돌봄/호혜를 체험(배움) • 적극적인 자원봉사로 전환,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 봉사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삶' • 이웃공동체 안에서 상호 돌봄/의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믿음 형성
	이웃공동체에 대한 변화 : **내가 아프면 찾아와 줄 것이라는 확신, '내 부모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	• 내가 어려울 때 외롭지 않게, 누군가 찾아 줄 것이라는 믿음 형성 • 수혜자의 마음까지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
	지역사회의 변화 : **자원봉사자가 아닌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로 인식 전환**	• (노노케어사랑방) 초기 자원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녔던 노인들의 인식 전환(맛있는 식사, 즐겁고, 고마운 곳) • 수혜자 간 상호호혜 발생(공동체에서 마음과 정을 느끼고 수혜자 간,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변화)
	사회적 관계의 확대	•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정서적 지지 및 정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망 형성)
	신체/정서적 건강의 변화 :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 무릎통증 완화 • (사회활동을 통한) 성향 변화(활발해지고, 웃음도 생기고) • 자신감 향상
타임뱅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사랑고리 운동이 활발해지면 사회문제가 줄어들 것 같아요"** • 타임뱅크 참여를 통한 상호호혜의 가치 경험 • 타임뱅크가 확산된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 • 어디서든 공동체적 삶과 나눔을 실천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주체로서의 성장	
타임뱅크 확산을 위한 방안	• 수혜자의 기여자로서의 가치 인식 • 타임뱅크 참여자를 통한 주민(또는 지역) 밀착형 확산 • (자발적)참여를 통한 타임뱅크의 유용성 경험 •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 확대를 통한 신뢰 확보 • 자원봉사자의 다양성(연령, 계층 등) 확보	

1) 타임뱅크 참여 경로

노인의 사랑고리 참여는 주로 구미 시니어클럽 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시니어클럽 실무자의 안내를 통해 연계된 경우가 많았고, 사랑고리 봉사사업 중 하나인 해평음식나눔방의 도시락 배달을 받던 수혜자가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랑고리의 기여자로 그 역할이 확대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2) 타임뱅크에서의 기여와 혜택 : 물질적·기능적 이상의 가치가 혜택으로

타임뱅크를 통한 기여와 혜택은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여 측면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환우 목욕, 도시락 및 반찬 배달 등의 활동을, 여성노인의 경우 말벗, 상담, 돌봄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타임뱅크를 통해 받은 혜택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남성노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이동서비스나 돌봄의 혜택을 주로 받았다. 반면, 여성노인은 주로 콩, 팥, 호박 등의 식료품이나 의류 등을 구매하거나 이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여활동에 비해 본인의 혜택을 위해 타임뱅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기여활동을 통해 물질적 보상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자들은 '좋은 일을 해서 즐겁다, 보람 있다' 는 진술들을 자주 언급하였다. 이는 물질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경험하는 것 자체를 큰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타임뱅크 참여를 통해 축적된 사랑고리의 활용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수혜자가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

어선 공동체성을 이미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랑고리는 단지 이웃의 도움을 받고 갚을 수 있는 수단일 뿐이며, 타임뱅크가 최종적으로는 개인 간의 기능적 교환보다는 그 이상의 호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 참여자가 한 자신의 기여는 '마음의 저축이며, 마음의 부자' 라는 언급은 상호호혜의 가치를 혜택으로 인식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 "굳이 내가 좋은 일을 2시간 했다고 몇 고리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내가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지, 이거(고리)를 서로 나중에 그래도 누군가 나도 도움이 받을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적금이고, 적금은 타서 쓸 때가 있으면 더 좋고 그냥 있으면 부자잖아요. …(중략)… 이거를 돈으로 바꿔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11-박○○)

> "여기서 따뜻한 밥을 먹고 가면 힘이 난대요. …(중략)…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걱정 하시지 말고 오셔서 잘 놀다 조심해서 안 다치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가실 땐 조심해서 가시면 되고 오셔서 즐겁게 놀다 따뜻한 점심 잡숫고 가면 되고…(생략)" (4-장○○)

한 참여자의 경우는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순간까지도 자신의 기여가 사랑고리로 적립되고 있다는 것과 적립된 기여를 통해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자신이 받았던 도시락 배달이 고마운 마음에 비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토바이를 손수 운전하여 이웃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 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책임감을 수반한 이웃에 대한 호혜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 타임뱅크 참여과정에서의 만족 : 새로운 가치 인정을 통한 보람과 행복

참여자들이 타임뱅크 참여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은 새로운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무력한 삶 속에서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며 사회에서의 역할이 생기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반겨주고 찾아주고, 고마워해주는 사람이 생김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은 참여자들이 보람과 행복이라는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내가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진짜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우리라는 소속감이 생겼어요." (11-박○○)

> "집에서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들 출가 시켜 놓고 나 혼자 있으니 쓸쓸하잖아요. 여기 와서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중략)… 일주일에 2번 일하고 오후에 애기들 돌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3-김○○)

> "제가 가면 하는 것도 없는데 '아이고~ 선생님 보고 싶었다' 라면서 손뼉도 쳐주고 …(중략)… 제가 어디 필요한 데가 있어요. 나이 먹었어도 '그 사람 안오나' 라고 찾아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4-장○○)

> "어르신들이 세 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자녀분들을 구미역에서 만났는데 역이 떠들썩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사람도리를 못 한다' 면서 …(중략)… 저보고 그랬을 때 '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았는데 오늘 내가 받은 감사인사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1-박○○)

4) 타임뱅크 참여과정에서의 불만족 : 사랑고리의 다양한 활용처 부족

참여자들이 진술한 타임뱅크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일부였지만, 사랑고리를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앞서 기술된 기여활동에 비해 본인의 혜택을 위한 사랑고리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이다.

앞서 실무자들의 초점집단면접에서 사랑고리 참여자의 20%만이 수혜자와 기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일방적인 기여자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의 이 같은 불만은, 사랑고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처는 타임뱅크 참여에 대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고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더욱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략)… 그래서 그에 대한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장○○)

> "이음장터에 가서 팥, 콩 같은 것 사면 집에서도 필요할 때는 쓰고 또 우리 거기서 호박 같은 것 들어오면 범벅할 때도 쓰고... 이게 쓸 데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11-박○○)

5) 타임뱅크 참여의 다른 복지기관 활동과의 차이점 : 소속감과 연대감

다른 복지기관 활동과 비교하여 참여자가 체감하는 타임뱅크 참여의 차이는 연대감과 소속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복지기관은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수동적이며, 개별화된 개인이 존재하는 반면, 타임뱅크 참여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넘어서 나를 염려하고 돌보아줄 이웃이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노래 배운다든지 스포츠댄스 배우러가도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가 하면 끝나잖아요. 끝나고 거기 사람은 소속감이라든지 연대감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내가 아프면 30명 중에 설마 2명은 와줄 거 아닙니까?" (11-박○○)

6) 타임뱅크 참여를 통한 변화 경험

(1) 가치관의 변화 : 봉사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참여자들은 타임뱅크 참여를 통해 수혜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고한다. 타임뱅크에서의 기여활동을 통해 '나도 언젠가는 수혜자처럼 도움이 필요해질 날이 올 것' 임을 인식하고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기여활동 과정에서 수혜자들 간에 상호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상호돌봄의 가치를 배우게 되면서 이웃공동체 내에서 상호돌봄과 상호의존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들의 변화는 참여자들의 의식 속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이라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혀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이 자꾸 계기가 돼서 긍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중략)… 솔직히 저 자신도 만약에 이런 환자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 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귀 어두우신 어른이 나오셔가지고 문을 밀어드리세요. 또 귀 어두우신 어른이 옆에서 이거 잡수라고 했는데 못 듣고 안드시면 누군가 또 까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게 있고 이 일이 따뜻

하고 …(중략)… 처음에는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쪽에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섬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참여자들이 전부 기쁘게 일을 해요.” (11-박○○)

“저는 사랑고리라고 하는 걸 다른 거 보다 봉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더불어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략).” (11-박○○)

(2) 이웃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 내가 아프면 찾아와줄 것이라는 확신, ‘내 부모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

타임뱅크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은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어렵거나 외로울 때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을 찾아주고 돌보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까지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참여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타임뱅크 참여자의 이웃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다음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제가 만약에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외롭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내가 2년 동안 적금을 많이 넣어놨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래도 우리 함께 했고 숟가락을 같이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더 따뜻하게 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부자인 것 같아요.” (11-박○○)

“할머니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부모처럼 어른을 섬길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황금둥지에 밥하러 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찾아갑니다.” (5-손○○)

(3) 지역사회의 변화 : 자원봉사자가 아닌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 로의 인식 변화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초기 노노케어사랑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느꼈음을 진술했다. 기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오며가며 문을 열어보며 인사를 건네는 사이로 변화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사랑방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자신이 받은 수혜에 대해 작게라도 기여 하고자 하는 변화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타임뱅크 참여자는 지역주민에게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봉사활동' 에서 '따뜻함과 위안을 주는 사람들' 로 인식되어지면서 지역주민에게 타임뱅크의 가치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는 관계 기반의 온기 있는 돌봄과 관심이 지역주민을 그리고 지역사회를 느리지만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아닌, 개인 간 관계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호혜의 경험들이 실제적인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처음에는 우리가 오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지요. '저게 정말일까? 저게 며칠이나 할까?'.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면 '오지랖도 넓다,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중략)… 그런데 자기가 진정하게 따뜻한 밥, 따뜻한 눈길 이런 게 위로가 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서 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딘 손이라도 딱 잡아주면 (말하지 않아도)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중략)… 별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그냥 서로 따뜻하고 그러니까." (11-박○○)

> "어떤 할머니는 화질(화상)을 만나고 온몸이 데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밥을 잡수면 땀이 비오듯 했어요. 근데 한 1년을 잡숫고 나니 땀이 하나도 안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라고 잘 잡수시니까

전혀 땀도 안 흘리고 지금은 고마워서 뭐든지 한다고 그러면 와서 도와주려고 그릇이라도 갖다 주려고 해요." (3-김○○)

"다른 데서 일회성으로 오는 봉사는 일렬로 앉아서 꼼짝도 안하고 듣고 있다가 가면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가고 나면 어른들이 욕합니다. 에잇, 에잇,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진정이 섞인 봉사는 (과일이) 쭈글쭈글하고 미어터져도 어른들이 '아이고, 맛있다' 그렇게 잡술 때 '아하, 이게 우리 서로 통한다' 는 느낌을 얻어요. …(중략)… 그게 되면(그런 느낌을 얻으면) 자기 집에서 컵을 안 쓰면 컵도 하나 가져오고, 그 컵을 볼 때마다 그 어른이 '내가 공짜 밥은 안 먹고 컵도 하나 냈고 쟁반도 하나 냈고' 이렇잖아요." (11-박○○)

(4) 사회적 관계의 확대

사회적 관계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적·정서적 자원과 관련된다. 특히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축소되어가는 노년기에는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여자의 진술들을 통해 타임뱅크 참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타임뱅크는 연대감과 신뢰감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4년 동안 친구가 없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서로 한 마을에 있어도 그냥 얼굴만 알고 지냈는데 …(중략)" (10-장○○)

"내가 하다가도 어려운 게 있으면 자녀들한테 물어보기도 머쓱하고 이런 거는 '우리 실장님, 우리 팀장님 이거이거 뭐 어짜노?' 하면 뭐 이래이래 해주고.." (11-박○○)

(5) 개인의 신체·정서적 건강의 변화 :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타임뱅크 참여를 통해 개인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의 변화를 경험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건강이 호전된 것은 물론, 행복감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회복한 것이다. 특히, 긍정적 정서는 참여자 자신의 기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자신감 회복을 통해 나타난 결과임을 다음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 “내성적인데 남한테 말 한마디를 못 붙이고 그랬어요. …(중략)… 저보고 사람이 예전보다 활발해졌다고 하고, 말도 그렇고, 웃음도 없던 게 더러 웃고 그러면서 ‘니 뭐하는데 니 좋아졌다’ 라는 이런 말을 들어요.” (9-김○○)

> “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행복합니다.” (3-김○○)

>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중략)… 처음에 몸도 안 좋고 했는데 다니니까. 마음이 즐겁고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 돕고 어른들을 챙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항상 즐겁고 좋아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너무 행복해요.” (5-손○○)

7) 타임뱅크의 현재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 “사랑고리 운동이 활발해지면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 같아요”

타임뱅크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운영된 타임뱅크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타임뱅크 참여 경험을 통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타임뱅크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함께 타임뱅크의 활성화는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호호혜 정신에 기반한 상호돌봄이 지역으로 확산

되는 속도가 더디고, 보다 확산되지 못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나누었던 공동체적 삶과 나눔의 가치를 어디서든 실천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복원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 “이미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보상을) 떠나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면요. …(중략)… 이제는 이미 모두 즐거움을 나눴기 때문에 사랑고리를 떠나서도 잘 될 겁니다.” (11-박○○)

8) 타임뱅크 확산을 위한 방안

타임뱅크 참여를 통해 개인, 이웃,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타임뱅크가 보다 확산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안하였다. 참여자들이 제안한 타임뱅크 확산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자 스스로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확보, 둘째, 기존 타임뱅크 참여자의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과 밀착하는 방식을 적용, 셋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타임뱅크 유용성의 경험, 넷째,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 확대를 통한 신뢰 확보, 다섯째, 연령, 교육수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대상 확대를 통한 교환 가치의 다양성 확보가 그 내용이다.

> “당연히 받는다는 사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부동환자 중에서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전파되고 그 사람(수혜자)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장○○)

> “자기가 하는 만큼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취지는 참 좋

고, 조합원들이 합심하면 동민을 살릴 수 있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장 아닙니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주민) 깊숙이 들어가야 전파 속도가 조금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시키려면 주민에게 잘 맞춰져야 하고, 내가 다른 데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새로운) 집단에 (나의 경험을) 투사해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2-장○○)

"우리 참여자들이 자꾸 강권하고 권유해서는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확산이 되죠." (11-박○○)

"어쨌든 간에 자주 만나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수시로 와서 자기 집에서 못 다 먹는 걸 가져와서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무료한 시간에 애들도 잠시 봐 줄 수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편찮아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한테 맡기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 소통이 되고 그런 장이 되면 사랑고리가 확산이 아주 빨리 될 것 같네요." (11-박○○)

"연세가 든 분들만이 시니어가 되고(시니어클럽 참여가 되고) 그리고 역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세 든 분들이잖아요. 참여를 다양화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도 봉사차원에서의 자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한계에서는 더 확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장○○)

"65세가 넘었다고 해도 계층별로 있거든요. 하층 있고, 중층 있고, 상층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식의 층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지금은 한정적이에요. …(중략)… 제가 보는 견해는 65세를 무조건 많은 인력들만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계층화되니까 (다양한) 영역들이나 전문 지식들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제도가 더욱 번창할 수 있고…(생략)" (2-장○○)

참여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은 타임뱅크 확산과 관련하여 실제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문제의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타임뱅크 참여자는 지역사회 상호 돌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동적 참여자, 일방적 수혜자가 기여자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시사점

1.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운영사례의 시사점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타임뱅크를 적용함으로써 만성적 수혜자에서 기여하는 봉사자로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타임뱅크의 연계를 통하여 노노케어 일자리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돌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었다.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랑고리 봉사는 133명, 2,267고리를 발생시켰고 1,359고리는 교환으로 사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17).

사랑고리 교환을 통해 아동들은 노인들의 돌봄을 통해 가족 이외에 정서적 및 학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구미사랑고리 은행, 노인사회활동 지원기관인 구미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 새로배움터 등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타임뱅크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내 1,100여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노노케어 사랑방프로그램은 노인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외로움과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새로운 모델로 볼 수 있으며, 말벗 등의 상호간 친밀감 형성과 상호봉사를 통하여 호혜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자, 내담자,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기부와 나눔

의 기회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7.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운영내역

구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내담자	직원	지역주민	계
실 인원(명)		25	17	26	65	133
봉사 종류 (시간)	음식나눔방 봉사	376.5	–	190	59	625.5
	밑반찬 배달	54	378.7	8.8	63.6	505.1
	나눔가게 봉사	4	354.4	–	–	358.4
	기타 봉사	8	7	639	123.5	777.5
발생 고리(시간)		442.5	740.1	837.8	246.1	2,266.5

주> 프로그램 수행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6월
출처 : 구미시니어클럽 사례연구팀 사례연구보고서 자료(2016).

노노케어 사랑고리프로그램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욕구충족,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노동력과 참여자들의 돌봄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이용자가 노인복지사업의 적극적인 협력자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노인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본다. 향후에는 이용자들의 봉사욕구 발굴과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사랑고리사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연대 측면에서 기부금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랑고리 후원은 기부행위를 일반적인 자선과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후원에 의한 사랑고리의 협력적 파트너 및 수혜자와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구미시니어 사랑고리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호혜적 봉사와 보상측면에서 말벗 등의 노노케어 참여자보다 서비스 이용자 간의 봉사가 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봉사자들 간의 활발한 교환과 욕구 등을 연결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이웃 맺기를 주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타임뱅크 참여자는 호혜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이러한 인정이 개인 및 사회적 관계 변화, 이웃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여활동을 더욱 촉진하여 기여의 실천 과정을 통해 상호호혜의 경험을 확산하여 지역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음을 이상에서 확인하였다. 즉, 타임뱅크 참여자가 지역사회 상호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는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사례의 발견은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다. 다만 그 잠재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여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있어 공동체에 기반한 상호 돌봄의 선순환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며 지경사회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이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타임뱅크 주요 운영 요소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타임뱅크 운영의 기본 요소는 운영 가치 및 원리, 참여자 적용범위, 운영인력으로 구분한다. 첫째, 타임뱅크 운영 가치 및 원리는 참여자를 포함하여 운영 인력을 포함한 조직구성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참여자가 기여자이자 수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생산하지 못하여 타임뱅크 체계를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결국, 타임뱅크 활용의 최종 목표인 지역공동체 기반의 상호돌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무자들과 참여자들이 타임뱅크에 대한 운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운영과 실천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타임뱅크 참여자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타임뱅크 도입 초기 공적 사회복지제도와 결합한 운영 형태는 비교적 빠른 참여자 확보가 가능하며, 타임뱅크 운영원리에 대한 학습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참여자의 소속감과 타임뱅크 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소속감과 신뢰감은 참여자 간 기여와 수혜가 교환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일방적인 수혜를 받아온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자신의 기여의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복지급여 수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기여활동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타임뱅크의 핵심인 코프러덕션의 가치가 공유되지 못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제약이 된다. 따라서 참여자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가치를 고취시키며 이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단계적인 참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호혜 가치를 지역에 확산하고 교환 자원의 규모와 다양성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여자의 다양성은 욕구 기반의 서비스와 재화 교환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타임뱅크의 지속과 확장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타임뱅크의 코디네이터는 필요와 욕구를 발굴하고 이들의 교환을 연계하여 상호돌봄 체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사례에서는 기존 직원들에게 타임뱅크 운영의 역할을 부가함으로써 별도의 인건비 조달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나 도입 초반,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 요인이었다. 타임뱅크가 자리 잡으면서 참여자에 대한 이해의 향상으로 이어져 사업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이러한 방법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전담인력의 존재와 그들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인건비 조달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제1절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1. 핵심목적 및 원칙

1) 핵심목적

타임뱅크는 관계적 존재, 상호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에 대한 재인식과 이에 기반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다. 타임뱅크는 관계적 존재인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a tool)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타임뱅크의 필요성은 현대 사회의 '생활세계는 한편으로 물화의 위협에,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빈곤화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이 두 경향은 상호 강화된다.' 는 하버마스의 비판적 문제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하버마스는 '물질적 재생산이라는 체계의 압박이 눈에 띄지 않은 채 사회통합의 형식 자체에 개입' 하는 것을 생활세계의 '부속화' (Mediatisierung)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생활세계가 문화적으로 빈곤해지고 행위자들의 의식이 파편화되면, 체계의 압력이 생활세계에 은밀하게 개입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런 상황을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라고 표현한다. 체계의 생활세계로의 침투라는 의미에서의 물화, 그리고 한편으로 전문가 문화와 일상실천의 유리라는 의미에서의 문화적 빈곤화가 생활세계 식민지화의 원인이다(장춘익, 2015).

그러므로 타임뱅크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적이고 기능적인 접근, 전문가 - 의존자(서비스 대상)의 일방적 관계 하에서 서비

스 제공(문제해결 수혜대상), 문제해결 성과중심의 결과적 접근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민운동(civic action)'이다.

타임뱅크는 '관계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주목하며, 신뢰와 사랑, 연대의식에 기반한(풍부한 사회적자본의 코어경제(core economy)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적인 공동운명체(상호연대감)'로서의 자각, 그리고 평등적-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참여(civic engagement)와 호혜(reciprocity) 실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가며 만들어나가는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의 민주적인 과정적(process) 접근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도모하며,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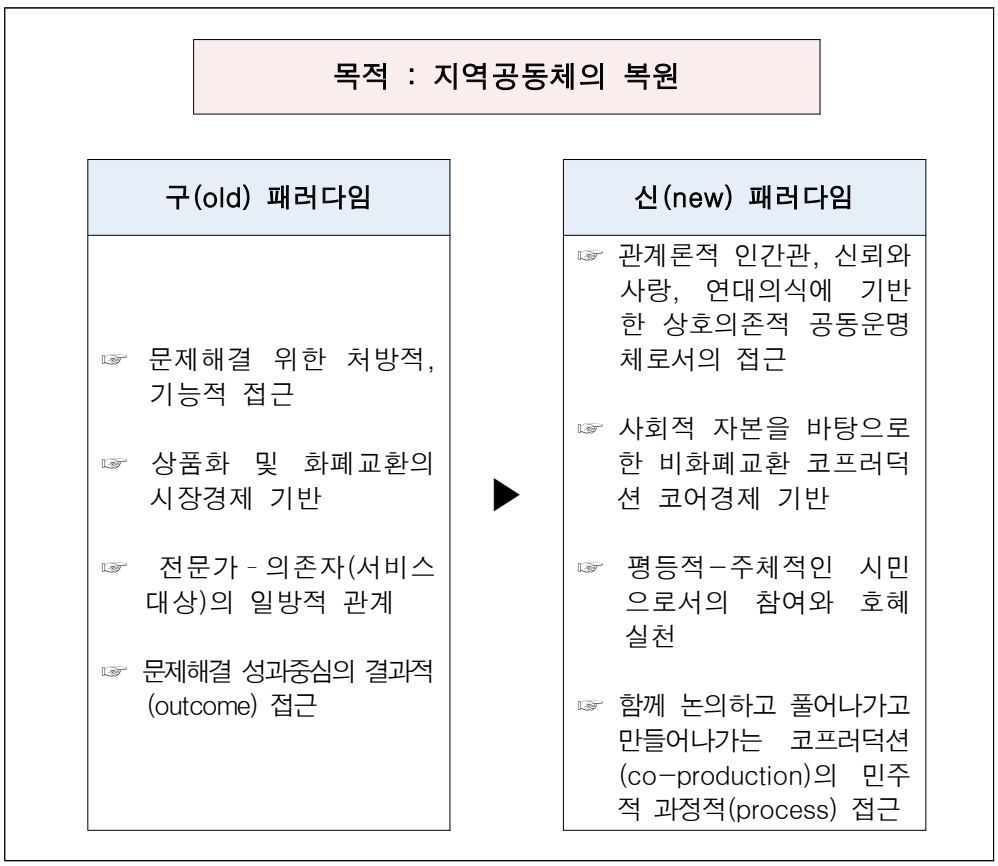


그림 46. 타임뱅크의 목적과 패러다임 전환

따라서 타임뱅크의 성공적 조건은 첫째, 관계론적 인간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존재론적 존재를 넘어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생명의 존중,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물질주의적 가치, 생산주의적 가치에 경도된 인식의 편향을 바로 잡고, 인간적 가치, 소소한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임뱅크는 생명의 귀중함, 일상 유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관계론적 공동체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석재은, 2015).

2) 핵심원칙

타임뱅크의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이다.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가며 방안을 마련한다. 필요한 일도 공동으로 함께 해결한다. 수혜자와 제공자가 구분되지 않고, 누구나 때로는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때로는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구성원이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원봉사자와 봉사를 받는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일방적인 자원봉사와는 구분된다. 또한 기브 앤 테이크라는 동등한 1:1 교환을 전제로 하는 품앗이와도 구분된다.

둘째,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 관계는 평등하다. 위계적 관계로 지시 및 명령과 수행의 체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관계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를 지양하고,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지향한다.

셋째, 민주적인 운영으로 공동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함께 규정하고, 해법도 함께 모색한다. 결과보다는 과정(precess) 자체를 중시한다.

넷째, 타임뱅크는 상기 세가지 핵심원칙들이 준수되는 한 운영형태는

상황(situation)과 맥락(context)에 철저히 의존한다. 타임뱅크 운영모델의 정형적인 표준과 규격은 없다. 주어진 상황과 맥락의 역동적인 창의적 산물이다.

3) 타임뱅크 운영모델 설계의 고려사항

(1) 타임뱅크 조직화 방안 : 국가복지사업 결합형 vs 지역기반 협동조합 결합형

타임뱅크 조직화 방안 관련하여, 구미 사랑고리 사례와 대전 민들레 사례는 각각 상이한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구미 사랑고리는 국가복지 사업 전달체계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의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타임뱅크와 결합하여 지역복지를 확장한 것으로, 전형적인 국가복지 사업 결합형 타임뱅크 조직화 모델이다. 따라서 구미 모형은 지역복지 모형이다. 구미 사랑고리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급자를 지역사회 돌봄 제공자로 활용하여 타임뱅크의 핵심 조직으로 삼았다. 여기에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한 급식봉사와 나눔가게 등을 활용하여 타임뱅크가 작동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도 타임뱅크 모델로 편입하여 자원봉사를 지속가능한 지역돌봄생태계 선순환 체계로 편입시켰다. 타임뱅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누구나 매순간 쓸모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보람 있고 활력있는 삶으로의 혁명적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 민들레 사례는 지역의 의료생활협동조합 조직을 바탕으로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조합원들 간에 지역사회 일상생활 필요를 충족하는 모델로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 민들레 타임뱅크 사례는 지역사회 기반 협동조합 조직과 결합한 타임뱅크 모델로, 전형적인 지역사회 협동조합 결합형 타임뱅크 조직화 모델이다.

국가복지사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의 장점은 첫째, 사업의 안정성

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복지사업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타임뱅크에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 타임뱅크 등 운영인력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비용부분도 국가복지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 사업 운영인력과 수급자들을 기반으로 타임뱅크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타임뱅크가 실패할 확률은 낮다. 둘째, 국가복지사업 플러스 사업으로 국가복지로 부족한 부분을 타임뱅크를 활용한 지역의 자발적 복지로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첫째, 국가복지 수급자는 취약하고 일방적 수혜에 적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제공자가 되는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 핵심가치를 확산하고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타임뱅크 사업내용의 다양성 확보가 어렵고 복지사업의 틀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

한편, 지역기반 협동조합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의 장점은 첫째, 타임뱅크에서 다루는 컨텐츠에 제약이 없다. 전통적인 복지, 돌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니즈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타임뱅크의 취지에 동감하면 참여하는 구성원의 특성도 다양할 수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추진동력이 생기면 오래 지속되며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의 핵심원칙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단점은 첫째,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참여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타임뱅크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둘째,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참여자들 규모가 작으면 타임뱅크 운영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운영인력이 지쳐서 소진될 수 있다.

(2) 타임뱅크 활성화 전략

첫째, 타임뱅크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의존하고 관계 속에서 인정을 추구하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신뢰와 연대, 공동체로서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여러 형태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둘째, 타임뱅크는 신뢰와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를 형성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정한 전인적 만남' 을 자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스킨십의 접촉기회를 자주 갖고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타임뱅크는 민주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타임뱅크의 가치를 확산하는 구심점과 추진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위계적 리더는 아니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육, 기획 등 새로운 가치를 공유해나가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은 헌신적인 리더들을 필요로 한다.

넷째, 타임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전담하는 전담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은 있지만 전담자는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초기 타임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위에서 전담하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정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타임뱅크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라는 잇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ICT기술을 활용하여 가치공유 교육, 전인적 만남, 타임뱅크 운영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안)

앞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타임뱅크 운영 사례분석, 현장전문가 FGI 분석결과 및 구미사랑고리(타임뱅크) 운영사례 등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개발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임뱅크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개인이 주체적 참여자가 되는 코프러덕션을 생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로 경상북도가 타임뱅크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동의하여 본격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복지프로그램에 접근하던 방식은 지양해야할 점이다. 타임뱅크는 복지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의 자원봉사활동과도 구별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공무원과 관련인사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예산지원과 함께 시장경제와 코어경제, 봉사자와 수혜자 간에 코프러덕션이 생성되도록 촉매제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오히려 타임뱅크의 원칙과 중심 가치를 희생시키고 실적내기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생한 모범사례가 성숙되고, 그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시범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개입의 첫발을 내딛기를 권한다. 그와 동시에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의 인식확산을 위해 이론서 개발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북도가 도내 타임뱅크 확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구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해외에서 추진된 사례를 기반으로 몇 가지 운영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 회원을 기반으로 하나의 타임뱅크를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방향뿐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관련 기관 내에 하나의 조직 또는 프로그램으로 추가하는 방향까지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7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기반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이 모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또는 단체가 모여 타임뱅크를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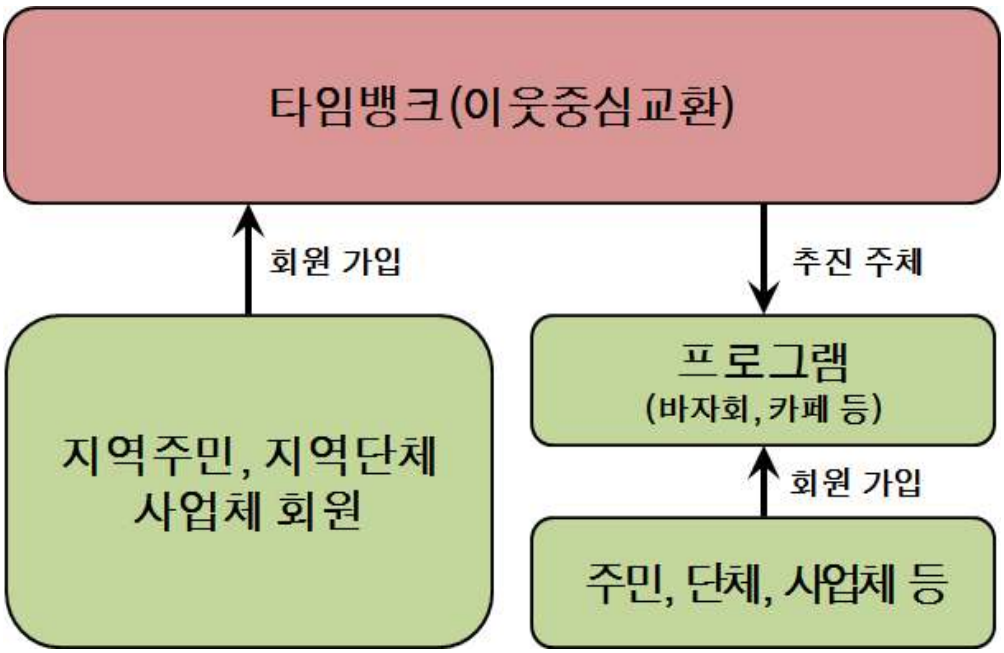


그림 47. 지역사회 기반형 운영모델

(1)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 단체(풀뿌리 단체, NGO 등)나 동호회 모임, 지역 사업체 등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종류의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구성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구성원들의 지역공동체 소속감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2) 추진 및 활용방법

지역기반의 이웃중심교환을 위한 타임뱅크는 민간단체 설립에 필요한 단체등록을 하여 인증된 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 단체정관, 사명문, 타임뱅크 설명자료 등을 비치하여 단체소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코디네이터는 초기 설립멤버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설립취지에 따른 기관 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다. 코디네이터는 회원모집 및 관리, 회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대외홍보 등 대부분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서비스 거래를 기록할 온 · 오프라인 기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화폐를 발행하여 화폐 입 · 출금관리를 하는 것도 코디네이터의 임무이다. 개인회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등록할 때 기록하도록 하여 다른 회원과 매칭시키면 된다. 지역단체나 지역사업체 회원등록 시에 세부적인 참여방식을 사전협의할 필요가 있다.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적으로 참여하거나 개별 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임뱅크 회원에게도 개방하여 회원들이 타임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타임크레딧을 구매요금의 일부로 받는 가맹점역할을 하면서 타임크레딧을 벌 수 있다. 이 경우 화폐와 타임크레딧 지불비율을 업종별 혹은 업체별 적정선을 협의해 둘 필요가 있다.

(3) 타임크레딧 적용방법

개인회원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1시간은 1타임 크레딧의 공식으로 저축한다. 저축된 타임크레딧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1시간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의 매칭은 참여자가 직접 온라인 열람을 통해 서로 직접 컨택하는 방법, 혹은 코디네이터가 직접 매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원간 직접 컨택하는 경우에도 코디네이터의 최종 승인이 개입되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입력수준은 지역의 문화에 따라,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체 회원들은 봉사자를

특정 타임뱅크 프로그램에 파견하거나, 단체이름으로 참여하여 타임크레딧을 벌 수 있다. 저축된 타임크레딧을 지불하고 단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받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단체회원을 위한 특강을 기획할 수 있다. 정관상에서 명시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단체나 사업체가 봉사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체노동이 되지 않도록 코디네이터의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4) 장 · 단점

이 모델의 장점은 취급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에 동의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증가하여 일단 정착하게 되면 지속력이 강하다. 그러므로 봉사를 통한 일상생활 공유와 친목기회 증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정착되기까지 초기 동력을 추진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초기멤버들의 강력한 신념과 헌신성이 기초가 되어야한다. 회원모집 및 교육을 위한 사교모임 또는 공식행사 등을 소규모로라도 수시로 조직하여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타임뱅크를 알리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혼합연계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혼합연계형은 타임뱅크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지역사회 기반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타임뱅크는 지역기반형 타임뱅크가 추구하는 이웃 간 서비스 교환을 통한 친목과 공동체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의 특정 이슈를 겨냥한 특수목적교환을 혼합한 타임뱅크 운영모델이다(그림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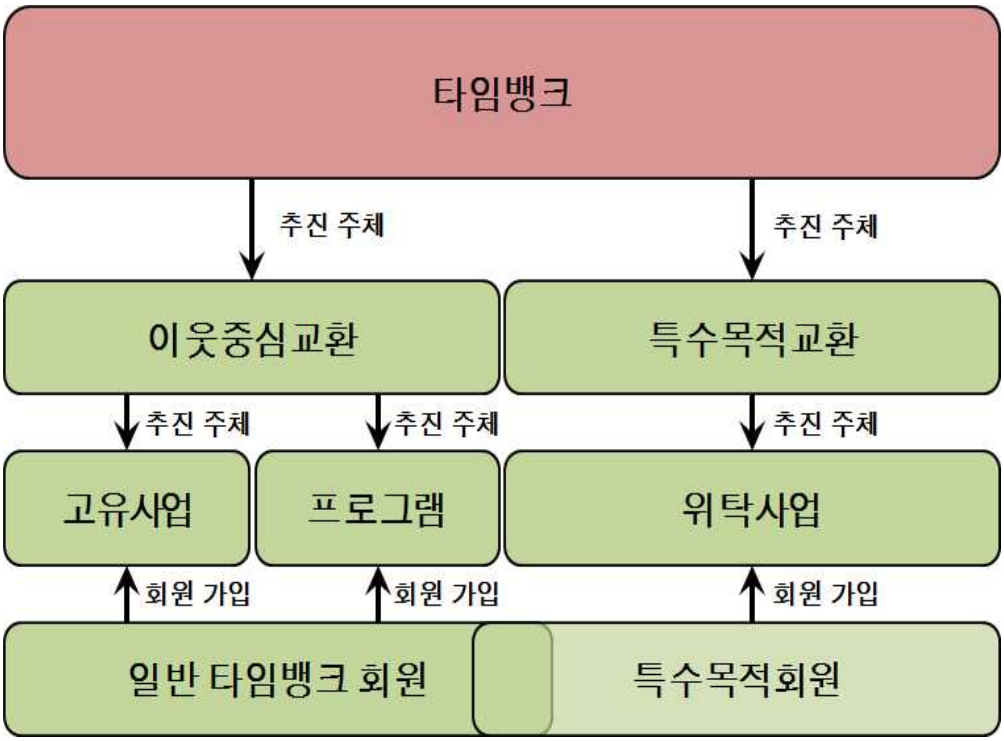


그림 48. 혼합연계형 운영모델

(1) 참여대상

이웃중심교환에는 지역사회 기반 모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회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특수목적교환은 그 프로그램 참가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교환에 참여할 것인가의 선택은 참가자들의 자유선택에 맡길 수 있다. 특수목적교환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특정 연령 또는 집단에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청소년 프로그램이어도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웃중심교환을 위해 등록된 일반회원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2) 추진 및 활용방식

이웃중심교환은 기관 소속 일반회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진행하

거나, 몇 가지 봉사프로그램,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성탄 바자회겸 음악회, 주말카페 등을 주기적 혹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수목적교환은 정부위탁 혹은 기금사업을 타임뱅크 기관의 목적에 맞추어 연계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타임뱅크가 '저소득가정아동 공부방'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임크레딧을 발행하고, 학부모 또는 청소년이 공부방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임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다.

(3) 타임크레딧 적용방법

공부방 아동들은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타임크레딧을 저축하고, 그 일부를 외부 봉사자의 학습멘토 봉사를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학습멘토 봉사에는 일반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웃중심교환과 특수목적교환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학습멘토뿐 아니라 간식 조리 봉사, 야외학습 보조 등을 하면서 타임크레딧을 벌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또는 기금사업을 위탁받아 타임뱅크를 연계하면, 위탁사업과 기관의 타임뱅크 사업이 함께 활성화되어 상호시너지가 생겨날 수 있다.

(4) 장 · 단점

이 모델의 장점은 지역사회 기반 타임뱅크에 특수목적을 위한 외부 위탁사업을 연계하므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운영할 때에 겪을 수 있는 회원모집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게 되면 교환되는 서비스의 종류뿐 아니라 타임뱅크 회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결과적으로 타임뱅크 자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위탁사업 효과가 더욱 향상되는 윈-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임뱅크의 중심가치와 코프러덕션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탁사업을 제대로 배치하기까지 내 · 외부 관계자와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사전에

진행하여, 타임뱅크 추진경로를 맵핑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행 작업에 소홀한 경우, 위탁사업의 성과도출에 매몰되다보면 타임뱅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위탁사업뿐 아니라 기관 전체의 사업을 단순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변질시켜버릴 위험이 있다.

3) 복지사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복지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복지수혜자의 삶의 질 개선 또는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망 구축을 목적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경우에 복지사업 결합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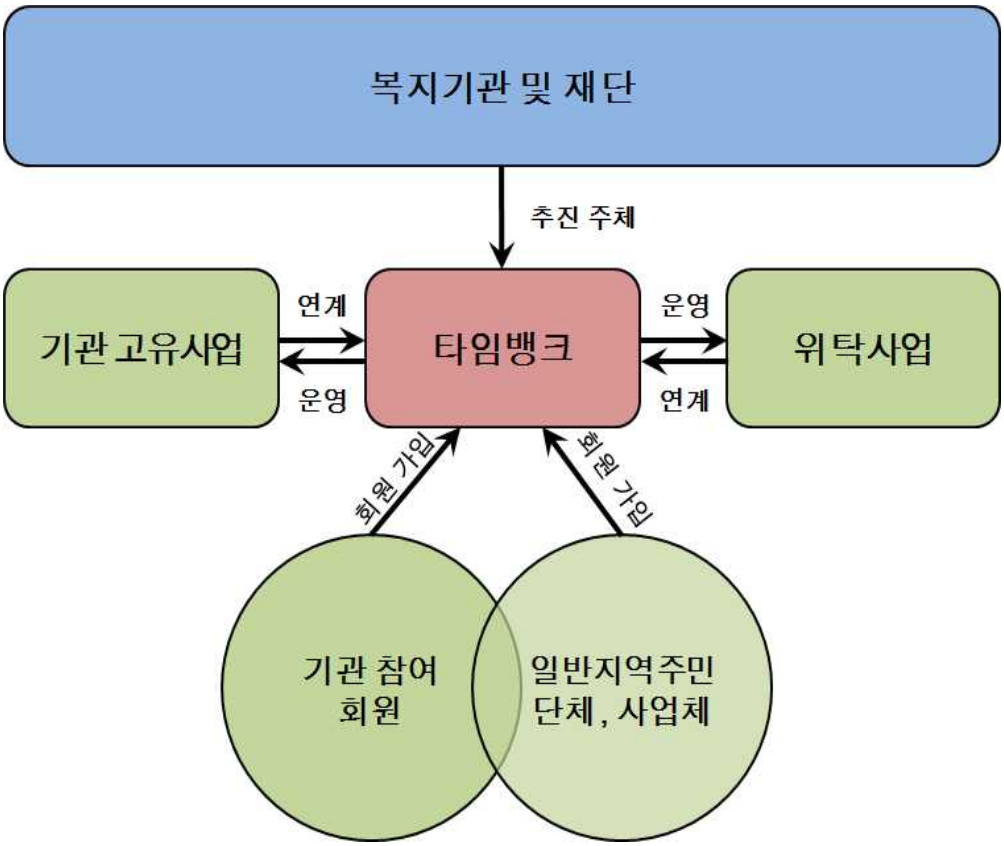


그림 49. 복지사업 결합형 운영모델

(1) 참여대상

복지기관의 모든 사업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지기관 참여자가 아닌 일반 지역주민, 지역단체, 사업체로 대상 범위를 넓혀 타임뱅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다면 기관의 지지세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추진 및 활용방법

복지사업 결합형은 위 그림과 같이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복지관이나 복지재단이 모기관이 되어, 타임뱅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타임뱅크는 기관의 고유사업 또는 위탁사업에 한정해서 운영하거나,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운영할 수 있다. 하나의 타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기관고유사업이나 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자들의 소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타임뱅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복지사업이 도달하지 못한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역사회에 참여시켜 지역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촉진시키거나, 지역민의 연령간, 계층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일 것이다. 주민간 유대를 형성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망을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

(3) 타임크레딧 적용방법

종합복지관에는 이미 고유의 봉사사업과 위탁사업들이 다양하다.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연령별, 목적별로 구분되어 있어 같은 지역주민이지만 소통하지 못하고 유대관계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면, ‘노소사랑방’ 처럼 다양한 연령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타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부터 부모 귀가 시간까지 돌봄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습지도, 간식제공, 저녁식사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복지관의 노인회원들이 돌봄 및 식사준비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 회원은 학습지

도 멘토로 봉사를 할 수 있다. 돌봄을 받는 저학년 아동의 부모는 고용된 식당에 타임뱅크를 홍보하는 봉사, 그 식당은 노인회원들의 타임크레딧을 일부 식비로 받는 가맹점 봉사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센터는 전시회 입장료의 일부를 타임크레딧으로 받고, 그 타임크레딧을 사용하여 또다시 자원봉사자 활용에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러쉬그린 진료소는 의료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1차 진료소인 러쉬그린은 만성우울증 환자들의 반복적인 우울증 패턴과 사회적 소외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타임뱅크를 설립하여 지원하였다. 진료활동을 지속하면서, 장기환자들에게 병원의 정원가꾸기 봉사를 권장하고 그 댓가로 타임뱅크는 타임크레딧을 제공한다. 진료소의 모든 내담자가 타임뱅크 회원이 되지는 않는다. 진료소 내담자가 아닌 일반 지역주민도 타임뱅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원가꾸기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치유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생겨나고, 그 환자들은 정원의 수확물로 농산물 장터를 준비하는 활동에까지 참여하게 된다. 러쉬그린 타임뱅크는 이제 진료소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기반 타임뱅크처럼 운영된다.

(4) 장 · 단점

이 모델의 장점은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에 이미 참가하는 참여자가 있으므로 회원모집이 용이할 수 있고, 사무 공간 및 타임뱅킹 업무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열정과 능력을 갖춘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훈련시키는 예산이면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에 추진해 온 타 사업 추진방식에 익숙한 실무자들이 타임뱅킹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무과중이 너무 심할 경우에 기관 내 협조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직원들의 타임뱅크 이해도를 제고하고, 타임뱅크와 관련된 실무자간 의사소통과 실무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업무체제 정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기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영리활동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게 더 우선적임에도 불구하고 영리활동을 통한 기업 자립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는 명목상 사회적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목적을 상실한 경쟁력 낮은 기업이 되어있거나, 기업이윤 창출에 실패한 비영리사회단체로 변질되어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의 영업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게 하는 도구로 타임뱅크를 활용할 수 있다(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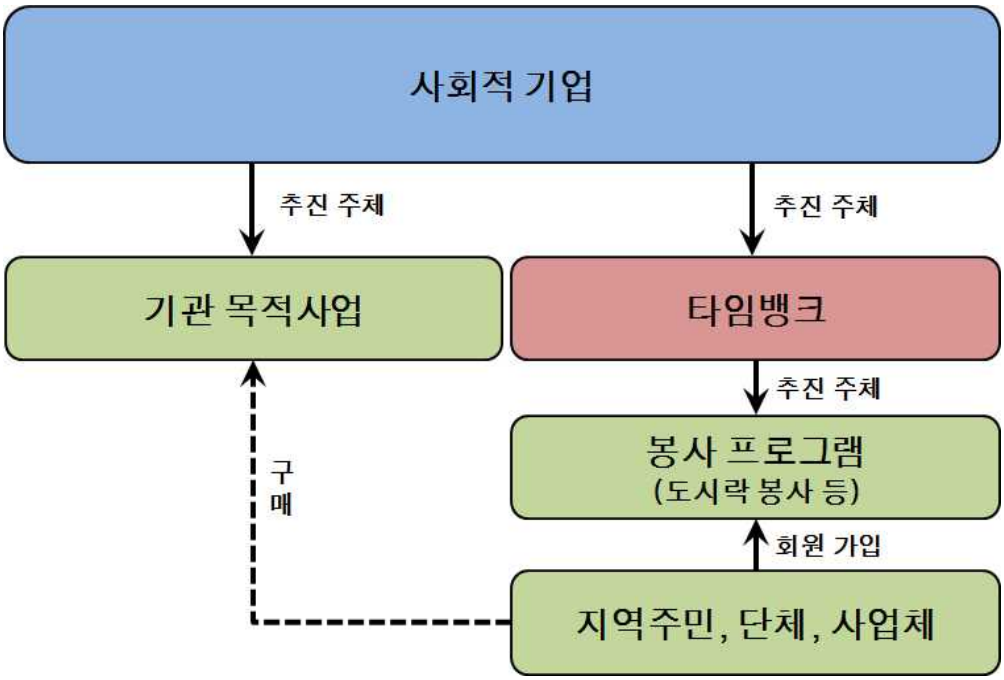


그림 50. 사회적 기업 결합형 운영모델

(1) 참여대상

일반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업상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회원이 되어 가입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 추진 및 활용방법

어떤 특정 상품의 생산과정이나 혹은 서비스의 전달과정과 연계된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을 참여시킨다. 기업이 전문성을 가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락 조리 및 배달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역 내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조리과정과 배달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타임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다.

(3) 타임크레딧 적용방법

회원들은 음식재료 다듬기 혹은 배달서비스에 참여하면서 타임크레딧을 벌 수 있고, 벌어들인 타임크레딧으로 그 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가맹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지역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일부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봉사용 도시락 조리와 배달 서비스에 노인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은 저축된 타임크레딧으로 그 기업이 생산한 도시락을 구매하거나 지역단체의 노인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비로 지불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타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환원 의무를 실현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게 된다.

(4) 장 · 단점

이 모델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해야하는 사회적 목적과 타임뱅크가 추구하는 가치관 사이의 공통점이 매우 분명하기에 의미 있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기업 출범 초기부터 타임뱅크를 결합하기 위한 사전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결합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윈-윈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기업업무에 대한 사전교육과 타임뱅크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업무기획과 분담이 신중하게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타임뱅크 코디네이터를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기업 외부에 있는 타임뱅크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회 환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외부 타임뱅크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5) 자원봉사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자원봉사활동은 타임뱅크와 매우 유사해 보이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며 성숙해 온 토양도 다소 상이하다. 타임뱅크의 출발점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일방성 및 시혜성 극복이 우선 과제로 내재되어 있으며 봉사를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간의 경계선을 없애고 쌍방의 평등한 관계를 통해 코프러덕션을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반면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의 일방성 · 시혜성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 현재 자원봉사인증제가 가진 업무비중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 결과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타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을 추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엄격한 자원봉사 인증제의 기준은 인식이나 체제 면에서 타임뱅크와 상충되는 면들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자원봉사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 추진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다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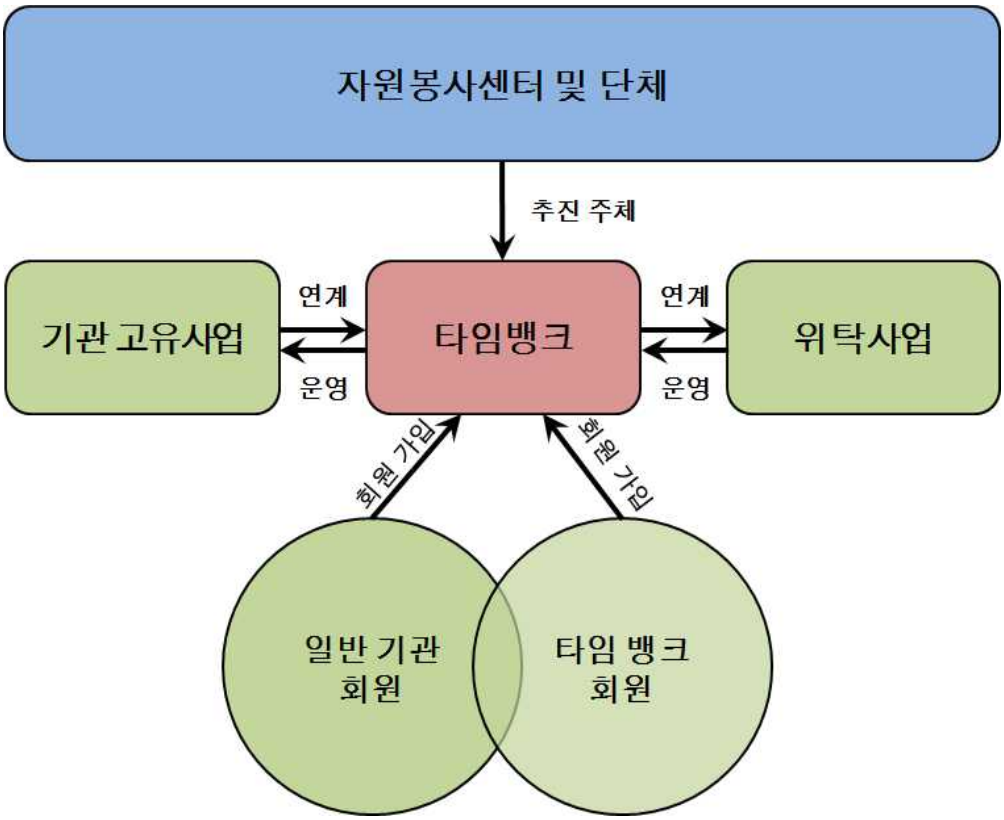


그림 51. 자원봉사 결합형 운영모델

(1) 참여대상

일반 지역주민과 단체, 사업체가 대상이다. 자원봉사센터에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었더라도 타임뱅크 회원 가입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타임뱅크 회원관리는 자원봉사인증제 회원관리 시스템과 분리하기를 권장한다.

(2) 추진 및 활용방법

자원봉사인증시스템에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타임뱅크 봉사를 시작하도록 한다. 인증과 무관하게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공익에 헌신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자원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타임뱅크를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사회정의와 지역사회 연대를 복원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원래의 가치는 타임뱅크가 지향하는 가치관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는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타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자원봉사 인증제는 자원봉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만큼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등 또는 지역사회 연대복원이라는 목적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첫 단계로 자원봉사 인증제로부터 자유로운 봉사프로그램이어야 한다.

(3) 타임크레딧 적용방법

자원봉사인증제 시스템과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타임크레딧 적용방법은 일반적인 타임뱅크 적용원리를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타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기관의 고유사업의 일부를 타임뱅크에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사업의 프로그램 한가지를 타임뱅크에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혹은 모든 사업 참여자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타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다. 만약, 봉사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센터라면, 타임뱅크에는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면이 상당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봉사 마일리지에는 타임뱅크가 추구한 시장경제와 코어경제의 평등한 협력을 통한 코프러덕션과 상충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타임뱅크에는 대인서비스 거래가 강조되는 반면, 봉사마일리지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가 중심이다. 나아가, 타임뱅크에서는 타임크레딧을 화폐가치로 표현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선을 넘도록 권장하고 있다. 코어경제영역이 컴퓨터 운영시스템만큼 중요하다는 타임뱅크의 가치관을 반영한 기준이다. 반면에 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최저임금선에 훨씬 못 미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타임뱅크를 운영할 때에는 기존에 진행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구별하며, 어떤 고유한 목적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를 분명히 수립해야한다.

(4) 장 · 단점

전통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단체나 기관(예를 들어 교회나 자선단체 등)에 자원봉사 동력이 떨어지고 봉사자들과 실무자들이 일방적 봉사로 소진되고 있는 경우라면, 타임뱅크가 결정적인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저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단체의 사명과 타임뱅크의 중심 가치를 잘 결합하고,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성숙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타임뱅크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출범한다면, 그들이 타임뱅크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기관에서 타임뱅크를 시작한다면 기존의 인프라와 봉사 친화적인 문화는 타임뱅크를 성공시킬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 단지 실무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업무가 될 수 있으므로 경영진으로부터 타임뱅크의 필요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기관차원의 인력지원이 보장되며, 실무자 차원에서 자원봉사 실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야만 성공적으로 타임뱅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서비스 접속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이제까지의 모델은 타임뱅크 회원모집, 관리, 모니터링 업무를 타임뱅크가 하나의 기관,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위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접속형은 그런 점에서 타 모델과는 상이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방정부와 정부 외부기관인 타임뱅크가 직접 협약을 맺고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타임뱅크 접속(embed)을 시도하는 모델이다(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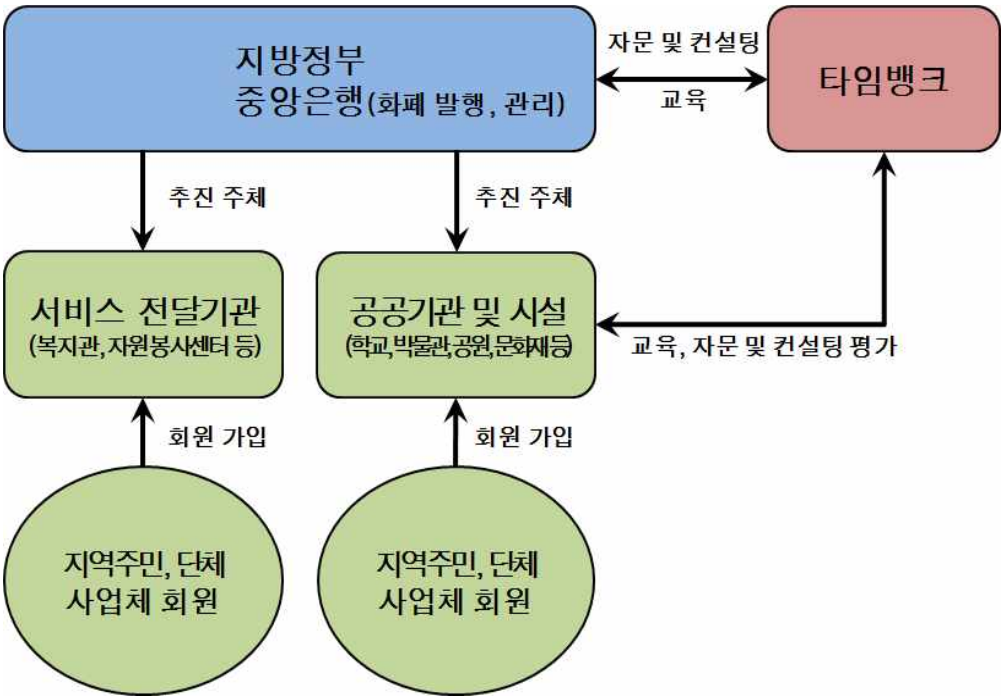


그림 52. 사회서비스 접속형 운영모델

(1) 참여대상

이 모델에는 지방정부에 소속된 일반 지역주민, 지역단체에 소속된 회원, 지역내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공공기관 및 시설단체, 민간단체, 지역사업체가 참여대상이 될 수 있다.

(2) 추진 및 활용 방법

지방정부가 중앙은행이 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기관, 민간단체, 학교 등의 복지 및 교육프로그램에 타임뱅크를 접속하는 과정을 총괄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타임뱅크의 자문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중앙 코디네이터를 지정한다. 중앙 코디네이터는 각 산하 기관 및 단체들이 지정한 코디네이터들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실행을 추진한다. 타임뱅크는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각 기관 및 단체의 타임뱅크 코디네이터를 교육

하고 회원모집 및 관리를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지만, 회원관리를 직접 맡지는 않는다. 타임뱅크는 중앙은행이 전체 총괄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시스템 기관, 단체, 지역사업체 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른 모델에서 타임뱅크가 해왔던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각 산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다. 각 산하 기관 및 단체는 소속된 회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봉사활동을 코디네이팅하여 성사시키고, 지방정부로 정기적인 활동보고를 제출한다. 이 모델에서 타임뱅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각 단위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컨설팅을 제공하고, 활동보고서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 평가보고서를 매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3) 타임크레딧 적용방법

지방정부는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에 봉사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저축된 크레딧을 사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회원끼리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지역내 시설 이용료, 상품 구매에도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단체들은 봉사프로그램 참여하여 받은 크레딧과 봉사자들이 지불한 크레딧을 사용하여 기관이 필요한 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기록에 추가하여 종이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다.

영국의 스파이스 타임뱅크를 예를 들어 본다면, 런던시정부 의회와 스파이스 타임뱅크는 협약을 맺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타임뱅크를 접속시켰다. 지방정부의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에 타임뱅크를 연계할지, 어떤 기관을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킬지를 지방정부는 스파이스와 처음부터 협의하여 협약을 맺는다. 런던 시정부의 경우에는 산하 모든 민간단체들이 타임뱅크를 실천하도록 시정부 내에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였

다. 그 코디네이터가 타임크레딧 발행 및 통화관리까지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타임뱅크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장애인 재활부터 학부형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의 지역카페 운영까지 광범위하다. 봉사자들의 타임크레딧은 런던 시내 박물관, 문화재,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에서도 화폐처럼 활용될 수 있다.

(4) 장·단점

이 모델의 장점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타임뱅크가 접속되어있으므로 그 파급력이 강력하여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그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단체를 통한 민간지원서비스의 중복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 타임뱅크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간의 연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상호 소통이 촉진될 것이다. 복지예산 감소로 예산 배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라면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접속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정착되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자체 정부가 주도하게 될 경우에 관료주의가 개입하여 타임뱅크가 추구하는 코프러덕션과 중심 가치를 정량적으로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어야 할 것이며, 타임뱅크가 제공하는 교육과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개입되어야 하고, 외부 평가 기관의 엄격하고 냉정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환류시스템을 정착시켜두지 않는다면 또 다른 관료행정을 추가하는 결과로 끝날 위험성이 높다. 먼저 지자체와 각 단체의 코디네이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단계로는 각 개인 및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타임뱅크가 추가하는 방향과 중심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활동을 보상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그치게 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위치기반형 타임뱅크 모델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타임뱅크 모델이다(그림 53) 국내에도 이미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유시한 기술이 활용되어 개발된 유사 앱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타임뱅크에 활용하려면 그 원리와 중심 가치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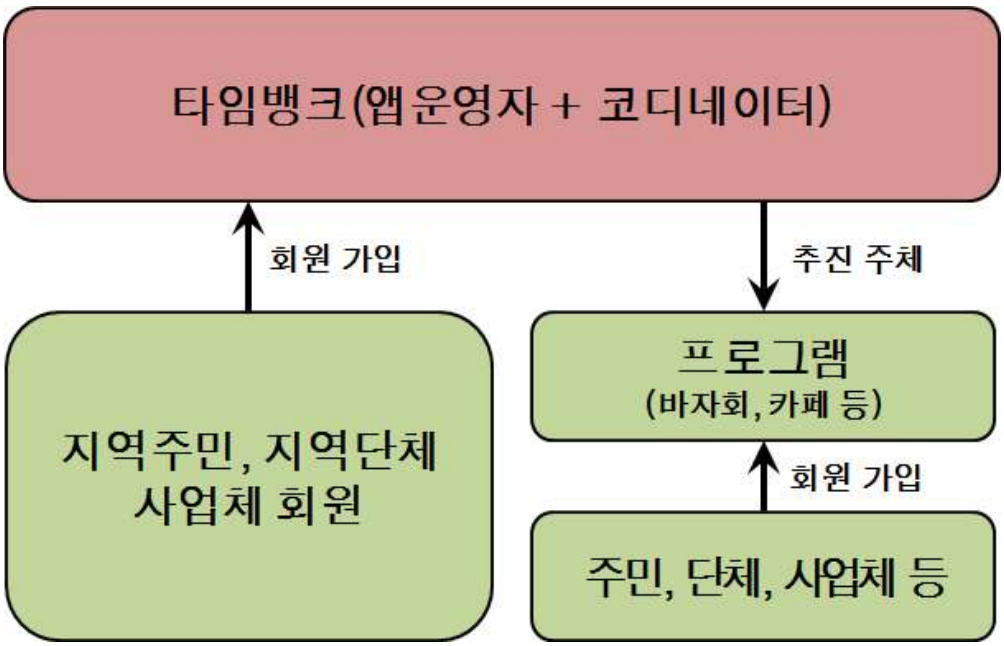


그림 53. 위치기반형 운영모델

(1) 참여대상

지역이나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용언어, 통신기술 환경, 또는 활용수준에 따라 제한되는 지역이나 인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령이나 국적에 제한되지 않는다.

(2) 추진 및 활용방법

동일한 앱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등록하여 회원 간 교환을 할 수 있다. 앱의 디자인에 따라 코디네이터의 개입정도를 조정할 수 있고, 신원조회 수준도 조정할 수 있다. 내국인간의 교환으로만 제한할 수도 있다. 앱의 운영자가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광대한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회원의 책무성, 참여조건에 대한 사전고지 및 후속관리 정책이 사전에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원거리 회원 간의 서비스 교환일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정책 또한 명시해두어야 한다. 물물교환이 가진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정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3) 타임크레딧 적용방법

지역기반형 타임뱅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거리 회원 간의 무상증여, 예를 들어 자신이 번 크레딧을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삼자간 교환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다.

(4) 장 · 단점

현재까지 타임뱅크가 노년층, 아동에 집중되어 온 반면, 위치기반형 모델은 청년층을 유인하기에 좋은 모델이다. 청년층이 유입되면 전체적으로 교환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화될 수 있기에 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고, 온라인상의 소통이 활발해지므로 홍보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사용자의 높은 윤리의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논쟁에 쉽게 휘말리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 유용이 쉽게 생기고, 결국 타임뱅크 운영이 난관에 쉽게 부딪칠 수 있다. 대면접촉이 없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면서 타임뱅크가 추구하는 코프러덕션과 중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아이디어 개발과 실험이 요청된다.

제2절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공동협력생산) 운영모델

앞서 살펴본 타임뱅크의 모델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작게는 개인이 모인 소그룹이나 가족, 친구 사이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며, 크게는 지역단체나 기관, 공공단체, 지방정부까지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다.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 복지서비스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되고 전달되는 중앙 집중방식의 체계 내에서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기만 한다면 모델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임뱅크 운영에는 코프러덕션이 핵심이 되어야하며, 단체가 타임뱅크 모델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과 현장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연구를 지속해온 기관이나 인력풀을 포함된 전문가팀을 상시 활용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시범사업에 착수하고자 할 시에는 치밀한 운영기획은 물론, 운영인력교육 및 운영과정자문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팀과는 별도로,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전문 운영팀이 필요하다.

2) 미국와 영국의 타임뱅크 운영사례

첫째, 미국과 영국의 타임뱅크 운영사례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타임뱅크가 설립된 배경에는 지역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개인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데인카운티, 켄트, 러쉬그린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경제적 격차, 사회적 소외, 이웃의 고통,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타임뱅크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특수한 경험이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 기관, 종합복지관 등 그 기관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임뱅크 운영에 드는 비용의 효율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아치케어 타임뱅크의 사례를 통해서 비용대비 그 임팩트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타임뱅크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었던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코프러덕션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지역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유도하는 코디네이팅의 예술이 필수적이다. 자질을 갖춘 코디네이터 발굴과 동시에 잠재력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뿐 아니라, 잠재력을 갖춘 젊은 리더를 발굴하여 코디네이터로 육성해 나가는 시스템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 영국에서 타임뱅크의 효과적 보급 및 운영에는 싱크탱크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수적이었다.

3) 국내 구미지역 타임뱅크 운영사례

구미지역에서 타임뱅크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랑방사업은 노인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외로움과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새로운 모델로 볼 수 있으며, 말벗 등의 상호간 친밀감형성과 상호봉사를 통하여 호혜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여자, 내담자,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기부와 나눔의 기회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취약계층의 호혜적 봉사와 보상측면에서 말벗 등의 노노케어 참여자보다 서비스 이용자 간의 봉사가 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봉사자들 간의 활발한 교환과 욕구 등을 연결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이웃 맺기를 주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장전문가 및 참여자 FGI 결과

타임뱅크 운영의 기본 요소는 운영 가치 및 원리, 참여자 적용범위, 운영인력으로 구분한다.

첫째, 타임뱅크 운영 가치 및 원리는 참여자를 포함하여 운영 인력을 포함한 조직구성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참여자가 기여자이자 수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생산하지 못하여 타임뱅크 체계를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결국, 타임뱅크 활용의 최종 목표인 지역공동체 기반의 상호 돌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무자들과 참여자들이 타임뱅크에 대한 운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운영과 실천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타임뱅크 참여자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타임뱅크 도입 초기 공적 사회복지제도와 결합한 운영 형태는 비교적 빠른 참여자 확보가 가능하며, 타임뱅크 운영원리에 대한 학습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참여자의 소속감과 타임뱅크 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소속감과 신뢰감은 참여자 간 기여와 수혜가 교환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타임뱅크의 코디네이터는 필요와 욕구를 발굴하고 이들의 교환을 연계하여 상호 돌봄 체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2. 정책제언

지금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흐름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극단적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인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피폐화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흐름도 바로 무한 경쟁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하는 대안임에 틀림없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서울과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따복 공동체 사업으로 가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운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조류로서의 이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경북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 김요나단 신부에 의해 2006년경부터 시도된 타임뱅크의 한 형태인 사랑고리 봉사 운동은 세계적이면서도 국내적인 흐름에 맞물리면서 구미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지난 10여년 간의 굴곡을 겪으면서 성장해 온 사랑고리봉사운동이 보여준 성과는 이제 개별적인 사례를 넘어서 이 운동의 취지와 의미를 경북 전체지역으로의 확산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마을 만들기 운동과도 대별되는 새로운 대안적 운동으로 한국사회에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이미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들 속에서는 타임뱅크의 사례로 구미의 사랑고리가 꾸준히 알려져 온 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구미 현장 방문을 요청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이러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온 민간의 모범적인 혁신사례에 대해 이를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일은 관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순수 민간운동으로서 시작된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점은 민과 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섣부른 관의 개입은 이 운동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관중심의 운동으로 전락되어 당초 이 운동의 근본 취지인 시장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자원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동원하는데 실패할 위험성마저 있다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남도의 타임뱅크 시도가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동으로 전락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하겠다. 충청남도의 경우, 민선 6기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2015년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열고, 2016년에서 영국의 타임뱅크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해 타임뱅크 도입을 적극 시도한 바가 있다. 하지만 실제적 진행은 봉사 마일리지 문제로 귀착되면서 내외부적으로 타임뱅크 자체의 이념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관이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운동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민-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관의 관계에서도 타임뱅크가 강조하는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의 원칙은 확고히 지켜져야 하며, 이는 바로 민과 관의 평등한 파트너쉽을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민이 주축이 되게 하면서 관은 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타임뱅크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 정착 확산된 과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칸 박사가 영국 BBC의 Midweek에 출연하여 타임뱅크를 소개하고 가진 토니 블레어 총리와의 면담은 영국 국민의 타임뱅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데서 큰 역할 해주었다. 이렇게 촉발된 대중적 관심을 BBC는 자사 매체를 통해 각종 홍보 영상을 내보내서 타임뱅크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타임뱅크 운동의 주창자들은 'One 20' 운동이나 'Pay It Foward' 운동 등을 통해 대중의 봉사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도 적절히 배치 한 바 있다. 이러한 대중적 운동의 흐름과 함께 'Timebanking UK' 라는 싱크탱크는 이 운동이 확산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와 방법

론을 다양하게 제시해주었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토대로 타임뱅크를 확산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임뱅크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타임뱅크 운동은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임뱅크 운동의 핵심역량인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대학이나 평생학습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한다. 타임뱅크가 아직 도내 교육기관에는 생소하므로 타임뱅크 현장의 전문가들을 커리큘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및 강사진으로 포함하여 이론뿐 아니라 현장전문역량을 배양하는 양성교육과정이 되도록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타임뱅크의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내용과 방법상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이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 내 쓸모없다고 버려진 인적 자원(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자 등)들을 자산기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이 복지기관과 복지전문가들과 평등한 코프러덕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타임뱅크 코디네이터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력해나가는 코디네이터들이 많아질수록 이 운동의 성공률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의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도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기관의 실무자들, 리더급 일반 시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차츰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방정부는 타임뱅크 운동의 성격과 취지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과 맞물릴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본다. 타임뱅크가 대중 속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전반적 대중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영국의 타임뱅킹을 처음 도입하던 시기에는 정부와 국영방송 BBC가 홍보를 적극 지원하여, 대대적인 전국 캠페인을 벌였다. 20시간 노동마다 1시간의 자원봉사를 하자는 'ONE 20' 캠페인과, 한사람이 아무 댓가를 기대하지 않고 세명을 도우면서 각각 다른 세명에게 도움을 주라고 요청하는 날(4월 27일)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Pay it Forward Day[22]' 같은 지원활동이 있었기에 현재 영국의 타임뱅크는 발원지인 미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타임뱅크를 홍보하는 알기 쉬운 각종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대중적 저변을 넓히는 작업도 함께 수반되어왔다.

그러므로 경상북도는 구미 사랑고리에서 자생한 타임뱅크가 도민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자료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것이며, 영국의 'ONE 20' 또는 'Pay it Forward Day' 에 상응하는 캠페인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타임뱅크 확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할매할배의 날'의 전국화와 활성화 전략에 타임뱅크의 확산 캠페인이 맞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되어진 노인세대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타임뱅크의 취지와 세대간 통합을 위해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이끌어 내려는 '할매할배의날'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

22) 1999년 발표된 Catherine Ryan Hyde 원작 소설 『Pay it Forward 』 이 이듬해에 동일 제목으로 제작되어 전세계에 방영되었음. 국내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상영되었음. 이 영화의 주인공인 초등학생 트레버(Trevor)가 세상을 변화시킬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아이디어로 학교과제로 제출하고 직접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줌. 한 사람이 3명을 도와주고 그 3명이 도움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되갚는(pay back)것이 아니라, 또 다른 3명을 각각 도와준다면(pay it forward),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트레버는 선행을 하며 전세계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음. 이 영화에 영감을 받아 'pay it forward day' 호주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이날을 pay it forward day로 지정하여, 한사람이 3명에게 선행을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이 캠페인이 타임뱅크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음. http://payitforwardday.co.uk/

3) ‘할매할배의 날’과 타임뱅크의 연계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할매할배의 날'의 전국화 전략으로 타임뱅크와 연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된 노인세대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타임뱅크는, 세대간 통합을 위해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이끌어 내려는 '할매할배의 날'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타임뱅크는 노인이 일방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존중의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참여하기를 강조하고 있고, 주체적인 지역구성원으로 생활할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부모세대의 적극성을 더 요청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타임뱅크는 ‘할매할배의 날’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타임뱅크와 연계된다면 공무원, 조부모세대, 학생 등 관계자 대상별 교육과정이나 도민대상 홍보 컨텐츠를 타임뱅크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매할배의 날’과 연계될 수 있는 타임뱅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타임뱅크 ‘노소사랑방’ 프로그램

○ 목적

◇ 조부모세대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소속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가노동 시간을 타임뱅크로 연결하면 효과적임.

◇ 사랑방에 모여 조부모세대가 초등학생 식사 및 과제물 보조하는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행하고자 함.

◇ 세대간 통합 타임뱅크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소외 예방 및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참가대상

◇ 조부모세대, 저소득층 가정 부모 및 아동, 대학생(교), 일반 지역주민, 단체, 사업체 등

○ 추진방식

◇ 도차원의 시범사업 실시할 타임뱅크 추진주체 및 코디네이터 지정

◇ 홍보(할매할배의 날 홍보물에 타임뱅크 소개 포함) 및 사랑방 공간 준비

◇ 참여자모집 및 교육, 담당(공무원 및 민간)실무자교육 : 세대간 코프러덕션 및 지역사회 통합을 이끄는 중심가치, 모범사례 등

◇ 프로그램 내용 : 아동을 위한 식사준비 및 과제지도, 조부모들의 생애 및 지역사 구술을 핵심 봉사내용으로 하되, 일상생활을 위한 봉사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함.

○ 타임크레딧 적용

◇ 조부모세대

• 사랑방 공간에서 아동을 위한 식사준비 및 과제지도 봉사를 통해 타임크레딧 저축, 저축된 크레딧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봉사에 활용함.

◇ 아동

• 조부모가 경험한 향토 지역사회 역사 및 전통문화를 구술하는 봉사, 필요에 따라 고학년 또는 대학생 보조자 매칭

◇ 일반지역주민 및 단체

• 사랑방 프로그램 참가 또는 일상생활을 위한 봉사활동 교환

◇ 지역대학의 학점교육과정(예, 국문과, 연극영화과, 문예창작과, 사회복지학과)과 연계하여 구술 원고정리, 시나리오 개작, 연

극연출 작업 진행, 그 결과물을 ‘할매할배의 날’ 에 책으로 전시 및 연극공연

○ 기대효과

◇ 타임뱅크를 통해 ‘할매할배의 날’ 추진 실적 지속성 및 효과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세대간 소통 및 사회적 소외자 통합 효과로 ‘할매할배의 날’ 의 전국적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3)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 지정

경상북도는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및 한국의 복지환경에 맞게 이론적 토양을 수립하고 제시 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지정한다. 경북도 관할 도립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싱크탱크로 지정하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경북에서 자생한 사랑고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 및 평가하여 타임뱅크 실천이 질적으로 관리 및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해야한다. 그뿐 아니라, 각 단위의 타임뱅크 모델을 모니터링하면서 도내 타임뱅크의 성과를 축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 모델 제시에 연구를 집중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생산된 이론과 모델은 미국과 영국의 현실에 기반 했던 만큼 한국적 복지현실에 기반한 타임뱅크의 이론과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발생지인 서구의 타임뱅크 이론을 한국 복지모델의 맥락 안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서와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싱크탱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연구일 것이다.

4) 노인일자리사업 보완제로 타임뱅크 인정

경북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과 지역사회간의 책임있는 관계형성 및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노인의 자발적 참여 향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타임뱅크 연계가 중요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타임뱅크 연계를 권장하여야 한다. 구미 사랑고리가 회원모집의 주요대상으로 구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다. 사랑고리가 없었다면, 단순히 소액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정량의 노동시간만 채우면 되는 복지프로그램 중의 하나로만 그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구미 시니어클럽이 도내 모범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사랑고리 타임뱅크가 구미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담당직원들과 참여 어르신들에게 코프러덕션의 중요성과 상호 관계형성, 지역공동체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조하여왔기 때문이다. 사랑고리는 구미시니어클럽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여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못하였다. 경상북도는 사랑고리 타임뱅크 사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타임뱅크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공식적으로 권장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사회혁신투자(Social Impact Bond) 시범추진

성과기반의 Payment 시스템 도입으로 비영리 부문의 효과성 증대하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며, 예방적 복지사업에 투자하여 책임성있는 정부예산집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혁신투자는 정부가 이미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예산집행 방식이다. 타임뱅크는 수혜자의 참여를 통한 코프러덕션을 핵심가치로 이미 그 실천적 가치와 효과를 해외와 구미사례에서 입

증하였으며, 그 교환기록 시스템은 정량적 · 정성적 성과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수집할 기제이고, 사회문제예방의 효과 또한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경상북도는 타임뱅크사업을 사회혁신투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인 민 · 관 협력이 이루어내는 책임성있는 복지예산집행의 모범사례를 개발하기를 권한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구미시니어클럽 사례연구팀(2016). 사례연구 보고서 : 구미시니어 노노케어 사랑고리 프로그램. 구미시니어클럽 내부자료.

길임주(2008). 미래 직업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의 효율적인 사회화 촉진방안. 『한국청소년연구』 19권 4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성훈(2011). 한국 지역통화 운동단체 현황. 한밭 레츠 홈페이지 (http://www.tjlets.or.kr).

박소현(2011).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석재은 · 임정기 · 노혜진(2015). 좋은 돌봄 실천선언 연구.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심상달 · 고건 · 권영준 · 이승은(2008).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에드가 칸 지음, 구미요한센터 역(2004).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NO More Throw - Away People). 아르케 : 서울.

오사와 마리 편저(2009). ICOOP 생활협동조합연구소 옮김.『생활 속의 협동』. 푸른 나무.

임채원(2016). 대구 희망원 사건을 사회서비스 혁신 기회로.

주창범(2015). 공교육자원 확충을 위한 개인교육기부 활성화방안. 교육부.

한성일(2015). 타임뱅크 시스템과 무제한적 호혜성의 원리. 문화와 사회. 18권, pp.381 - 431.

http://newstong.co.kr/view.aspx?seq=4036322&txtSearch=&cate=1

< 외국문헌 >

Chris Gray(2003).『Time Dollar : How-to Manual』Timebanks USA : Washington DC.

D. Boyle & M. Harris(2009). The Challenge of Co-production, New Economics Foundation : London.

D. Boyle(2003). The Co-Production Principle and Time Dollars : A Report, New Economics Foundation : London.

David Boyle & Sarah Bird (2014).『GIVE & TAKE : How Timebanking is Transforming Healthcare』 Timebanking UK : London.

Edgar Cahn(2011). Beyond Bartering : Banking On Community Connections, National Public Radio : Tell Me More (Interview). Interview with Michel Martin. Washington DC.

L. Stephens & J. MIchaelson(2013). Buying things together, New Economics Foundation : London.

Martin Simon (2010). 『Your Money or Your Life : Time for Both』 Freedom Favours : Gloucestershire UK .

Mind(2013). Co-production in mental health-A Literature Review, New Economics Foundation :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2002). Keeping the GP Away : A NEF briefing about community timebanks and health,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2008).『Co-Production : A Manifesto for Grwoing Core Economy』 New Economics Foundation : London.

State of Hawaii (2014). Timebanking Feasibility Study. Hawaii Executive Office on Aging : Hawaii, USA.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권용신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손서락　코리아타임뱅크 대표

공동연구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상북도 타임뱅크 운영모델 개발 연구

발행일 : 2016.　12.

발행인 : 편 창 범

발행처 :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 - 30)

전화 054)710 - 8820　전송 054)710 - 8899

홈페이지 http://www.ghf.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